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제16대 (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白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CONTENTS 1

CHAPTER 01

발간사 (김상근 인수위원장)	002
-----------------------	-----

CHAPTER 02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취임사	
취임을 맞아 경기도민께 드리는 글	006

CHAPTER 03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구성 및 지원 인력 현황

인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012
인수위원회 분과별 구성 현황	013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현황	013
인수위원회 위원 자문(분과)위원 구성 현황	016
인수위원회 교육청 지원 인력 현황	016

CHAPTER 04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현황

인수위원회 및 분과(특위)별 활동 요약	020
분과(특위)별 주요 활동	021
인수위원회 요구자료 목록 현황	021
인수위원회 참여 게시판 운영 현황	022
인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주요 활동 현황	022
분과(특위)별 주요 활동 현황	026

CHAPTER 05

이재정교육감 핵심 공약 현황	042
-----------------------	-----

CHAPTER 06

경기교육의 약속	050
----------------	-----

CHAPTER 07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 계획

과제 1.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혁신분과> 054

- 현황 및 문제점 054
- 정책과제 추진 계획 059
 - 1-1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혁신교육 추진체제 개편 059
 - 1-2 혁신학교의 새로운 도약 062
 - 1-3 학교 행정업무 정상화·효율화 066
 - 1-4 교원 전문성 신장과 현장 역량 강화 068
 - 1-5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070

과제 2. 학생인권과 함께 바로 서는 교권 <교권분과> 075

- 현황 및 문제점 075
- 정책과제 추진 계획 079
 - 2-1 생명존중 교육의 강화 079
 - 2-2 행복한 학교문화 구축 081
 - 2-3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084
 - 2-4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 확립 085
 - 2-5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료 089

과제 3.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민생분과> 090

- 현황 및 문제점 090
- 정책과제 추진 계획 093
 - 3-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093
 - 3-2 다양한 배움을 인정하는 새로운 학교 추진 098
 - 3-3 학부모의 자치 실현과 부담 경감 102
 - 3-4 새로운 도약, 유치원 혁신 105
 - 3-5 친환경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과 식생활 교육 강화 107
 - 3-6 독서교육 활성화와 도서관 특화 및 주민 개방 109

제16대 (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白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CONTENTS 2

과제 4. 인사제도 및 조직 개편 <제도분과> 111

• 현황 및 문제점	111
• 정책과제 추진 계획	112
4-1 다면평가 및 근무평정제도 개선	112
4-2 교원임용제도 개편	114
4-3 일반직 임용 및 승진 제도 개편	116
4-4 교육전문직원 임용제도 개편	118
4-5 교장공모제 및 중임제도 개선	120
4-6 성과급 제도 개선	121
4-7 수석교사 운영제도 개선	121
4-8 교원, 일반직 전보제도 개선	122
4-9 교원 승진가산점 개선	123
4-10 교육경력 산출 방법과 적용 일원화	123
4-11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발전 방안	124
4-12 조기 발령을 통한 신학기 준비 체제 구축	128
4-13 전교사 담임제 확대	129
4-14 본청 및 직속기관 조직개편 T/F팀 운영	129

과제 5. 사람을 사람답게 섬기는 경기교육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33

• 현황 및 문제점	133
• 정책과제 추진 계획	135
5-1 차별해소위원회 설치와 운영	135
5-2 지역별 · 학교별 교육(환경) 격차 해소 추진	136
5-3 특수교육종합지원방안 마련	137
5-4 다문화 및 탈북학생 지원 방안 마련	138
5-5 차별해소 노동인권 보호	140
5-6 차별과 소외 없는 학교문화 실현	143
5-7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144
5-8 사립학교 평가 시스템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144
5-9 조사 및 감사 시스템의 투명성 · 신뢰성 · 공정성 제고	146
5-10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147

과제 6. 단원고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149

• 현황 및 문제점 149

• 단원고 회복지원 방향 150

6-1 치유와 상담..... 151

6-2 단원고 교육비전과 발전 153

6-3 기억과 추모..... 154

6-4 안산교육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축 155

CHAPTER 08

인수위원회 예산 결산 내역 160

CHAPTER 09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인수위원회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글 168

발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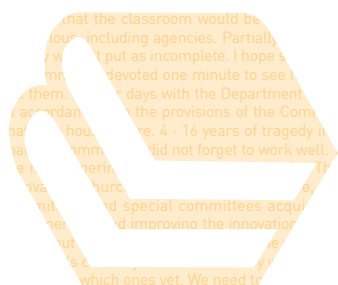
김상근 인수위원장

저를 비롯한 2014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숙제는,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온갖 모순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로 집약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앗아간 기업의 탐욕, 정부와 국가의 무능, ‘가만히 있게 했던’ 한국 교육과 사회, 언론 등 모든 제도와 현상의 본질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중에서



01



발간사

01

김상근 인수위원장

이 백서를 이재정 신임 민선 경기도교육감께 드립니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과 이 백서를 공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 50여 일 동안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라는 참으로 엄청난 비탄 가운데서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었고, 인수위원회 작업 역시 그 엄중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존중, 생명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마침 신임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그러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철학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와 차별해소특별위원회 등 두 특별위원회와 혁신, 교권, 민생, 제도 등 네 분과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두 특위는 내일을 설계함과 오늘 당장 시행하고 개선하고 혁신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집행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현장의 당위를 피하지 않고 활동했습니다.

신임 교육감이 공약한 145개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여 그 실행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련했습니다. 공약 한 개를 현실화 하는 데 수많은 가지가 있었고, 그 가지들은 어떤 것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만 또 어떤 것은 서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공약 중에는 당장 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 있었고,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완급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해서 우리는 신임 교육감의 공약을 실현해 낼 수 있는 큰 밑그림에 드디어 도달하였습니다. 밑그림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을 짜고 거기 예산을 배정하는 일은 우리 인수위원회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자제했습니다. 이후 4년에 걸쳐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신임 교육감이 수없이 언급하고 있는 현장중심 즉 학교교실중심 행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산하 기관을 포함한 광범하고 세심한 조직개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에는 인수위원회의 법적 활동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를 미완으로 둔 채 활동을 마감하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일이 과감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크고 헌신적인 활동을 한 인수위원 한 분 한 분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큰 감사를 드리며, 파견 직으로 일에 함께 하신 교육청 공무원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14년 8월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김 상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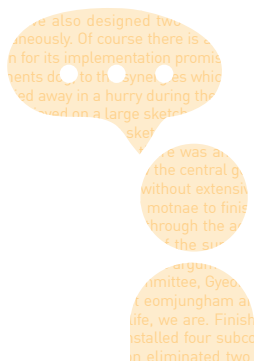
취임을 맞아 경기도민께 드리는 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청과 교육정책의 존재의 근거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데 있습니다.
‘교실’과 ‘학생’에게서 교육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정책은 의미 없습니다.
교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원리입니다. 억압과 차별
이 요소가 있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중에서





<제3대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사>

취임을 맞아 경기도민께 드리는 글

02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오늘 우리는 경기도 교육의 위대한 새 출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길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찾던 길입니다. 지난 6월 4일 경기도의 1,250만 도민들이 뜻을 모아 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앞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희망의 길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은 우리 사회의 침몰이었습니다. 단원고등학교의 사랑하는 250명의 학생과 12분의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꽃잎이 되어, 바람이 되어, 저 하늘 높은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남은 우리들은 비통한 슬픔 속에 절망하였습니다. 땅이 좌절하였습니다. 하늘이 슬픔에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통 노란색 리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11명의 실종자들을 목놓아 부르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 집합니다. 단 한 명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새로운 모습으

로 우리들 속에 꿈으로 희망으로 열정으로 살아 있는 그대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짐합니다. 4·16 이전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 거짓과 위선이 없는 세계, 부정과 불의가 사라진 세계, 사육과 수탈이 없는 세계, 그리고 돈보다도 힘보다도 사람이 더 귀하고 귀한 그런 세계를 만들어 그대들에게 바칠 것입니다.

세월호의 참극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학교 체제는 학생들의 창의성(Creativity)을 존중하고 확장시키기 보다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학교가 장벽이나 틀이 되어 학생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혁신은 해체가 아니라 형성에서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새로운 ‘형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교육현장을 가로막고 창의성을 무너뜨리는 교육제도를 모두 바꾸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교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반드시 성공시켜 경기도의 미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등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인수위원회 참여게시판에 올린 글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아침 9시 등교도 꼭 실현하겠습니다. 벌점제도 반드시 폐지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시험도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들어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청의 직제를 개편하여 학교의 모든 분야에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안전지원국을 신설하고 책임자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세우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함께 힘을 모아 필요한 법을 제·개정하고 교부금의 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교육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위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별입니다. 차별해소의 방법을 찾고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어젯밤 자정까지 올라온 774건을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실행여부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의 교육행정을 위하여 경기도청, 시민사회단체, 교육계와 광범위하게 논의하여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의회 및 경기도의 모든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아래 자치교육의 굳건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모든 교육감들과 함께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길을 함께 갑시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앞으로 경기교육은 우열을 갈라 친구를 경쟁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의 동



반자 관계가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혼자만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삶의 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교육감이 먼저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대화를 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손을 내밀겠습니다. 교육감이 아니라 그저 다른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공정한 인사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통하여 선생님의 자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교사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둘러 앉아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시민의 책임을 공감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마침내 한반도의 통일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일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역사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 빛나는 무지개의 꿈을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펼쳐 일어섭시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영광의 내일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힘차게 문을 열고 출발합시다.

끝으로 조동화 시인의 詩, “나하나 꽃피어”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 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

2014년 7월 1일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구성 및 지원 인력 현황

어느 시대나 교육은 미래를 여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실천 없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과 정치사회적 민주화 속에
서도, 교육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입니다.
저는 이 어둠을 헤치는 교육의 신세벽을 경기교육이 열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
고 저 또한 필생의 힘을 다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구성 및 지원 인력 현황

03

❖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총 12인)

직책	성명	소속 및 경력	비고
위원장	김상근	전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부위원장	손상훈	전 포천 교육지원청 교육장	
위원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위원	김거성	국가청렴위 비상임위원	
위원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위원	서길원	성남 보평초등학교장	
위원	이준원	고양 덕양중학교장	
위원	이범희	용인 흥덕고등학교장	
위원	이 범	교육평론가	
위원	김부정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회장	
위원	정진순	흥덕중학교 교사	
위원	이한복	(사)미래와 균형 소장	간사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분과별 구성 현황

분과	성명	직책
인수위원회	김상근	인수위원장
	손상훈	부위원장
	이한복	간사
혁신	서길원	위원장
	이준원	위원
교권	손상훈	위원장
	정진순	위원
민생	성기선	위원장
	김부정	위원
제도	김상근	위원장 겸임
	이범희	위원
	이 범	위원
차별해소특별위원회	김거성	위원장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황인성	위원장
	이한복	인수위원회 간사 겸임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현황(43명)

순	직책	이름	경력
1	자문위원장	이중현	조안초등학교 교장
2	자문위 간사	김성천	경기도교육연구원
3	자문위원	김명수	전 수원시의회 의장
4	자문위원	양순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5	자문위원	유경근	단원고 희생자 학부모
6	자문위원	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
7	자문위원	장동원	단원고 생존학생 가족 대표
8	자문위원	노항래	협동조합 은빛기획 대표
9	자문위원	김상희	경기도의회의원
10	자문위원	황지연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 위원장
11	자문위원	강선미	대한영양사회 부회장
12	자문위원	김명희	선대위원
13	자문위원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순	직책	이름	경력
14	자문위원	주미화	광명 교육희망네트워크
15	자문위원	최은희	선대위 자원봉사
16	자문위원	최한상	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7	자문위원	김혜식	와부중학교 교장
18	자문위원	유 재	경기도교육연구원
19	자문위원	이광희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
20	자문위원	김제남	선대위 조직본부장
21	자문위원	송경원	선대위 정책실장
22	자문위원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23	자문위원	지재익	선대위 조직본부장
24	자문위원	신영대	선대위 상황실장
25	자문위원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6	자문위원	전 기	선대위 재정위원장
27	자문위원	전상직	지방자치학회장
28	자문위원	고병헌	성공회대학교 교수
29	자문위원	노 혁	선대위 조직본부장
30	자문위원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 변호사
31	자문위원	구희현	친환경급식운동본부
32	자문위원	김원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집필 대표
33	자문위원	박창호	한신대학교 겸임교수, KCRP사무총장
34	자문위원	송성영	경기교육희망연대 대표
35	자문위원	이재훈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기획이사
36	자문위원	임선일	이주노동자지원협회 상임부회장
37	자문위원	임승철	목사
38	자문위원	최광귀	전 수원시의의회 의원
39	자문위원	최연정	시흥 은행고등학교 교사
40	자문위원	임미영	보건교사회장
41	자문위원	이종훈	명지대학교 교수
42	자문위원	심경환	경기대학교 교수
43	자문위원	공경옥	남양주 평내고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분과(특위) 배치 현황

분과 명	인수위원	자문위원	실무간사	인원
혁신	서길원 이준원	주미화, 김혜식, 이광호, 최연정	오재길 (장학사)	6명
교권	손상훈 정진순	이광희, 임미영	서동연 (장학사)	4명
민생	성기선 김부정	강선미, 김명희, 이영애, 전 기, 전상직, 노 혁, 송성영, 김제남	서용선 (교사)	10명
제도	김상근 이범희 이 범	황지연, 최한상, 유 재, 송경원, 엄기형, 이재훈, 이종훈, 심경환, 공경옥, 김성천	김성천 (교사)	13명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김거성	노항래, 김상희, 신영대, 엄윤상, 구희현, 임선일, 임승철, 최광귀, 김원태,	김은정 (장학사)	10명
단원고대체 특별위원회	황인성 이한복	김명수, 양순필, 유경근, 홍승구, 장동원, 최은희, 지재익, 고병헌, 박창호	신동훈(장학사) 권주연(6급)	11명
인원	12명	42명		54명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교육청 지원 인력 현황

업무분야	직급	성명	담당 업무	소속기관	비고
혁신 분과	장학사	오재길	혁신 분과 지원	정책기획관	
교권 분과	장학관	김동민	교권 분과 지원	평택교육지원청	
	장학사	서동연	교권 분과 지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민생 분과	교사	서용선	민생 분과 지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제도 분과	교사	김성천	제도 분과 지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차별해소 분과	장학사	김은정	차별해소 분과 지원	정책기획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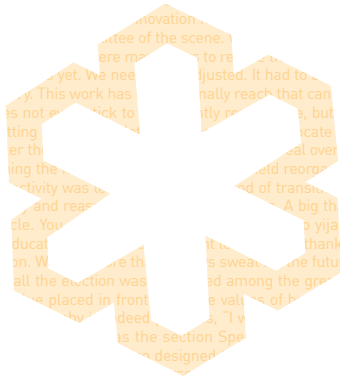
업무분야	직급	성명	담당 업무	소속기관	비고
단원고 대책 특위 (11명)	교장	나경록	단원고대책 특위 지원	초지고등학교	
	장학관	이상옥	단원고대책 특위 지원	과학직업교육과	
	5급	홍성한	단원고대책 특위 지원	기흥고등학교	
	장학사	신동훈	단원고대책 특위 지원	학교인권지원과	
	장학사	이 성	단원고대책 특위 지원	정책기획관	
	장학사	고기윤	단원고대책 특위 지원	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간호익	단원고대책 특위 지원	학교혁신과	
	교사	명인희	단원고대책 특위 지원	광주중학교	
	6급	권주현	단원고대책 특위 지원	정책기획관	
	7급	정은주	단원고대책 특위 지원	시흥 정왕중학교	
	7급	이승현	단원고대책 특위 지원	복지법무담당관	
백서발간 (3명)	장학관	조경자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	파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안순억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	대변인	
	장학사	김덕년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	교육과정지원과	
당선인 지원	5급	정진각	당선인 비서실 총괄	과학직업교육과	
	6급	홍일표	당선인 일정 관리	총무과	
	6급	이상무	당선인 수행	총무과	
	7급	류수민	당선인 비서	친환경급식과	
	7급	고유진	당선인 비서	재무과	
인수·자문위원회 행정 지원 (6명)	5급	안성호	인수위원회 지원 총괄	사학지원과	
	6급	백성렬	인수·자문위원회 운영지원	총무과	
	7급	이민형	인수·자문위원회 운영지원	경기도의회	
	7급	이미경	인수·자문위원회 운영지원	학교인권지원과	
	8급	노지영	인수·자문위원회 운영지원	체육보건과	
	8급	이정임	인수·자문위원회 속기	학교혁신과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일지



04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일지

04

1 인수위원회 및 분과(특위)별 활동 요약

• 인수위원회 활동

- 회의개최(10회) : 6.11(수), 6.14(토), 6.17(화), 6.26(목), 6.30(월),
7.07(월), 7.11(금), 7.18(금), 7.23(수), 7.30(수)
- 워크숍 개최(1회) : 6.14(토)
- 도교육청 업무보고(4일) : 6.17(화), 6.19(목), 6.20(금), 6.23(월)
- 자문회의 개최(1회) : 6.18(수)
-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진상 규명 서명 운동 참가 : 7.01(화)
- 경기도교육감 취임식 : 7.01(화)

2 분과(특위)별 주요 활동

분과명	내용
혁신	회의개최 2회(6.23, 7.02) (학교혁신, 역량강화, 교육과정)
교권	- 실무협의, 합동협의회 - 백서작성을 위한 자료 작성
민생	협의회 개최 (매점, 통학용교통비, 혁신교육지구, 급식시스템, 체험학습비 공의 학교, 교육자원봉사센터, 학교도서관, 협동조합, 수업준비물)
제도	협의회 개최 공모제임용, 신규교원임용, 백서집필방향 협의 등
차별해소특위	- 전체회의 개최 - 분야별 회의 개최(교육복지, 학교문화혁신, 노동인권, 반부패, 민주시민) - 백서작성을 위한 자료 작성
단원고대책 특위	- 유가족 면담 - 단원고 게시판 개설 운영 - 전체회의, 워크숍 및 실무 T/F 운영 -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 행진 동참

3 인수위원회 요구자료 목록 현황

요구위원	건수
서길원 위원	33
정진순 위원	11
김부정 위원	3
김거성 위원	11
성기선 위원, 김부정 위원	23
성기선 위원	1
황인성 위원	1
이 범 위원	1
이한복 위원	2
차별해소특별위원회	19
혁신분과	8
기타	3
합계	116



4 인수위원회 참여 게시판 운영 현황

- 운영 개시일자 : 6.19(목)
- 운영 종료일자 : 7.10(목)
- 운영 방법 : 담당분과별 해당 게시물 관리
- 게시물 건수 : 1,537건 (2014.7.10. 24:00기준)

분과	게시물 건수	비고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22	별도 게시판 운영
소계	22	
차별해소특별위원회	578	
민생분과	137	
교권분과	26	
혁신분과	216	
제도분과	558	
소계	1,515	
합계	1,537	

5 인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주요 활동 일지

일자	내용	비고
6.11 (수)	1. 인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시간 : 10:00 -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인수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참석자 : 당선인 위원장외 11명
6.14 (토)	1.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워크숍 개최 - 시간 : 12:00 ~ 19:00 - 장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내용 : 혁신교육을 넘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서길원위원) 경기도교육청 주요사업 보고(기획조정실) 당선인공약사항(파워포인트 자료)전체 보고(성기선위원) 분과별 업무추진계획 내용 설명(분과 위원장) 2. 인수위원회 2차(임시) 회의 개최 - 시간 : 19:00 ~ 21:00, 장소 : 위 동일 - 내용 : 자문위원 임승철외 9명 추가 위촉(39명)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일정 확정(6.17, 6.19) 제도개선분과신설 : 위원장 김상근, 이범희, 이 범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창구 마련(인수위, 단원고대책위) 취임식 방법 논의(영상메세지, 화상연결 등 마련)	참석자 : 당선인 위원장외 11명 보좌관, 대변인 부교육감, 실국장

일자	내용	비고
6.17 (화)	1. 인수위원회 도교육청 업무보고 - 시간 : 15:00 ~ 18:00 - 장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내용 :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참석자 : 위원장외 11명, 당선인, 보좌관, 대변인
6.17 (화)	1. 인수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일시 : 19:00 ~ 21:25 - 장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내용 : 인수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예정 보고(6.18) 차별화해소특위 위원 추가 : 정준, 염운상, 교육청 노무사 교원명예퇴직 수당의 적극 예산확보로 교직안정화 확보 교장공모제(2014.09.01.) : 초등(75명), 중등(47명) 취임식 추진 : 하위직급 50명, 토크콘서트, 인터넷동영상 메세지, 16:00 취임시간,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추가(4명) - 임미영, 이종훈, 신경환, 공경옥 총 자문위원 : 43명	참석자 : 위원장외 11명, 당선인, 보좌관, 대변인
6.18 (수)	1. 인수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 일시 : 19:00 ~ 21:00 - 장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내용 : 이재정 교육감 당선인의 주요공약과 정책방향 설명 (성기선위원) 분과위원회(단원고특위, 차별화해소특위, 교권특위, 혁신특위, 민생특위, 제도개선특위) 활동 분야 설명 자문위원의 분과위원회 분류(별첨) 자문위원 질의응답 1)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 자료 공유 공간 마련 2) 방대한 공약 내용 축소하여 중점과제 중심으로 정리 3) 학생들 의견수렴 통로 마련 4) 진로상담 관련 강사네트워크 구축	참석자 : 당선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의11명 자문위원 32명 보좌관, 대변인
6.19 (목)	1. 인수위원회 도교육청 업무보고 - 시간 : 10:00 ~ 21:20 - 장소 : 경기도교육청 - 내용 : 감사관, 대변인, 지원국, 총무과, 교육국_북부청사 포함 (총무과 재보고 요청 - 당선인 정책 반영 요구)	



일자	내용	비고
6.20 (금)	1. 인수위원회 도교육청 업무보고(기획조정실 예산분야) - 시간 : 15:30 ~ 17:00 - 장소 : 경기도교육청 - 보고자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등 간부 참석 (김현국 정책기획관 설명) - 내용 : 업무보고, 총무과 회의일자 정함 (23일 15:00 인수위원회 회의실) ※ 제도분과위원회 : 회의일자 확정시 위원장 협의필요 지적(김상근위원장 보고 체계 확립 철저)	당선인참석 인수위원 참석 : 김상근, 황인성 서길원, 정진순 김부정, 이한복
6.23 (월)	1. 인수위원회 도교육청 업무보고(총무과 재 보고) - 일시 : 15:00 인수위원회 총무과 재 업무보고 -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2층) - 보고자 : 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 내용 : 2개의 총무과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 측면 문제 유무 확인 민선교육감의 인사권이 제한(4급이상 교육부)	참석자 : 당선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외11명 총무과장
6.26 (목)	1. 인수위원회 4차회의 - 시간 : 14:00 ~ 17:00 -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교육감 취임식 준비 상황 보고(교육청 총무과) 2.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특위 및 분과위 중간보고 (단원고, 차별해소, 교권분과, 혁신분과, 민생분과, 제도개선) - 안건 : 6급 혁신역량 연수 진행 여부(결과 : 취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외11명
6.30 (월)	1. 인수위원회 5차회의 개최 - 시간 : 10:00 ~ -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취임사 검토에 관한 건 2. 6급 핵심역량강화 연수에 관한 건	교육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외11명
6.30 (월)	1. 취임식 리허설 - 시간 : 15:00 ~ 17:00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소강당 - 내용 : 경기도교육감 취임식 리허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외11명

일자	내용	비고
7.01 (화)	1.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천만인 서명 운동 동참 - 일시 : 2014.07.01.(화) 10:00 ~ 12:00 - 장소 : 수원역 광장 - 참석자 : 교육감, 인수위원, 단원고 특위위원장 및 실무TF 위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의 4명
7.01 (화)	1. 취임식 참석 - 시간 : 16:00 ~ 17:00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소강당 - 내용 : 토크콘서트 형식의 취임식(사회 : 방송인 김미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의 11명
7.07 (월)	1. 6차회의 개최 - 시간 : 17:00 ~ -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분과위원회 진행 내용 보고 및 의견수렴 2) 분과위원회 누락 의제 추가 및 추가 의제 안건 발굴 3) 인수위원회 향후 회의일정	교육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의 10명 (성기선위원 불참)
7.11 (금)	1. 인수위원회 7차회의 개최 - 시간 : 17:00 ~ -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전문직인사 관련 2) 학교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운영 계획(안)에 관한 건 3) 거버넌스 관련 추진방향 제안 4) 경기교육의 약속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의 9명 (황인성, 이범위원 불참)
7.18 (금)	1. 인수위원회 8차회의 - 시간 : 10:00 ~ 17:00 -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장마철대비 긴급 학교안전점검 지시 이행사항 보고 2) 학생 벌점제 폐지추진에 관한 건 3) 9시 등교실현 추진에 관한 건 4) 외고 입학전형 개선에 관한 건 5) 거버넌스 구축 추진방안에 관한 건 6) 종합보고서 검토에 관한 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의 8명



일자	내용	비고
7.23 (수)	1. 인수위원회 9차회의 - 시간 : 14:30 ~ 16:46 -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9시 등교실현 추진 진행사항 보고 건 2) 경기교육의 약속 수정사항 보고 건 3) 조직개편 T/F팀 운영계획(안) 검토의 건 4) 학생 벌점제 폐지 추진에 관한 건 5) 인수위원회 종합보고서 검토에 관한 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11명
7.30 (수)	1. 인수위원회 10차회의 - 시간 : 14:00 ~ 16:46 -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외교 입시전형 개선 검토의 건 2) 인수위원회 종합보고서 검토에 관한 건 (※ 종합보고서 최종 검토시 유의사항 안내 : 성기선 위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11명 교육감 참석 인수위원회 해단식

6 분과(특위)별 주요 활동

● 혁신분과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6.23 (월)	혁신 분과	1. 일시 및 장소 : 2014.06.23.(월) 16:00 경기도교육연구원 2. 참석 : 위원장 외 16명 3. 회의 내용 가. 팀구성 : 학교혁신팀, 역량강화팀, 교육과정팀 (3개 팀으로 구성) 나. 팀구성 및 활동과제에 대한 위원별 제안 - 혁신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발표 - 팀별 주요 활동과제 추출 - 기존 정책 조정(폐지, 변경, 강화 등) - 활동과제에 대한 자유 토론 - 공약사항 부서별 이행계획 참조 - 각종 요구자료 검토 다. 혁신분과위원회 1차 보고서 작성 - 활동과제 업무 분장 - 메일로 간사위원에게 제출(6월 25일까지 제출) - 보고서에 담을 내용 협의(현황 및 문제점, 기존정책 조정, 추진전략 또는 추진방안 등)	위원장 외 16명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7.02 (수)	혁신 분과	1. 일시 및 장소 : 2014.07.02.(수) 16:00 경기도교육연구원 2. 참석 : 위원장 외 26명 3. 회의 내용 가. 특별 과제 발표 : 학교혁신팀, 역량강화팀, 교육과정팀 나. 주요 과제 논의 - 혁신교육지원센터 조직 방안 - 혁신교육지구 확대 방안 - 기초학습부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 일반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 컨설팅 장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교육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원장 외 26명

● 교권분과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6.20 (금)	교권 분과	1. 건명 : 교권분과 사업 추진 실무 협의 2. 일시 : 2014.06.20.(금) 09:00~18:00 3. 장소 :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내 회의실 4. 대상 : 손상훈, 정진순, 이광희, 서동연 5. 협의 내용 - 교권분과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 검토 및 보완 - 실무위원 운영 관련 협의 등 - 필요한 각종 자료 목록 작성 및 자료 수합 요청	
6.23 (월)	교권 분과	1. 건명 : 교권분과 사업 추진 실무 협의 2. 일시 : 2014.06.23.(월) 09:00~19:00 3. 장소 :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내 회의실 4. 대상 : 손상훈, 정진순, 이광희, 김동민, 서동연 5. 협의 내용 - 교권분과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 검토 및 보완 작업 - 실무위원 선정 - 교권분과 관련 의견 수렴 방안 협의 등 - 필요한 각종 자료 목록 작성 및 자료 수합 요청 6. 기타 : 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김동민 교권분과 합류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6.24 (화)	교권 분과	1. 건명 : 교권분과 인수위원, 자문위원, 실무위원 합동 제1차 협의회 2. 일시 : 2014.06.24.(화) 15:30~19:00 3. 장소 :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623호 4. 대상 : 인수위원 2명, 자문위원 3명, 실무위원 14명(계 19명) 5. 협의 내용 : - 교권분과 사업 추진 방법 안내 및 협의 - 추진과제별 검토 및 보완 작업 - 필요한 각종 자료 목록 작성 및 자료 수합 요청 6. 기타 : 이후 업무 추진 일정 협의(7.03, 7.10, 7.16일 협의회)	위원장 외 17명
6.25 (수)	교권 분과	1. 건명 : 교권분과 인수위원, 자문위원, 실무위원 합동 제2차 협의회 2. 일시 : 2014.06.25.(수) 09:00~19:00 3. 장소 :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623호 4. 대상 : 인수위원 2명, 자문위원 1명, 실무위원 8명(계 11명) 5. 협의 내용 : - 교권분과 추진 과제 보완 작업 - 교권분과 중간보고서 작성 방안 협의 - 교권분과 중간보고서 작성 등 - 필요한 각종 자료 목록 작성 및 자료 수합 요청 6. 기타 : 이후 업무 추진 일정 수정(불참자를 줄이기 위해 각 학교 형편 고려, 7.01, 7.10, 7.16일에 협의회 추진하기로 협의)	위원장 외 10명
7.08 (화)	교권 분과	1. 일시 : 2014.07.08(화) 10:00 ~ 18:00 2. 장소 : 교육감직인수위원회 623호 회의실 3. 내용 : 추진과제 관련 사례 청취 과제별 협의 및 보완작업	위원장 외 12명
7.14 (월)	교권 분과	■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을 위한 교권분과 사업 논의 등 * 일시 : 2014.07.14.(월) 09:00~18:00 * 대상 : 인수위원 손상훈, 정진순, 행정지원 간사 서동연(계 3명) * 협의 내용 : - 교권분과 사업 전반에 대한 보완 및 협의 - 교원힐링센터 관련 집중 논의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7.16 (수)	교권 분과	■ 보고서 자료 및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을 위한 교권분과 사업 논의 등 * 일시 : 2014.07.16.(수) 09:00~18:00 * 대상 : 인수위원 손상훈, 정진순, 행정지원 간사 서동연(계 3명) * 협의 내용 : - 학생생활평점제 대체 방안 관련 업무담당 장학관, 장학사 의견 수렴 및 협의(전갑찬 장학관, 최항규 장학사) - 교권분과 사업 전반에 대한 보완 및 협의 - 학교인권지원센터 설립 예시안 수정 보완 - 교육감 교육철학 반영여부 검토 및 보완	

● 민생분과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6.23 (월)	민생분과	1. 일시 : 2014.06.23.(월) 10:00~ 2.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3. 내용 : 분과위원 업무 협의	
6.24 (화)	민생분과	1. 일시 : 2014.06.24.(화) 14:00~ 2.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3. 내용 : 분과위원 업무 협의	
7.03 (수)	민생분과	1. 일시 : 2014.07.03. 14:00 ~ 20:00, 2.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2층) 3. 내용 : 매점, 통학용교통비, 혁신교육지구, 급식시스템, 체험학습비, 꿈의학교, 교육자원봉사센터, 학교도서관, 협동조합, 학생학부모지원과	
7.04 (금)	민생분과	1. 일시 : 2014.07.04. 10:00~13:00 2.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2층) 3. 내용 : 콜센터, 수업준비물, 학부모 인터넷 방송	

● 제도분과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6.19 (목)	제도분과 (인사)	• 내용 : 1) 인사분과 주요 쟁점 정리 2) 인사분과 운영 계획 협의 • 참석자 : 이범희(인수위원), 노시구(실무위원), 김성천(간사)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6.23 (월)	제도분과	• 내용 : 1) 제도분과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실무위원 간 상견례 2) 경기도교육청 이성 장학사로부터 기존의 인사 및 조직 혁신 추진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들음 3) 인사 분과와 조직 분과 간 추진 계획 수립 • 참석자 : 김상근(위원장), 이범희, 이 범(인수위원), 유 재, 김강수, 양동준, 노시구(실무위원), 최한상(자문위원), 김성천(간사)	
6.25 (수)	제도분과 (인사)	• 내용 : 1) 인사혁신을 위한 규정 및 법령 검토 2) 공약 이행 계획을 위한 방안 논의 • 참석자 : 이범희(인수위원), 김성천(간사), 노시구(실무위원), 최한상(자문위원)	
6.27 (금)	제도분과 (인사)	• 내용 : 공모제 임용 방안 논의 • 참석자 : 이범희(인수위원), 김성천(간사), 노시구(실무위원), 최한상(자문위원)	
6.28 (토)	제도분과 (인사)	• 내용 : 신규교원 임용 혁신 방안 논의 • 참석자 : 이범희(인수위원), 김성천(간사), 노시구(실무위원), 최한상(자문위원)	
7.1 (화)	제도분과 (인사)	• 내용 : 백서 집필 방향 공지 및 역할 분담 • 참석자 : 김성천, 유 재	
7.4. (금)	제도분과 (인사)	• 내용 : 백서 집필 내용 협의 • 참석자 : 이범희(인수위원), 김성천(간사), 노시구(실무위원), 최한상(자문위원)	
7.9. (수)	제도분과 (인사)	• 내용 : 신규교원임용방안 북부청사 업무 담당자 협의회 • 참석자 : 김성천(간사), 북부청사 업무담당자(원미란 사무관 외 3인)	
7.12. (토)	제도분과 (인사)	• 내용 : 전문직 임용 시험장 방문 • 참석자 : 이범희(인수위원)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7.14 (월)	제도분과 (인사)	• 내용 : 1) 경기도교육연구원 발전방안 논의 2) 전문직 임용 시험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논의 • 참석자 : 최한상(자문위원), 김성천(간사), 노시구(실무위원)	
7.15. (화)	제도분과 (인사)	• 내용 : 백서 집필 내용 검토 회의 • 참석자 : 이범희(인수위원), 김성천(간사), 노시구(실무위원) 최한상(자문위원)	

●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일자	분과명	내용	참석(비고)
6.18 (수)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6.18.(수) 20:00 경기도교육복지센터 2. 참석 : 위원장 외 10명 3. 회의 내용 가. 팀구성 : 반부패팀, 교육복지팀, 교육격차해소팀, 노동인권팀, 학교문화혁신팀(5개 팀으로 구성) 나. 특위운영에 대한 위원별 제안 - 차별의 정책적 개념 확립 필요 - 기존의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시킬 수 있는 영역과 차별화하여 부각시킬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야 함 - 현재 사업 중 폐지 또는 축소 시켜야 할 사업,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업, 새롭게 부각시킬 사업 등에 대한 구분 작업 필요 - 단기적 방안, 중장기적 발전 방안으로 사업 구분 필요 - 필요시 현업부서, 관계자, 현장과의 집담회 마련 제안 다. 공약별 기초자료 요구사항 정리 - 현황, 실태, 문제점, 대안,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	위원장의 10명
6.21 (토)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6.21.(토) 09:00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위원장 외 18명 3. 회의 내용 가. 팀별 운영방안 협의 및 의제 발굴 나. 팀별 현업부서대상 요구자료 목록 작성	위원장의 18명

일자	분과명	내용	참석(비고)
6.25 (수)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 2014. 06. 25(수) 16:00 ~ 20:00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장소 : 1회 회의실 3. 내용 : 차별화 해소 분과 운영 관련 회의	
6.27 (금)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6.25.(수) 20:00 경기도교육연구원 2. 참석 : 위원장 외 25명 3. 회의 내용 - 특수교육담당장학관, 장학사 업무 협의	교육 복지팀
6.30 (월)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6.30.(수) 15:30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 2. 참석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7명) 3. 회의 내용 - 학교문화혁신 10대과제 정리	학교문화 혁신팀
7.01 (화)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01.(화) 13:00 ~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8명) 3. 회의 내용 - 팀 과제 협의	노동 인권팀
7.02 (수)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02.(수) 16:00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 등(7명) 3. 회의 내용 : 팀별 진행 상황 보고 및 중첩된 의제 조정	교육 복지팀
7.02 (수)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02.(수) 15:00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팀장 외 4명 3. 회의 내용 : 청렴옴부즈만 외 세부실천과제 조정	반부패팀
7.02 (수)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02.(수) 17:00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위원장외 11명(5개팀 팀장 및 간사) 3. 회의 내용 : 사회복지사 공약과제 관련 관계자 면담 및 협의	차별해소 특위
7.05. (토)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05.(토) 10:00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위원장외 10명 3. 회의 내용 : 민주시민교육관련 공약 발제 및 세부실천과제 협의	민주시민 교육팀
7.07. (월)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07.(월) 15:00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7명) 3. 회의 내용 - 학교문화혁신 과제 심층 논의	학교문화 혁신팀

일자	분과명	내용	참석(비고)
7.08. (화)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08.(화) 14:00 ~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13명) 3. 회의 내용 : 보고서 작성 준비	민주시민 교육과 업무보고
7.09. (수)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09.(수) 12:30 ~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8명) 3. 회의 내용 : 보고서 작성 준비	노동 인권팀
7.09. (수)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09.(수) 15:00 ~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노동인권팀+비정규직 대표 3. 회의 내용 : 비정규직 집담회(병설유치원교사, 보건교사, 교육행정, 시설관리, 전문상담사, 유치원방과후보조원, 구육성회지 원 등)	노동 인권팀
7.09. (수)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09.(수) 17:00 ~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15명) 3. 회의 내용 : 1차 백서 초안 검토 및 협의	차별해소 특위
7.10. (목)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10.(목) 15:30 ~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13명) 3. 회의 내용 : 민주시민교육 의제 정리	민주시민 교육팀
		1. 일시 및 장소 : 2014.07.10.(목) 15:00 ~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13명), 사학지원과, 교원인사와 과장, 장학관(사무관), 장학사 3. 회의 내용 : 민주시민교육 의제 정리	반부패팀
7.14. (월)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14.(월) 16:00 ~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13명) 3. 회의 내용 : 민주시민교육 백서 초안 검토	민주시민 교육팀
7.15. (화)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4.07.15.(화) 10:00 ~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실무위원, 복지법무담당관, 교원인사와 실무담당자 3. 회의 내용 :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및 임용방안 논의	노동 인권팀
		1. 일시 및 장소 : 2014.07.15.(화) 13:00 ~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실무위원(10명) 3. 회의 내용 : 백서 초안 검토	
7.15. (화)	차별해소 특위	1. 일시 및 장소 : 2014.07.15.(화) 17:00 ~ 인수위원회 회의실 2. 참석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 전체 (42명) 3. 회의 내용 : 최종 백서 내용 검토 및 협의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6.13 (금)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2. 내용 : 단원고대책 세부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 등 계획 수립	
6.16 (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 유가족 면담 2. 일시 : 2014.06.16.(월) 16:20 ~ 17:30 3. 장소 : 안산 유가족 대책위원회(안산 화랑유원지 내) 4. 참석자 : 황인성 위원장, 양순필 위원, 신동훈 장학사 5. 내용 : 단원고 유가족 요구사항 조치결과 전달 및 면담	
6.17 (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 제안 게시판 개설(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2. 내용 : 단원고대책을 위한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 수렴	
6.18 (수)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제1차) 2. 일시 : 2014.06.18.(수) 10:30 ~ 13:00 3. 장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4호 4. 내용 - 세월호 사고 이후 단원고 문제 및 대책 경과 보고 - 단원고대책 특별 위원회 과제와 운영계획 - 단원고대책 특별 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 - 단원고대책 특별 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6.19 (목)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 운영위원회 참석 2. 일시 : 2014.06.19.(목) 22:00 ~ 23:00 3. 장소 : 단원고 4. 참석자 : 황인성 위원장 5. 내용 : 단원고 학부모 의견 수렴 및 대책 협의 등	
6.21 (토)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 실종학생 유가족 면담 2. 일시 : 2014.06.21.(토) 10:30 ~ 15:00 3. 장소 : 진도 팽목항 4. 내용 : 단원고 실종학생 유가족 의견 수렴 등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워크숍(제1차) 2. 일시 : 2014.06.21.(토) 15:00 ~ 19:30 3. 장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4호 4. 내용 - 단원고 현황 보고 - 단원고대책 특별 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계획 - 단원고대책 특별 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협의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6.23. (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실무TF 협의회 2. 일시 : 2014.06.23.(월) 14:00 ~ 16:00 3.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4. 내용 - 단원고대책 특별 위원회 일정 조정 - 분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6.24. (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제1분과 협의 2. 일시 : 2014.06.24.(화) 18:00 ~ 20:00 3.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4. 내용 : 단원고대책 관련 추모 · 기록 사업 협의 등	
6.25. (수)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제2분과 협의 2. 일시 : 2014.06.25.(수) 10:00 ~ 12:00 3.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4. 내용 : 단원고대책 관련 심리치유 · 회복 협의 등	
6.30 (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 교육현장 방문 2. 일시 : 2014.06.30.(월) 3. 내용 : 단원고 교육현장 고충 의견 수렴 및 발전방안 협의 등	
7.01. (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천만인 서명 운동 동참 2. 일시 : 2014.07.01.(화) 10:00 ~ 12:00 3. 장소 : 수원역 광장 4. 참석자 : 교육감, 인수위원, 단원고 특위위원장 및 실무TF위원	
7.02. (수)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안산교육 회복지원단 설치 · 운영계획 수립 2. 내용 : 안산교육 회복지원단 조직 구성 및 세부 업무분장	
7.05. (토)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세월호 실종자 가족 면담 및 파견 공무원 격려 2. 일시 : 2014.07.05.(토) 13:30 ~ 20:00 3. 장소 : 진도 실내체육관 및 팽목항 4. 참석자 : 위원장, 이성 장학사, 실종자 가족, 파견공무원	
7.08. (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협의 2. 일시 : 2014.07.08.(목) 11:00 ~ 12:00 3.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4. 내용 : 안산교육 치유 · 회복과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협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7.09. (수)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워크숍(제3차) 2. 일시 : 2014.07.09.(수) 15:00 ~ 19:00 3. 장소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중회의실(4층) 4. 내용 - 단원고의 장기적인 비전, 발전방안 - 안산지역 주민들의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 협의	
7.10. (목)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 결과 분석 2. 일시 : 2014.07.10.(목) 10:00 ~ 12:00 3.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4. 참석자 : 위원장 및 실무TF위원 5. 내용 : 방과후 학생 돌봄 방향,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재검토	
7.14. (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시민청원을 위한 안산지역 고등학교장 협의회 배석 2. 일시 : 2014.07.14.(월) 14:00 ~ 3. 장소 : 원곡고등학교 4. 참석자 : 안산관내 고등학교 교장 20명(단원고 교장 포함), 담당 부장, 간호의 장학사, 나경록 교장 5. 내용 : 희생학생, 실종학생에 대한 의사자(안전유공자) 인정 청원	
7.15. (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2014년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제1차 집행위원회의 배석 2. 일시 : 2014.07.15.(화) 11:00 ~ 3. 장소 : 안산도시공사 예술아카데미실 4. 참석자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장, 안산단원고 스쿨닥터, 신동훈 장학사 등 총 12명 5. 내용 : 희생자 가족 심리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진행 업무 논의	
		1. 제목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 행진 동참 2. 일시 : 2014.07.15.(화) 17:20 ~ 7.16.(수) 3. 장소 : 단원고 출발,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숙박, 국회의사당 도착 4. 참석자 : 단원고 2학년 생존학생 38명, 학부모 일부, 단원고 학교 장, 교감, 간호의 장학사 5. 내용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도보 행진(단원고 출발 ↳ 수암동파출소 인근 저녁식사 ↳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숙박 ↳ 우신초 인근 점심식사 ↳ 국회의사당 도착)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7.16. (수)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 행진 참석 2. 일시 : 2014.07.16.(화) 13:30 ~ 3. 장소 : 국회의사당 앞 4. 참석자 : 나경록 교장, 홍성한 사무관, 권주현 주무관 5. 내용 : 단원고 생존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 행진 참석	
7.17. (목)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인수위원회 8차 회의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 협의 2. 일시 : 2014.07.17.(목) 14:05 ~ 3.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4. 참석자 : 양순필 위원, 이상욱 장학관, 나경록 교장, 홍성한 사무관 5. 내용 : 인수위원회 8차 회의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 여부와 방향 협의	
7.18. (금)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인수위원회 8차 회의 결과 분석 협의 2. 일시 : 2014.07.18.(금) 12:00 ~ 3.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4. 참석자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실무 T/F 9명 5. 내용 : 인수위원회 8차 회의 중 도출된 단원고 회복 관련 결과분석 협의	
7.21. (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협의 2. 일시 : 2014.07.21.(월) 10:00 ~ 3.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4. 참석자 : 위원장 및 실무 T/F 10명 5. 내용 - 위원장 부재 중 업무 보고 - 단원 가족 지원 방법(세월호 특별법, 특례입학, 유가족 도보순례 등) 논의	
7.22. (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세월호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학생 가족) 격려 방문 2. 일시 : 2014.07.22.(화) 09:00 ~ 3. 장소 : 국회의사당 앞 4. 참석자 : 교육감, 황인성 위원장, 홍성한 사무관, 고기윤 장학사 5. 내용 : 세월호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족들의 농성 격려 방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7.23. (수)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 교육현장 방문 2. 일시 : 2014.07.23.(수) 09:00 ~ 3. 장소 : 단원고등학교 4. 참석자 : 양순필 위원, 나경록 교장, 홍성한 사무관 5. 내용 : 단원고대책 추진방향, 과제 추진 등 현안 및 향후 일정 협의	
7.22. (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세월호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학생 가족) 격려 방문 2. 일시 : 2014.07.22.(화) 09:00 ~ 3. 장소 : 국회의사당 앞 4. 참석자 : 교육감, 황인성 위원장, 홍성한 사무관, 고기윤 장학사 5. 내용 : 세월호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족들의 농성 격려 방문	
7.23. (수)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 교육현장 방문 2. 일시 : 2014.07.23.(수) 09:00 ~ 3. 장소 : 단원고등학교 4. 참석자 : 양순필 위원, 나경록 교장, 홍성한 사무관 5. 내용 : 단원고대책 추진방향, 과제 추진 등 현안 및 향후 일정 협의	
7.22. (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세월호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학생 가족) 격려 방문 2. 일시 : 2014.07.22.(화) 09:00 ~ 3. 장소 : 국회의사당 앞 4. 참석자 : 교육감, 황인성 위원장, 홍성한 사무관, 고기윤 장학사 5. 내용 : 세월호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족들의 농성 격려 방문	
7.23. (수)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 교육현장 방문 2. 일시 : 2014.07.23.(수) 09:00 ~ 3. 장소 : 단원고등학교 4. 참석자 : 양순필 위원, 나경록 교장, 홍성한 사무관 5. 내용 : 단원고대책 추진방향, 과제 추진 등 현안 및 향후 일정 협의	
7.24. (목)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인수위원회 백서 제작에 따른 간사 회의 참석 2. 일시 : 2014.07.24.(목) 15:00 ~ 3.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4. 참석자 : 명인희 교사 5. 내용 : 인수위원회 백서(종합보고서) 수정 방향 논의	
7.25. (금)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 실종학생 가족(진도 팽목항) 면담에 따른 실무T/F 협의 2. 일시 : 2014.07.25.(금) 10:00 ~ 3.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4. 참석자 : 양순필 위원, 이상욱 장학관, 나경록 교장, 홍성한 사무관, 신동훈 장학사, 간호익 장학사, 명인희 교사, 권주현 주무관, 정은주 주무관, 이승현 주무관 5. 내용 : 07.26.(토) 단원고 실종학생 가족(진도 팽목항) 면담 준비 협의	

일자	분과명	내용	비고
7.26. (토)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 실종학생 가족(진도 팽목항) 면담 및 위문품 전달 2. 일시 : 2014.07.26.(토) 06:30 ~ 3. 장소 : 인수위원회, 진도 팽목항 4. 참석자 : 황인성 위원장, 양순필 위원, 나경록 교장, 홍성한 사무관, 권주현 주무관 5. 내용 : 실종자 선생님 순직 처리 관련 요청 - 실종자 가족 공동 : 여아의 원활한 합의를 통한 세월호 특별법 조속 추진과 실종자 찾기를 간절히 소망, 세월호 참사 오랫동안 잊지 않기를 바램	
7.28. (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준비 협의 2. 일시 : 2014.07.28.(월) 15:00 ~ 3. 장소 : 인수위원회 회의실 4. 참석자 : 황인성 위원장, 양순필 위원, 이상욱 장학관, 나경록 교장, 홍성한 사무관, 신동훈 장학사, 간호익 장학사, 명인희 교사, 권주현 주무관, 정은주 주무관, 이승현 주무관 5. 내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내 최종 회의에 따른 보고서 채택, 추후 위원회 활동, 단원고대책에 대한 위원 평가와 제언 등 협의	
7.29. (화)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 일시 : 2014.07.29.(화) 15:00 ~ 3. 장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4. 참석자 : 황인성 위원장 등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실무 T/F 5. 내용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내 최종 회의에 따른 보고서 채택, 추후 위원회 활동, 단원고대책에 대한 위원 평가와 제언 등	
7.30. (수)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1. 제목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원고등학교 교육현장 방문 2. 일시 : 2014.07.30.(수) 14:00 ~ 3. 장소 : 안산교육지원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 사무실), 단원고등학교 4. 참석자 : 서남철 단장, 양순필 위원, 나경록 교장, 홍성한 사무관 5. 내용 : 8월 1일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설립에 따른 업무 준비차 사무실 방문과 안산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단원고등학교 교육현장 방문	



주민직선 3대

이재정 교육감 핵심 공약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갈등과 혼란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안을 우리 교육의 생산적인 담론의 과정으로 치환시키고,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입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중에서



05



주민직선 3대 이재정 교육감 핵심 공약

05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순	공약사항	담당부서	비고
비전 1 :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생명윤리 가치의 존중과 확산(1)			
1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으로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민주시민교육과	
2	아동 학대 조기 발견과 즉시 대응체제 지역사회와 공동 구축	학교인권지원과	
3	전문기관과 연계된 갈등 · 자살 예방 교육과 상담 체계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인권지원과	
4	생명 감수성 교육 강화를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과학직업교육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2)			
5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 안전 종합 계획' 마련	학교인권지원과	
6	노후 건물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 후 시설 교체	시설과	
7	'아버지 학교지킴이' 실시	학교인권지원과	
8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급식업체 간 체계적인 급식 시스템 구축 · 관리	친환경급식과	

9	안전한 체험학습 모델 개발 · 보급 - 극기 훈련식 대규모 수련회 · 수학여행을 학생 주도형 소규모 테마형 학습활동으로 전환 및 지원 - 교외활동 코스 및 운영기관에 대한 '경기형 체험학습 안전인증제' 실시 - 교외 체험학습 정보망 구축	교수학습지원과	
비전 2 :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혁신학교의 새로운 도약(3)			
10	'혁신학교 지원센터' 설립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예비혁신학교로 지정 · 심사 후 혁신학교로 확대	학교혁신과	
11	'흥덕고형 혁신고등학교' 10개 추진	학교혁신과	
12	혁신 리더 그룹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대학원' 과정 개설	학교혁신과	
혁신교육 일반화와 성과 공유(4)			
13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 확대 추진	학교설립과	
14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 · 실천에 대한 지원	교육과정지원과	
15	인사이드하지 않는 교사의 담당 학년과 교과, 겨울방학 이전 배정	교육과정지원과	
16	혁신교육 프로그램과 예산을 일반학교에 지원하는 '혁신교육프로그램선택제' 확대	학교혁신과	
17	'혁신학교 컨설팅단' 활성화와 '혁신 거점학교' 내실화	학교혁신과	
18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 전면 확대	정책기획관	
배움중심수업과 학습방법 활성화(5)			
19	토론수업, 협력수업, 프로젝트 수업 확산	교육과정지원과	
20	수업 시간 중 독서교육 확대 · 강화	교수학습지원과	
21	초등학교 저학년에 교 · 사대생, 퇴임교원, 학부모 중심 '수업지원교사제' 실시	교수학습지원과	
22	친일과 왜곡된 역사를 배우지 않도록 '사고 · 토론 중심의 역사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기초학습 부진 학생 적극 예방(6)			
23	온라인 학습 정보망 구축	교수학습지원과	
24	'도래학습'과 '학습 멘토링' 활성화	교수학습지원과	
25	기초학습 부진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가 집중 육성 및 교원 역량 강화	교수학습지원과	
26	지역별 '학습클리닉센터' 확대	교수학습지원과	
27	기초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지원과	
고교 체제의 질적 향상(7)			
28	도내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전환 노력	학생학부모지원과	
29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특목고 자사고 운영	교육과정지원과, 학교혁신과	외고, 자사고
30	평준화 지역별 '성적 균등 배정제'를 통한 쏠림 현상 해소	학생학부모지원과	
31	학생 · 학부모 '주문형 강좌' 개설로 맞춤형 수업 지원	교육과정지원과	
32	지역별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간 교육 · 취업 연계 체계 구축	과학직업교육과	
33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간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과학직업교육과	



비전 3 : 도전하는 학생, 행복한 성장

다양한 학습 경험의 인정과 확산(8)

34	덴마크 청소년 시민학교 모델을 참고한 '진로·적성 꿈꾸는 학교' 신설	교육과정지원과	
35	문화·예술·체육 교육 특성화 캠퍼스 '문·예·체 꿈꾸는 학교' 운영 - 문화·예술·체육 교육과정 개발과 활성화	교수학습지원과	
36	다양한 '진로형 선택교과(예체능·외국어·IT 등)' 학교별·지역별 개설	교육과정지원과	
37	진로 탐색 학기를 설정하여 학교 밖 경험에 대한 교육과정 인증제 시범 실시	교육과정지원과	
38	'진로진학지원센터'의 확대 개편	교육과정지원과	

학생인권과 학생자치의 내실화(9)

39	학생인권조례 적용 내실화	학교인권지원과	
40	'꿈을 만드는 학생 도전 프로젝트' 지원	교육과정지원과	
41	학생자치의 활성화와 내실화 - 학생자치회와 협의를 통한 학교 단위 상벌점제의 합리적 운영 - '지역별 학생자치협의회' 구성 내실화 - 수업과 자치를 연계한 '학급 공동체' 운영 지원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미래형 학력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실시(10)

42	'미래형 학력' 지표 개발 연구	학교혁신과	
43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지원과 '교사협력평가회의' 강화	교육과정지원과	
44	불필요한 시험 금지와 '시험 총량제' 실시	교육과정지원과	
45	네 번의 짧은 방학을 실시하는 '분산학기제' 자율 운영	교육과정지원과	
46	하루 15분 '쉬는 시간' 2회 이상 운영과 70분 이상 '점심시간' 확보 노력	교육과정지원과	

비전 4 :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11)

47	초등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비 전면 무상화(중·고는 단계적 지원)	교수학습지원과	
48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위해 '교과서' 비용 우선 지원	교수학습지원과	
49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 수업 중심의 시험 출제로 학원 수요 감축 - 신입생 반 배치고사 금지와 중간·기말고사에 선행학습 내용 출제 금지	교육과정지원과	
50	수업과 관련된 준비물 구비와 수업준비실 완비	교수학습지원과	
51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관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실현 - 방과후학교에 지역사회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	학생학부모지원과	

학부모 지원 체제 구축(12)			
52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 설립	학생학부모지원과	
53	학부모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인터넷 정보 제공 강화	학생학부모지원과	
54	아동·청소년의 심리, 정서, 생활을 이해하는 학부모상담자원봉사제 도입	학교인권지원과	
공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13)			
55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든 '학교폭력 예방 종합 대책' 마련	학교인권지원과	
56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 보급	학교인권지원과	
57	회복과 공감 중심의 생활교육(비폭력대화, 감정 코칭)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58	학교 내 또래상담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인권지원과	
스마트폰 중독 학생 예방과 치료(14)			
59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과학직업교육과	
60	학교와 전문기관 중심의 '중독 학생 예방과 치료' - 가족 합숙 치유 캠프와 희망학교 스마트폰 차단 앱 제공 -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1주간 '스마트폰 이별 주간' 자율 운영	체육건강과 과학직업교육과	
비전 5 :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			
교권의 확립(15)			
61	'교권보호조례' 제정과 공익 전담 소송 변호사 확충	학교인권지원과	
62	교사 수업 코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경기도교육연구원	
63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평가할 수 있는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 강화	교육과정지원과	
64	경기도교육복지센터 내 '교사힐링센터' 구축	학교인권지원과	
교원 전문성 신장과 연구 환경 구축(16)			
65	교과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경기도교육연구원 교과연구회와 연계된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원역량개발과	
66	학교 시설 환경을 교사 수업 연구와 상담 중심으로 재편	시설과	
67	교육지원청별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재구조화와 활성화	교수학습지원과	
68	'교사연구년제' 지속적인 확대	교원역량개발과	
69	다양한 연구와 실전을 할 수 있도록 '무급 연수휴직제도' 도입	교원인사과	
70	담임제도의 혁신 (유치원 종일반 자격 교사 전담 배치, 담임교사 순환제, 교과 전담교사 확대 등)	교원인사과, 유아특수교육과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의 혁신(17)			
71	'생애 주기 맞춤형 교원 연수' 체제 구축	교원역량개발과	
72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주관하는 학교 단위 연수 활성화	교육과정지원과	
73	국내 대학과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연수 파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교원인사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비전 6 : 함께 만드는 또 다른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을 배려하는 교육 (18)

74	농산어촌 지역 교육 활성화 - 농산어촌지역에서 장기근무 가능한 '지역형 교원 임용제' 도입 -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통학용 교통비 실비 지원 - 농산어촌 지역 교직원 숙소 확보와 시설 현대화	학교혁신과 교원인사와 정책기획관, 학교혁신과 시설과, 재무과	
75	마을 단위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체험학습 공간 마련	교수학습지원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19)

76	마을과 학교가 공동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매점, 교복, 친환경 식자재 및 교구·교재 등)	정책기획관	
77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 품앗이와 재능 기부 확대	교수학습지원과	
78	학교 도서관의 특화 및 주민 개방 확대	평생교육과	
79	교육자원봉사센터 설립	교수학습지원과	

비전 7 : 차별 없는 교육, 앞서 가는 교육복지

특수교육 지원 종합 방안 마련(20)

80	장애인의 직업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특수교육과	
81	장애인 부모 교육과 '특수교육정보지원센터' 설립	유아특수교육과	
82	과잉행동장애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중재 지원팀' 구성	유아특수교육과	
83	특수학교 시설 개선 및 증설	학교설립과	

학교 교육복지 지원 체계 구축(21)

84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모델 마련	복지법무담당관	
85	'학교 사회복지사'의 단계적 배치	복지법무담당관	
86	교사-사회복지사·상담교사-지역사회 연계 체제 구축	학교인권지원과	

비전 8 : 튼튼한 교육재정, 합리적 교육행정

교육재정 추가 확보(22)

87	2조원 이상의 추가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연내 개정 노력	정책기획관	
88	경기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추가 확보	정책기획관	
89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지속적인 노력	시설과	

현장 지원형 교육청으로의 전환(23)			
90	현장 지원 중심으로 '도교육청 조직과 업무' 전면 개편	행정관리담당관	
91	현장 지원 중심의 '혁신 교육지원청' 권역별 지정	학교혁신과	
92	직속기관 업무 재구조화와 기능 개편	행정관리담당관	
93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	정책기획관	
94	비리와 부패 개선을 위한 내부 고발자 보호와 인센티브 강화	감사관	
95	교육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학부모·교원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총무과	
교원 인사제도의 개편(24)			
96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육장)의 자격, 임용, 승진 방법을 '역량 중심 체제'로 전면 전환 - 신규 임용 교사에 대한 '임용사정관제' 도입 - 심층 면접 중심의 교원·전문직 임용시험 혁신과 '보직형 전문직' 도입	교원인사과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역량개발과 교원인사과	
97	장학관·연구관 공모 확대 및 교육장 지원 자격 확대 - '지역시민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제 실시	교원인사과	
98	실질적인 교장 중임제 평가 강화	교원인사과	
99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지방교육공무직화 조례 추진 - 학교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단계적 호봉제 추진	복지법무담당관	
100	교사 행정업무 경감 지속 추진 - '교육국 사업 총량제' 실시와 부서별 '사업 모니터링 제도' 도입 - 사업과 공문 대폭 축소 및 불필요 공문 원천 차단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한 행정 업무 전담 인력 배치 - 교육청, 도의회, 국회 등의 요청 자료 단위학교 부담 최소화	학교혁신과 학교혁신과, 정책기획관 학교혁신과 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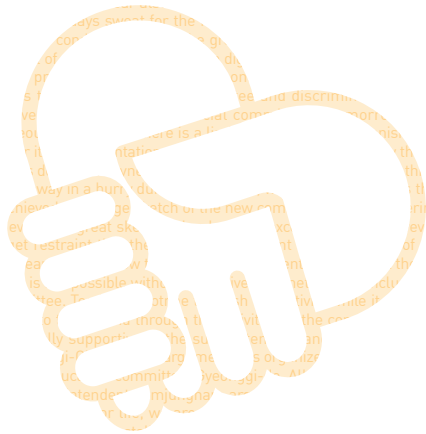
경기교육의 약속

모든 문제에 대해 제가 먼저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교장·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이 부르는 곳이라면 때와 장소, 형식에 관계없이 최대한 먼저 달려가서 의견을 청청하고 정책에 담겠습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중에서



06



경기교육의 약속

06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학교혁신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원이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학교 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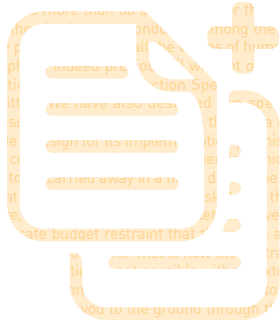
-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아야 합니다.
- ❖ **학교혁신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시대의 요구인 학교혁신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혁신학교를 넘어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혁신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가 완성될 것입니다.
- ❖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마음껏 배우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서로 권리를 존중하며 협력하며 삶을 배워 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 ❖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민생 문제입니다.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펼쳐질 때, 가정이 편안하고 학생들이 행복하며,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교원이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교원은 교육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 실천하는 전문가입니다. 교육 전문가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본질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 ❖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과정 및 결과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학교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 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고 의사결정하는 공간이 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 **학교 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가 학생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출발점을 학생과 학교로 옮기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부담을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 계획

신상필별이 분명한, 다수가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초, 조직 쇄신을 위한 개편을 목표로 조직 개편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인사행정 구현과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도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중에서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 계획

07



과제 1: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 계획]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혁신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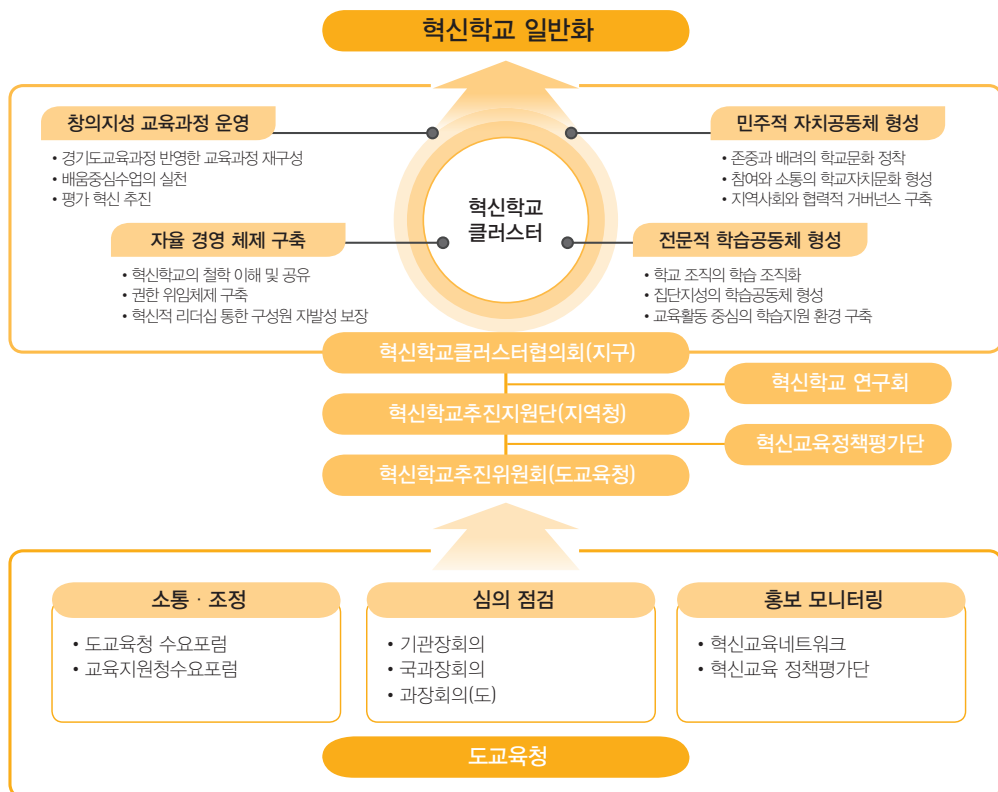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교육혁신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5·31 교육개혁을 비롯하여 교육혁신을 다양하게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개혁과 혁신은 학교현장까지 파고들지 못하고 ‘캐비닛 혁신’에 머물렀다. 정작 교육혁신의 움직임은 학교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일궈낸 혁신

학교는 대안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희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공교육 혁신을 위한 파일럿 학교로 규정짓고 2009년 13개교로 시작하여 2015년 3월에는 400개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혁신학교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혁신학교 교육운동으로 확산되어 한국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혁신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혁신교육은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경기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지정한 시·군 또는 시군의 일부 지역(구역)을 의미한다. 혁신교육지구는 6개 지구(안양, 오산, 시흥, 구리, 광명, 의정부)와 비슷한 맥락의 성남시와 화성시를 포함하면 총 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혁신교육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NTTP(새로운교사연수프로그램)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NTTP는 교직 생애 단계별 연수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연수를 지향한다. 학습공동체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수원학교와 배움과실천공동체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NTTP는 전국 최초 사업으로서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다양한 연수체제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경기도교육청은 창의지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재구성, 배움중심수업, 평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제통합교육과정, 활동중심교육과정, 분산학기제, 블록수업제 등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형태를 도입하였으며,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수업혁신도 이뤄지고 있다. 배움중심수업은 교사의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던 수업을 학생의 배움, 즉 학생의 자기 생각 만들기에 주력하는 수업혁신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문제점

경기교육은 지난 5년 동안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괄목할만한 혁신교육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경기혁신교육의 도약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교육 전반에 대해 새롭게 진단하고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혁신교육 추진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관련 부서는 초기 혁신교육을 위해 조직된 되었다. 혁신학교 일반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황에서 현행 혁신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고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혁신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혁신부서의 조직 개편은 필연적이다.

혁신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이 전면화 됨에 따라 혁신학교 클러스터 중심교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혁신피로도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혁신학교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혁신학교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지원하는 기구가 없

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수의 각종 혁신관련 임의기구들은 설치되어 있으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어 있으며, 오히려 학교현장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혁신관련 임의기구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혁신학교 발전 방향과 모델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혁신학교 클러스터 중심교의 업무과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혁신학교 일반화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와의 행·재정적인 차별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교육에 대한 일반학교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혁신교육지구사업도 종료되는 구조이다. 지속적인 혁신운동 측면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단위학교 혁신문화운동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연구지원과 체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혁신학교 일반화 취지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혁신학교와는 다른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원 전문성 신장과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NTP는 교사와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연수로서 학교현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연수 활동이 오히려 학교단위 학습공동체의 결속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즉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의 연수활동이 아닌 학교 밖에서의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오히려 학교 내 학습공동체 결속을 어렵게 만들고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NTP는 학교단위 공동연구 및 학교단위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창의지성교육은 경기도교육의 체계를 수립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창의지성교육은 큰 틀에서 경기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각종 정책이 수반되었다. 창의지성교육을 필두로 경기도교육과정 수립, 교육과정재구성 움직임,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창의서술형 평가 도입과 같은 평가혁신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창의지성교육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 적용에서 문제점이 포착되고 있다. 창의지성교육이라는 큰 틀에서의 교육이론이 학교현장 적용에 필요한 중간 연결 장치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창의지성교육의 현장 적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고질적인 병폐다. 창의지성교육에 따른 경기도



교육과정 역시 하달식의 교육과정 지침 및 질 관리 방식이라면 개선해야 할 과제다. 또한 외부자중심의 수업컨설팅 장학에 의존하는 수업혁신에서 학교단위 교사 간의 개방과 협력에 의한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해 단위학교의 수업혁신을 조장할 필요성이 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기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방적 조기 개입에 실패함으로써 학습부진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는 개입이 시작되어야 한다. 전문적 개입이 아닌 보조교사에 의존하여 정책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문적 개입이란 첫째, 교사의 전문성 둘째, 사용하는 프로그램(교재)의 타월성 셋째,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기반(지원) 체제를 의미한다. 향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로선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단위 학교 안에서의 강력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나 교육청에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도 학교 단위에서 실효성 높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단위 학교 안에서 체계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분절적인 정책으로서 학습부진보조교사, 협력교사, 대학생 멘토링과 같은 지원은 정작 가장 중요한 학습부진 지도교사인 담임교사의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엄청난 예산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초학습부진에 관한 연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습 부진의 요인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같은 외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적 요인이 존재한다. 기초학습부진 예방, 선별, 진단, 지도, 평가, 프로그램 개발, 교사연수 등에 대해 연구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 국제혁신교사대회, 국제혁신심포지엄 등 대규모 행사 위주에서 학습공동체, 학교 단위, 교육지원청 단위의 내실 있는 행사로 전환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새롭게 정비하여 시행하는 것은 경기혁신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다.

2 정책과제 추진 계획

정책과제 1-1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혁신교육 추진체제 개편

❖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 설립방안

- 학교혁신과 소속으로 설치
- 개설일
 - 2014년 9월 1일자는 혁신교육지원센터 TF로 운영
 - 2015년 1월 1일에 혁신교육지원센터 개설(조직개편 연계)
- 조직 구성
 - 센터장을 두고, 컨설팅팀, 연수운영팀으로 조직
 - 팀별로 전문직원, 교원, 일반직 배치
 - ※ 인사행정처리 : 전문직원, 교원, 일반직은 공모하여 선발 후 파견함.
 - ※ 공모선발기준 : 전문직원은 혁신학교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고려하여 선발. 교원은 혁신학교 아카데미 수료자 등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와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한 자를 선발. 일반직은 혁신학교 행정실 근무 유경험자를 지원자격조건으로 하며, 혁신학교구성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를 선발
- 임무
 - ※ 또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센터로 자리매김
 - 컨설팅팀 : 혁신학교 질 제고

- | | |
|------------------------|------------------|
| • 혁신 거점학교 컨설팅 | • 혁신학교 및 준비교 컨설팅 |
| • 혁신학교 일반화 컨설팅 | • 교육지원청혁신센터 컨설팅 |
| • 경기도형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컨설팅 | • 혁신교육지구사업 컨설팅 |
| • 기타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 컨설팅 | |

- 연수운영팀 : 혁신 역량강화 연수 운영

- | | |
|---------------------------|-------------------|
| • 혁신학교 연수(아카데미 등) 운영 | • 일반학교 혁신 연수 운영 |
| • 경기도형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연수 운영 | • 혁신교육지구 사업 연수 운영 |
| • 혁신학교연구회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



❖ 교육지원청의 혁신센터로서 기능 강화

● 혁신학교 발굴 및 활성화

- 혁신학교 발굴 및 컨설팅
-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강화
 - 학교 단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 혁신학교 지원 추진단 운영 (우수교 발굴)
- 혁신학교 연구회 운영
 - 지원청 규모별 1-2개 연구회운영 (연구 지원금 300만원)
 - 연구회 주관 (15시간) 혁신 기초과정 연수
- 혁신교육 사례발표회

● 거점학교 활성화 및 혁신학교 네트워크 지원

- 혁신학교 4년 종합평가 우수교 대상으로 인증평가 업무 지원
- 학교 개방일 운영 (월1회) 사례 공유 (예산지원)
-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학교 간 클러스트 구축 교육과정 연계

● 지구장학협의회 (클러스트협의회) 활성화

- 학교혁신 계획 및 사례 공유 년2회 (교육장, 학부모 대표참여)
- 학교 개방과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각종 기구 통·폐합

- 경기혁신교육위원회(교육감 산하)에 혁신교육정책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를 둔다.
 - 위원장 : 외부
 - 외부 : 초·중·고 교장, 학부모, 교사, 전문가로 구성
 - 내부 : 학교혁신과, 정책기획관 장학관 등으로 구성

- 학교정책모니터링단(경기혁신교육위원회)에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모니터링하고
중간보고서와 연차 보고서를 작성한다.
 - 모니터링단 위원장 : 외부
 - 위원 : 학교장, 교감, 교사, 일반직으로 구성
 - 요원 : 생활인성, 교육과정 및 수업, 교무행정 관련 희망자 20인
- 혁신학교추진단(학교혁신과산하)에 혁신학교 지정 · 운영 · 평가를 위한 자문기구를 둔다.
 - 단장 : 학교혁신과 과장
 - 외부 위원 : 혁신학교 초중고 교장, 초중고 교사, 전문가로 구성
 - 내부 위원 : 학교혁신과 장학관

❖ 혁신부서 조직 개편(안)

- 학교혁신과 업무 조정
 - 학교정책
 - 제도혁신, 학교행정효율화 및 업무경감, 학교문화
 - 혁신교육프로그램선택제, 교원역량 강화, 경기도교육과정 기획
 - 혁신학교
 - 혁신학교 선정, 평가, 교육지원청혁신센터
 - 교육협력
 -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공동체지원
 - 혁신교육지원센터
 - 혁신교육컨설팅, 혁신교육연수지원, 혁신교육연구지원

❖ 혁신학교 컨설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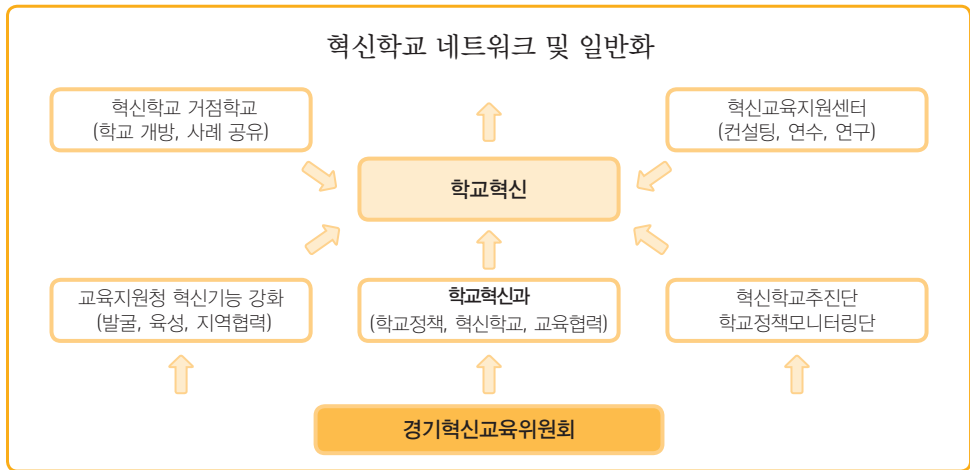
- 혁신학교 전문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혁신아카데미 교사 등으로 컨설팅
인력풀 구성(컨설팅 위원 연차별 확대)
 - 본청 : 혁신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혁신센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수업 컨설팅을 포함하여 학교교육 컨설팅 강화
 - 컨설팅위원 역량강화 워크숍(매년 3월, 9월)
 - 지속적인 맞춤형 컨설팅 멘토-멘티 활동
 - 멘토, 멘티 구성 : 혁신학교 컨설팅 위원(멘토)과 혁신학교 컨설팅 대상교(멘티)

<혁신교육 추진체제 개요>



정책과제 1-2 혁신학교의 새로운 도약

❖ 혁신학교 일반화 방안

-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혁신교육프로그램선택제’ 운영
 - 기존 학교별 선택제 사업 및 기타 사업 조정을 통해 모든 희망학교에 적용
 - 지원금을 수립하여 지원
 -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원 대상교, 교과부특별지원 대상교는 지원금 제외
 - 예산 확보 방안
 - 학교별사업선택제 등 사업 축소 및 통합
- 일반학교 교원들을 위한 혁신교육 직무연수 개설
 - 4박 5일(35시간) 방학 중 운영

- 교장(교감)과 함께 신청 시 우선권 부여
- 여름방학 2회기(1회기 당 350명), 겨울방학 2회기 운영(연 1400명)

❖ 지속가능한 혁신학교 발전 방향과 모델 구축

- 공모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발굴 인증제 도입 및 평가체제 강화
 - 혁신특성화학교(1~2년) → 혁신학교(4년) → 명예혁신학교
 - 학교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혁신학교 모델 개발

❖ 혁신교육지구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 성과 및 문제점
 - 많은 지자체에서 혁신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됨
 - 교육협력 사업이 학교시설 환경지원 위주에서 교육활동 지원까지 확장
 - 프로그램 위주 지원 사업에 따른 콘텐츠 지원, 인력지원, 예산 그리고 컨설팅 사업 등 외부자 지원 방식에 의존함으로 학교의 수동화 현상이 나타남
 - 내부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학습을 통한 학교 및 교사 역량 강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프로그램과 컨설팅 위주의 지원 사업에 의존하여 학교문화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끌지 못하고 학교단위 교사 학습공동체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과도한 예산지원이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외부 체험학습 확대, 강사, 학습보조원, 실무사 등 교사 업무경감과 행사활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남
 - 교육지원청에 장학사가 아닌 주무관을 팀장으로 배치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어려움
- 개선방안
 - 혁신교육지구담당 장학사를 책임자로 배치하고 혁신학교 일반화 전략 차원에서 혁신학교 담당 장학사와 협력체제 강화
 - ※ 학교현장 컨설팅과 모니터링은 지역별 교감자원을 활용한 컨설팅단으로 운영하는 등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 교육지원청 인력범위 내에서 재배치 고려



- 학교단위 교사의 협력을 통해 자체 프로그램 개발, 교재개발, 수업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교사 학습공동체 강화 방안 마련
- 혁신교육지구사업 연수과정 개설 및 운영
 - 학교혁신과 교육협력팀에서 기획
 - 혁신교육연수와 통합하여 추진
- 지역사회 학교(마을공동체학교) 협력사업 강화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학교간의 위상과 역할 조정이 필요
 - 지자체협력센터 :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 교육 인프라와 학교 연결 매개, 지역 사회 학교 구축
 - 교육지원청센터 : 혁신학교발굴, 전문가육성 지원. 혁신학교 허브 역할 담당
 - 거점학교 : 사례 공유, 혁신학교 네트워크
- 혁신학교 일반화, 학교혁신 사업과의 충돌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적 운영
- 비정규직 양산문제 대응 및 혁신학교와 연계한 혁신교육지구 관리 및 평가

● 확대 방침

- 단계별 혁신교육지구 지정 확대
 - 1단계 : 2015년 추가 지정, 2단계 : 2016년 전면 확대
- 지역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지역혁신교육협의체” 구축
- 경기혁신교육정책 구현과 지자체 교육특성화 사업 추진
- 지역 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재정 투자
-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확대 계획

- (1단계) 일부 지역 추가 지정 확대 : 2015. 3월(사업기간 : 2015~2019)
 - 희망 지자체와 혁신교육 공약 추진 지자체 중심으로 지정 추진
- (2단계) 전면 확대 : 2016. 3월(사업기간 : 2016~2020)

❖ 각종 사업 정비 및 대규모 각종 행사 지양

● 폐지 및 재검토 사업

- 연수원학교, 배움과실천공동체 연수, 혁신클러스터
- 대규모 행사성 전시성 행사 : 본청의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규모 행사
 - ※ 국제혁신교사대회, 창의지성교육페스티벌, 한마당 어울림 축제, 큰그림 그리기 대회, 도단위 포럼 및 토론회, 도단위 체험행사, 남북평화 자전거 대행진, 간부워크숍 등
- 본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지역단위와 학교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 도단위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보급 : 기 개발 완료 사업
- 도단위 우수학교 일반화 자료집 제작 보급 및 성과 보고회

● 통합 사업

- 교육지원청 목적지정사업비 : 컨설팅, 연수 지원비 등 통합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 확대
- 지원단 및 모니터링단 운영비 : 교육정책 모니터링단과 통합
- 정책 사업 지정 모델학교 운영
 - 학교민주주의 모델학교, 문화예술지원교, 학생자치법정운영교 등을 혁신학교 프로그램 선택제로 전환
- 각종 부서별 홈페이지 유지보수 : 통합시스템으로 전환

● 축소사업

- 교과연구회 : 도단위교과연구회(교과별로 1개 유지), 교육지원청교과연구회(학교혁신연구회로 통합)
- 국제교육 교류 협력 사업 : 동북3성 교류사업 축소(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과, 학생학부모지원과, 유아특수교육과 등)
- 도단위 연수 및 컨설팅단 운영 : 단위학교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전환
-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추진 기구 축소



정책과제 1-3 학교 행정업무 정상화 · 효율화

● '경기도교육청 사업총량제' 실시

※ 사업총량제란?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하위 10~15%의 사업을 줄여 지속가능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 유지하는 사업총량 관리체제

- 도교육청은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지원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 매년 도교육청 정책사업 평가 실시 :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및 현장조사, 사업 타당도 조사 실시
- 평가 담당은 전수조사 방식보다는 정책 모니터링단 활용하는 방안 모색
- 2014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사업 총량을 확정된 후 매해 평가 후 하위 10~15% 정도의 사업을 폐지, 축소,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치
- 사업을 신설할 때 기존의 사업을 축소한 후 새로운 사업을 도입.
- 교육청 조직 슬림화를 통한 사업과 인력 축소로 실질적 학교지원방안 마련
- 사업총량제 관리 TF팀 운영
 - 업무 : 단위학교 행정업무 정상화 및 효율화 담당, 교육국 사업 총량제 담당,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 담당, 행정실무사 역량 강화 및 교직원 연수 담당

● 불필요한 사업과 공문 원천 차단

- 교사행정업무 유발요인 차단 사전 평가제 실시

- **실시기관** : 도교육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 **실시사업** :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 신규사업, 대규모 인원동원 행사
- **실시방법** : 사전평가 의뢰 → 결과 수신 → 결과반영 → 최종 계획 수립 → 사후 모니터링 및 환류

- 도단위 대규모 행사 · 연수 개최 지양
- 우수사례, 보고서 제출 간소화, 인편 · 의무 제출 지양

● 부서별 기본계획 모니터링 실시

- 초, 중, 고 각 2개교씩 총 6개 정책 모니터링 학교를 지정하여 공문 전수 분석
- 모니터링 분석 요원은 교사연구년제를 통해 선정
- 공문 전수조사 대상교는 분석 요원 교사에게 모든 공문을 열람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문 모니터링 실시
- 교원행정업무 경감 모니터링 결과 분석
-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내 전문직 간 정기적인 협의회 실시
- 협의를 통해 경기교육정책 개선 및 단위학교의 올바른 집행 방안 수립

● 단위학교 관행적인 업무 조사 및 지침 마련

- 관행적인 업무 개선 TF팀 운영
- 연도말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적인 업무, 교육청 간소화 업무 조사
- 관행적인 업무 폐지 및 간소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검토 ... 개선방안 차년도 년 초에 전체기관 공문시행으로 안내
- 학기 초 단위 학교 업무 감소 현황을 교육지원청에 보고 ... 학교 평가와 교감 평가에 반영

● 교사필수업무 정책 연구

- 단위학교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교육활동 필수 업무」 정책 연구 실시
-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교육활동을 제외한 업무는 직원이 하도록 지침 마련
 - 교직원 연수 및 홍보를 통해 안내하고 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행정실무사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 「행정실무사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위탁(용역) 수행
 - 경기도교육연수원, 울곡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운영방안 마련
 - 집합연수 강사인력풀 구축 및 강사 연수 실시



정책과제 1-4 교원 전문성 신장과 현장 역량 강화

❖ 교사학습공동체가 주관하는 학교단위 연구 활성화

- 학교단위 학습공동체 중심의 연수 시스템 마련
 - 배움과실천공동체, 연수원학교, 개별학점연수 활동을 학교단위 학습공동체 연구 실천중심으로 연수 시스템 개편
 - 수업컨설팅, 수업비평 등 외부자에 의한 수업장학 제도를 개편하여 동학년, 동교과 교사 간의 수업 개발 등 실행학습 체제로 전환
 -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 공동 수업 실천에 대한 지원
 - 교내 교사학습동아리와 교과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학교 단위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공동의 연구와 협의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학습조직으로 개편
 - 개방과 협력의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시설환경으로 개편
 - 교육지원청별 교수학습지원팀 조직 및 학교단위 학습공동체와 연계 시스템 마련
 - 경기도교육연수원 교과연구회와 연계된 연구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 신규교사 수업 컨설팅을 교내 멘토 교사제 활용을 통한 지원
 - 수업컨설팅 중심 수석교사의 역할을 수업개발,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공동체 구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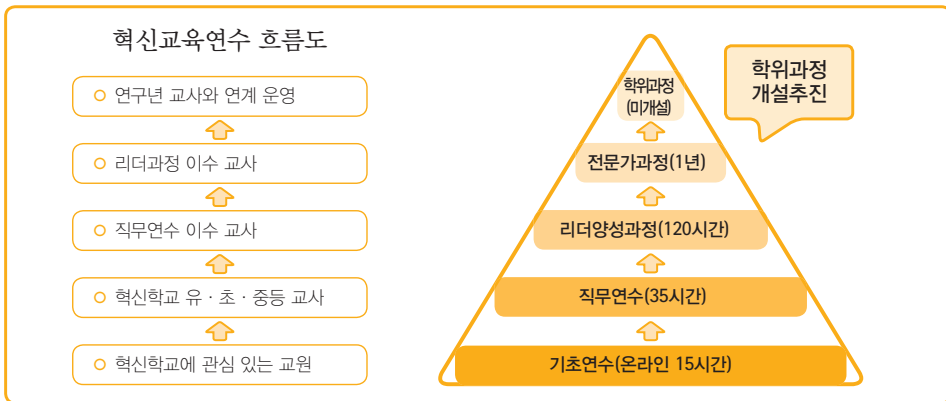
❖ 교사연구년제, 무급연수휴직제, 연수파견제 개선

- 교사연구년제 선발 방식 다양화
 - 현장현신교사(교직 25년 이상), 연구개발(교육연구원), 학교컨설턴트(학교혁신지원센터)
- 무급연수휴직제 및 연수파견제 개선
 - 석, 박사학위 기관 이외 연구기관 교육감 지정 확대를 통한 무급연수휴직제 도입
 - 연수파견제도의 선발 기준 재설정 및 파견 종료 후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 혁신교육대학원 설치 및 운영

● 혁신교육대학원 추진

- 수도권 지역의 대학 공모 및 MOU를 통하여 추진
- 경인교육대학교 사내대학원은 폐지¹⁾하고 혁신교육대학원에 통합하여 추진



❖ 학교장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시스템 마련

● 신규 학교장 리더십 역량강화

- 교장자격연수를 교육부 주관 연수에서 경기도교육청 주관 연수로 변경 요구
- 교감 3년차 이상 혁신 연수 의무화(혁신학교 아카데미 직무연수 과정 : 4박 5일)
 - 교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공모교장 계획서의 혁신 계획서와 일치(학교평가와 일치)
- 공모교장 임용 1년차 연수 : 6개월 이내 선진학교 현장 방문 연수(3~4명 한 팀)
 - 팀별 탐방 연수 후 교육감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연수활동비 지원)
- 공모교장 임용 2년차 연수 : 학교장 간 1일 교환 교장 활동(상호 중간 평가 가능)

● 학교장 지구장학 협의회 (혁신클러스터)

- 학교 간 사례공유 및 협력
- 혁신과제 운영 사례 및 민주적 학교운영 계획 발표
 - 학기 초 교육장, 교원 임회 하에 운영계획발표, 학기말 학부모 공개
- 교장단 회의를 혁신 연수화, 우수 혁신 사례 발굴 공유(학교평가 연계)

1) 경기도교육청 사내대학원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으로 교육정책전공(20명), 교육과정전공(20명), 학교상담전공(20명), 교육행정전공(20명)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 보류 중에 있음.

정책과제 1-5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정책의 개선방안 마련

● 학교 단위의 자율성 강화

- 각 학교의 실정과 역량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전략 지원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다양화

- 사업형, 행사형, 실적형 교육과정 극복
- 선행학습 금지
-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사례 발표
- 토의 토론 수업 확대
- 평가개선 방안 마련
- 학생 ‘주문형 강화’ 개설로 맞춤형 수업 지원
-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간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 방학분산제를 통한 4분기제 교육과정 운영 권장
- 하루 15분 ‘쉬는 시간’ 2회 이상 운영과 70분 이상 점심시간 확보 노력
- 다양한 진로형 선택교과(예체능, 외국어, IT 등) 개설을 통한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 공감수업 및 수업성찰, 수업개발 역량 제고

● 경기도교육과정의 지향 명료화 및 체계화

- 역량중심교육과정, 창의지성교육, 배움중심수업, 총체적 평가 등 용어에 대한 개념이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모호하게 받아들여짐. 경기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과 정책 개념들을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정리

● 창의지성교육의 현장 적용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 창의지성교육 관련 교육청 행사와 사업 진단 및 합리적 조정
 - 창의지성교육 페스티벌, 창의지성교과서 등
-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특목고 운영

- 재지정 평가 및 학교자체평가를 통한 특목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외교 전형안 개선 및 재지정평가 강화
 - 교육부와 협의하여 바람직한 외교 전형안 개선방안 마련
 - 특목고 입학전형영향평가 실시를 통하여 원칙에 벗어나는 운영에 대해서는 지도
 -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 운영 성과 평가(재지정평가) 실시
 - 학교자체평가를 통한 컨설팅 내실화
 - 시기 : 학교자체평가 및 컨설팅 4~5월, 이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지속적 컨설팅 관리자 연수 5월 및 10월, 학교 요청 시
 - 관점 : 학교비전, 교육과정운영, 학교문화개선, 교육과정재구성, 평가혁신, 진로 지도
 - 내용 :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대학진학 실적보다는 진로 연계한 풍부한 교육과정 운영 운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전문가 지원 시스템 구축

❖ 기초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

- 학교 단위 기초학습 보장 체제 개발
 - 학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단위 기초학습 보장 체제’ 모델 개발
 - 1년차 :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적용(2014년 2학기)
 - 2년차 :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2015년)
- 학습 부진 조기 개입 및 학령기 초기 입문기 프로그램 지원
 - 한글 이해득 및 수학 기초 셈하기 미도달 학생 집중 지도
 - 한글 문해(해독, 읽기 유창성), 기초 셈하기(수세기, 덧셈, 뺄셈)
 - 선별 :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집중지도
- 학습클리닉 센터의 학습 전문성 확보
 - 정서행동 보다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클리닉 센터로 특성화
 - 기존 교육청에서 소외 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 중심의 거점 형태로 운영



- 기존 정서 행동 문제 상담에서 학습 중심으로 특성화로 전환
- 학습 클리닉 전문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 도구, 증거기반 프로그램, 실증적 데이터 중심 사례 집중 관리
- 대학교(특수교육과,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연구소 등)와 연계하여 위탁 운영

●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방학 중 학습아카데미 확대 적용(연 2회)
- 방과후 상설집중프로그램 적용
-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방과후 교사제도 운영
- 학생의 학교생활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교사의 수업에도 참여하면서 방과후에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진로진학센터의 확대 개편 및 기능 강화

● 교육지원청혁신센터 내 진로진학지원팀을 조직하여 운영

-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구축
- 지역 특성이 담긴 진로진학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도교육청 소속 진로진학지원센터 업무 재구조화

- 비전,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를 진행하여 전문가 양성, 콘텐츠 제공
- 전문 대입상담사와 진로상담사 배치
- 전교사를 대상 연차적인 진로상담연수 실시

● 진로 및 전공적성개발을 위한 진로체험학습 활성화

-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선택하는 진로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 진로체험학습 정보를 제공 커리어 बैं크(career bank) 운영
 - 학교마다 배치된 진로상담교사가 마을의 영역별 전문가, 대안교육기관, 인근 대학에서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신청 안내
-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맞는 다양한 기간의 진로체험학습 기간 인정
 - 반일 수업 + 진로체험, 전일제 진로체험(1일 ~ 최장 60일) 등 2가지 유형 운영

- 선택 영역에 따라 매일 진로체험이 필요한 경우 반일 수업과 진로 체험을 병행할 수 있음

※ 체험학습기간은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므로 학교별 학칙 개정 유도. 보통 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7일~19일(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10%)이므로 학교 사정에 따라 최장 12주(60일)까지 가능하도록 권장

-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년 교사 선발, 진로상담교사 연수
 - 교육지원청별 연구년 교사 활용, 프로그램 개발 예산 지원(1교당 3백만원)
- 혁신교육지구의 일반고 진로상담교사를 중심으로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진로체험학습 기간 학칙 변경에 필요한 관리자 연수
 - 학교상황에 맞게 체험학습 기간 변경 가능 및 학생 선택권 강조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 활성화

● 동아리 및 학생자치를 통한 학생복지 활성화

-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학습동기부여
 -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동아리를 재정적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지원
 - 동아리 시설의 확충 및 기자재 지원
 - 동아리 활동을 발표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
 - 사제동행의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기회의 마련
- 학생자치를 통한 학생복지 활성화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과정 및 공개회의 개최
 - 안전을 넘어선 집만큼 편한 학교 및 학급 환경 만들어 주기(핀란드학교)
 - 교내 각종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키높이 조절 책상, 현대식사물함, 휴식공간 등을 제공
 - 급식은 어려운 학생에게만 제공하되 급식지원금으로 더 맛있고 풍성한 급식을 제공(유럽의 경우 자율배식, 다양한 반찬, 간식코너 등을 제공)



● 학생자치사업 활성화

- 혁신교육프로그램선택제에 포함하여 실시
 - 혁신교육프로그램선택제에 학생자치사업을 공통 필수사업으로 지정
 -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 간의 논의를 통하여 사업을 선택하여 진행
 -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교내참여발표대회의 장에서 공유
- 학생자치사업의 예시

- | | |
|--------------------|--------------------------|
| • 학생사회참여동아리(NPO) | • 지역별 학생자치협의회 구성 |
|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 • 학교별 학생·학부모·교사 '다모임' 운영 |
| • 학교민주주의 실천 시범학교 |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학생자치활동 등 | |

● 9시 등교 실행 방안(9시 1교시)

- 학교급별 상황을 고려하여 연착륙 추진
- 초등학교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중학교는 여건이 마련된 학교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실시, 2015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
 - 1, 2학년은 여건이 되는 학교의 경우 2014년 9월 1일부터 실시, 3학년은 2014년 기반 조성 후 학교별 실정에 따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고등학교의 경우 밤12시까지 강행하는 야간 자율학습 및 조기 등교 문제를 개선하는 것부터 우선 시작(2014년 9월 1일)
 - 향후 수업시수 감축 등 관련 법령 개정 교육부 건의 병행



과제 2 : 학생인권과 함께 바로 서는 교권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 계획]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교권분과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일 것이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온 국민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고, 성찰과 개조를 촉구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도 결국은 생명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된 비윤리적 이윤추구와 권력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때로는 동물학대로, 때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학대로 그리고 대형 참사로, 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독버섯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학령기 자녀를 둔 30~40대의 학부모에 의해 빚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생명존중 교육은 초보적인 자살예방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권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본다면 학교사회에서 보호되는 학생 인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호의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규제, 참여, 학교 만족도 등의 항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전반적인 이행 수준은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지시와 통제 중심의 기능적 관점에서 학생을 바라보고 있으며,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응보적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학생 인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차별문제나 학생 참여 및 자치 등 표현의 자유보다는 체벌이나 두발 제한 등 인격권이나 개성실현권 등의 침해 문제에 여전히 집중돼 있다.

2013학년도에 행해진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의 발생 비율



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신체적 폭행 대신에 언어폭력(74.7%)과 집단 따돌림(37.4%) 등이 증가하고 있다. 언어폭력은 최근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서 사이버 폭력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학교 폭력에 대한 응보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관점의 학교 폭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대학 입시로 인한 성적 위주, 결과 위주의 경쟁적 학교 풍토 안에서 더 이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답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학생들에게서 공동체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전문직으로서의 권리 및 교육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할 권리는 학생의 배울 권리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권은 학생 인권과 함께 존중되어야 하며, 반드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적 관계성과 동일한 방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양자가 대립과 배척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적어도 어느 한쪽의 인권이 보장되고 커진다고 해서 다른 한쪽의 인권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교권은 학생인권과 서로 상충되며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권 침해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2011~2013) 발생한 3,209건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침해의 유형은 폭언·욕설(81.4%), 수업진행 방해(9.47%), 폭행(2.1%), 성희롱(0.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권 침해 역시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모두 언어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수업진행 방해는 물론 교사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또 다른 자화상의 표출일 수도 있다. 즉 그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 풍조와 이를 반영한 대학입시제도, 소통의 부재와 관계의 단절, 생명과 인권 경시 풍조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중독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한, 현재 단위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인력(상담교사, 상담사)은 현장의 수요에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73%가 확보된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는 각각 43.9%와 8.7%만이 확보되어 있어서 학교 급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함께 상담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 문제점

생명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명윤리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역량이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및 자살 위험군 학생 발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인력과 교육공동체의 협력적인 위기대응 능력도 미약한 편이다. 또,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학대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대 피해자인 학생, 신고 의무자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연계하여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생활 속에서 체득해 보게 하는 생명·생태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체벌이 금지된 이후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생생활평점제(일명 상벌점제)’를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벌점이 남용되거나 벌점 부과 시 일관성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제 간의 관계 개선이나 회복보다는 벌점 부여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재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의 내면의 변화에 의한 자율적인 행동의 변화보다는 지시와 통제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점수부여와 처벌로 이어지는 반복적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기존의 ‘생활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인권 친화적인 ‘생활교육’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응보적 생활지도에서 탈피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교원 스스로도 기존의 권위적인 사제관계의 벽을 허물고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며, 비폭력대화를 먼저 실행하는 등 윤리적 실천을 통해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결과, 폭력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언어폭력



이나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안별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교폭력 중에는 가정의 돌봄 부재현상에서 기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의 절제와 자정능력이 발휘되는 민주적 학생 자치 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자치활동 시수의 확보나 학생자치회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욕설과 수업진행 방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성희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 개개인이 가진 문제 요인 이외에도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 명백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대응은 체계적이지 못하며,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인력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전문성이나 대응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스마트폰은 방과 후 시간이나 가정에서의 사용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통제하는 것만이 최선책은 되지 못하는 만큼, 규제와 통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적 목적의 활용, 즉 스마트폰 활용의 순기능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생명의 존엄성이 살아 있는 가운데 구성원 상호간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여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상생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과 즐겁게 어울리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터전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또, 교원에게는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교육전문가이자 교육실천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원의 열정과 권위가

존중되는 가운데 학생들이 배움을 즐길 수 있는, 그리하여 인권과 학습 등에 있어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직선에 의한 민선 3기의 경기교육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며 철학의 바탕이다.

2 정책과제 추진 계획

정책과제 2-1 생명존중교육의 강화

❖ 체험과 실천 중심 인성교육 강화

- 언어문화개선 교육 강화
 - 사제동행으로 구성원 상호간 경어 사용 문화 정착
- 사제 간, 가족 간 ‘대화 시간 갖기 운동’ 전개
 - 사제동행의 날, 개인별 상담일 지정 운영 등
 -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하기, 가족 대화의 날 운영 등 가정과의 연계교육 강화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 취학 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예비 학부모 역량 강화
 - 대상 : 취학 전 학부모 중 희망자
 - 운영 방법 : 이하 학부모지원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과 등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
 - 연수 시간(안) : 15시간(필수), 30시간(선택) 등
 - 내용(안) : 아동심리학, 인성교육,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가정교육, 부모의 역할, 자녀와 소통방법 등
 - 연수 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발급
- 교과,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 교내외 자발적 봉사활동 활성화
- 예체능 동아리, 스포츠클럽 등 문화와 예체능을 통한 정서함양교육
- 학교규칙 준수 등 학교 급에 적합한 기본생활교육 강화
- 학교 특성을 반영한 1교 1인성 브랜드 육성



❖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로 생명·생태존중의식 강화

- 지역사회 환경단체 등과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 등으로 생명생태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 생태와 문화의 다양성 추구, 인권존중 등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명존중교육 강화
- 학교 여건을 반영한 환경 친화적 생태 환경 구축으로 생태 감수성 기르기
 - 교내 자투리 공간 활용하여 생태환경 만들기(생태화단, 생태연못, 옥상 정원 등)
 - 학교숲 가꾸기, 생태교실 만들기, 1인 1식물 가꾸기 등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 체험하기
- 지역 기반형 생명·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북부권 DMZ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서해권 시화호 탐방
 - 맥락이 있는 숲 체험, 하천탐사 등
- 학교 급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 실천

※ 윤리적 소비란 공정무역(fair trade) 운동을 포함한 소비자 운동으로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는 등, 조금 더 비싸고 조금 귀찮더라도 소비 행위에서 윤리를 찾고자 하는 소비자 운동을 말함

- 학교 신축 시, 에너지 자립형 건축과 운영 방안 모색
- 학교-사회 협력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 개발(도교육청)
- 학교가 지역사회 내에서 생태공동체로서의 역할 수행
-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해 및 확산을 위한 자료 개발 및 활용 연수

❖ 교육공동체의 생명존중교육 역량 강화

-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생명존중 동아리 활동 지원
- 교원을 위한 생명존중교육 직무연수 및 권역별 연수 실시
- 생명존중 실천학교, 생명존중 실천 교실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존중교육 자료 개발 및 활용 방안 연수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내실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홍보 활동
-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운영
 - 담임교사에 의한 학생 관찰 및 상담 활동 강화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소 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운영
 - 학교, 교육지원청의 위기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

❖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존중교육(자살예방교육) 강화

- 전문기관 연계 자살예방교육 강화
 -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 확대 실시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살예방교육 강화
- 학생 위기관리 대책 수립 운영
 - 학교, 지역사회 전문기관,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자살징후 조기 발견 및 집중 관리

정책과제 2-2 행복한 학교문화 구축

❖ 관계 회복을 위한 교원의 윤리적 실천 운동 전개

- 교사의 수범적, 윤리적 실천으로 사제관계 재정립
 - 아침 맞이, 경어 사용, 학생 이름 불러주기 등 관계 회복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 긍정적인 언어 사용 : 비난과 경멸 등 부정적 언어 대신 긍정적 언어 사용
 - 지시와 통제 중심의 지도 방식에서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생활교육 방식 활용
- 존중과 배려, 참여와 소통의 교실 공간 조성
 - 사제 간 관계의 벽 허물기 등으로 행복한 교실 만들기
 - 교사 스스로 즐거운 수업 만들기
 -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시간 등 활용, 사제동행 인간적 만남의 기회 확대
- 학급 · 학년 · 학교 단위 협력적 생활교육 강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공감적 대화 기법 실천(비폭력대화 기법 등)

※ **비폭력대화**란 사제 간의 관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지시, 비난, 명령의 어법 대신에 학생의 언행을 관찰하여, 이에 대한 교사 자신의 느낌과 요구사항을 긍정적인 부탁의 어법으로 학생에게 표현하여 상대방의 선의를 이끌어내는, '관찰 → 느낌 → 욕구 → 부탁'이라는 4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대화 기법을 말함

❖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서클' 운영
 -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회복적 대화모임' 활성화
-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30시간 이상) 및 전문가과정 개설 운영
- 나와 공동체의 생명감수성 회복을 위한 '비폭력 평화교육프로그램' 지원

❖ 공감과 치유 중심 학교폭력 예방 교육

-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접근으로 신뢰와 공감의 학교 공동체 수립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 또래 상담, 또래중조활동, 학생자치법정, 학생자치교실 등
- 학교급 특성을 반영한 감성코칭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 공감능력신장 프로그램, 갈등해결 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교 : 분노 · 공격성 조절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맞춤형 상담 내실화
 - 학교폭력 위험군 학생 조기 진단 후 학생 · 학부모 상담
 - Wee 클래스, Wee 스쿨, Wee 센터의 역할 강화
 -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확대 운영
- '학교폭력 Q&A' 게시판 운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시간 지원
- 사안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길라잡이」 자료 개발 및 활용 연수

❖ 재심청구기관 일원화로 학교폭력 사안 분쟁 해소

- 재심청구 기관 일원화 노력
 - 문제점 : 피해자는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자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어서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 발생 등으로 문제점 보완 필요
 - 대책 : 각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일원화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 시 교원 등 교육전문가 추가
 - 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신장
 - 권역별 자치위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실시
 - 사례별 사안 처리 매뉴얼 개발 보급

❖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강화

-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체제 강화
 - 학교폭력예방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협의회 활성화
 - 지역 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전 인지를 위한 학부모 연수
- 마을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 학교폭력예방 관련 지역공동체 자원 목록 공유
 - 유관기관의 학교폭력예방 교육기부 활성화
 - 학교폭력 신고체계 및 대응체계 공동 구축
-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업무협약에 의한 관련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

❖ 학생인권조례 정착의 내실화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인권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 활동 강화
- 학생인권 다지기 활동



-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강화(‘인권보호센터’와 통합 운영)
- 학교 혹은 권역별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 인권실천점검단(학생, 학부모)을 통한 상설 모니터링 실시

정책과제 2-3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자율적 참여 기회 확대로 민주적 학교 자치 공동체 형성

- 학생 스스로 만드는 민주적 ‘학급생활 협약’, ‘학교생활 협약’ 등 제정, 운영
 - 학생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일과 지키지 못할 경우의 처벌 방안 등 제정, 운영
 - 학급 자치 법정, 학교 자치 법정 등과 연계 운영 가능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 활동 확대
 - 학교별 학생 자치활동 필수시간 확보, 운영
 - 학교별 학생 자율 참여 기회 확대 :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각종 행사의 기획과 운영 등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는 이를 지원, 격려, 조언하는 역할 등
-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 자치활동 예산 편성
- 『민주적 학교공동체 운영을 위한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 학생생활평점제 대체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발굴, 공유

❖ 학급, 학교, 지역, 도 단위 학생자치회 운영 내실화

- 학교별, 지역단위 학생자치회의실 확보로 자치 활동의 용이성 확보
- 학생자치회 회의 정례화
 - 지역 단위 년 4회 이상, 도 단위 년 2회 이상 운영
 - 협의회 실시 전에 참가자의 의견 수렴으로 의제 결정
 - 협의회 일시와 의제 등의 사전 안내로 참가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 제공
- 경기학생참여위원회 역할 강화 및 협의회 활성화
- 학생 자치회 운영 능력 함양을 위한 내실 있는 리더십 캠프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시군구 의회, YMCA, YWCA 등과 연계 운영)

❖ 학생 정책 참여 활성화

- 학생정책 상시 제안 창구 운영(안)
 - ‘경기 학생 인권의 광장(<http://shr.goe.go.kr>)’에 별도로 ‘정책 제안 마당’ 설치 운영
 - 현재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열린마당’에 설치된 ‘제안마당’을 ‘경기 학생 인권의 광장’으로 일원화하거나 연계 운영하여 상시 의견 수렴(정책 제안서 양식 비치)
- 참여 방식의 다양화
 - 지역 단위 학생자치협의회원,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원 : 정기 총회에서 의견 수렴
 - 일반 학생 : 누리집 ‘정책 제안 마당’을 통한 의견 수렴
- 경기교육 정책 수립 시 학생 참여 권장 : 향후 경기교육 정책 발표 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 사용으로 정책 제안의 접근성 강화
(근거 : 2014.07.15. 경기학생자치회와 경기도교육감 토론회)

정책과제 2-4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 확립**

❖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권보호운동 전개

- 교사의 수업권 확보 기반 조성
 - 학급당 학생 수를 혁신학교 수준인 25명 이하 감축 추진
 - 학교 단위 구성원간 합의로 ‘교육공동체 윤리 헌장(가칭)’ 제정, 운영
(※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정하여 자율 실천)
- 교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 ‘교권 보호관(전담 변호사)’ 주도, 찾아가는 교권침해 예방 컨설팅
 -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권보호 상설 지원단 운영
 - 교원 대상,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 지침, 조례, 매뉴얼 숙지 연수

❖ ‘학부모 교사 상담 예약제’ 도입, 운영

- 문제점 : 수업 활동 중 불시 방문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발생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대책 : 학부모의 교사 상담·면담 시 학교 단위 ‘교사 상담 예약제’ 도입, 운영
-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한 예약 상담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교육공동체 간의 효율적 소통 도모
- 학교별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모색

❖ ‘긴급 학습보호권’ 도입

• 목적

: 지속적인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긴급 학습보호권’ 도입으로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 방침

-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주위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 교실 뒤에 서서 수업 ⇨ ‘성찰교실이나 상담실 등 특정 장소’로 격리 조치(반드시 단계적 조치 이행)
- 학교 단위 상담실 자원봉사제 운영(관리자, 상담교사, 자원봉사자 등)
- 교실과 상담실간 학생 인수·인계 절차와 방법 상세화로 제도의 효율성 제고
- 학생, 교사, 학부모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동의하에 추진

※ 방과 후 별도의 시간 확보 등 담임(해당 교과 담당 교사)에 의한 격리 학생의 학습 보충으로 학습권 침해 논란 불식 필요

❖ ‘교권 보호관’ 도입

- 근거 : 「경기교권보호현장」 제31조
- 채용 자격 : 변호사
- 역할 : 교권침해 예방 활동, 교권침해 상담·조사·소송 진행, 사후지원 등
- 운영 : 인권보호센터와 통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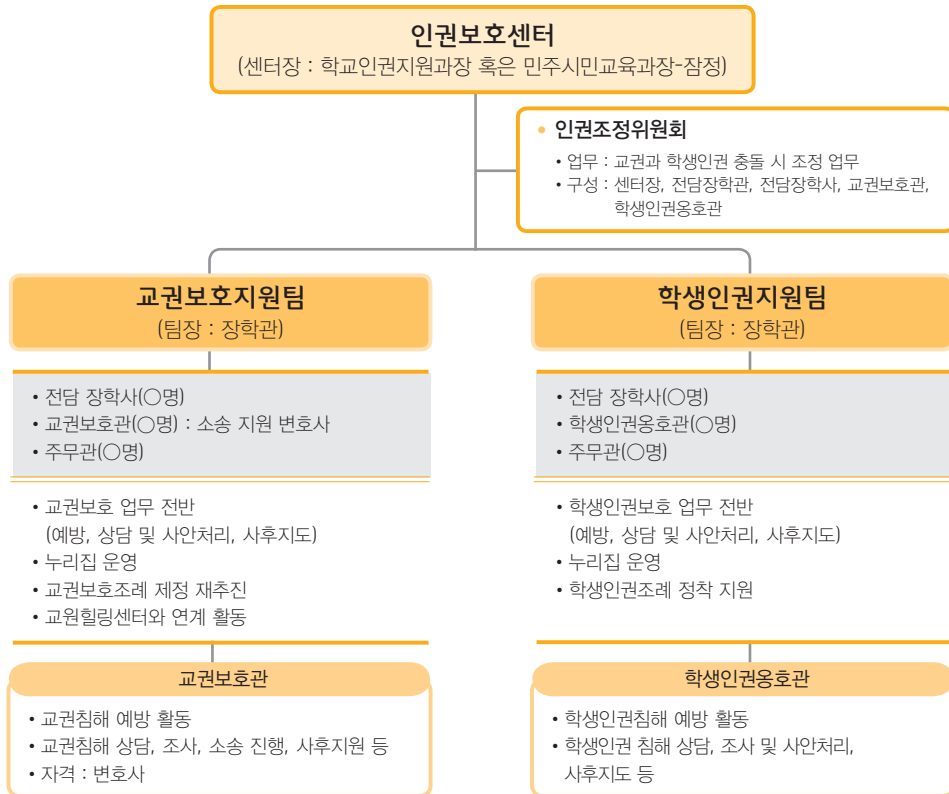
❖ ‘인권보호센터’ 구축 운영

- 근거 : 「경기교권보호현장」 제30조, 제31조
- 소속 : 조직 개편 후, 민주시민교육과 등 해당 과에 설치
- 교권과 학생인권의 상생을 위한 ‘인권보호센터’ 통합 운영

- 사안별 실질적 One-Stop Service 제공, 사안 종료 후 SNS 모니터링제 실시
- 교권보호지원팀과 학생인권보호지원팀의 연계지원을 위해 ‘인권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사안의 유형과 필요에 따라 합동조사 등 연계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의 날(시간)’ 운영

-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소송비 혹은 소송 대행 지원(교권보호관 활용)
- 교권보호지원센터 누리집 활용, 온라인 상시 상담 활동 활성화

※ ‘인권보호센터’ 구조도(예시)



❖ ‘교원힐링센터(가칭, 명칭은 공모)’ 구축 운영

- 근거 : 「경기교권보호헌장」 제29조
- 장소 : 힐링 활동에 필요한 숲과 계곡, 맑은 공기 등 자연자원 확보 차원에서 포천 소재 ‘평화교육연수원’ 시설 활용 권장
- 조직
 - ① ‘평화교육연수원’을 ‘교원힐링센터(제1센터)’로 명칭과 조직을 전환하여 운영
 - ② ‘교원종합복지센터’에 ‘교원힐링 제2센터’를 설치, 평화교육연수원과 프로그램 연계 운영
- 내용 : 심리 상담 및 치료, (숲 활용) 명상 치유, 음악 치유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운영 방법 : 제1센터를 통해서는 중장기과정이나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제2센터를 통해서는 1일 과정 혹은 단기과정 등 운영
 - ① 제1센터 : 주중, 방학 기간 등 이용, 교사 내면 치유 프로그램 운영(평화교육연수원)
 - 3일 과정, 5일 과정, 10일 과정, 1개월 과정 등 운영
 - ② 제2센터 : 방과 후에 전문가(혹은 전문의) 상담 및 긴급 단기 치유 프로그램 운영
 - 1일 과정, 단기 과정 등 운영
 - 자녀가 있는 여교원을 위해 육아 놀이방 및 돌봄 인력 구비
- 인력 : 교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 확대 배치
 - 센터장, 장학사, 상담 전문가, 주무관 등
- 교원 자존감 함양 및 힐링 지원 확대
 - 공연 단체와 MOU 체결로 문화공연 할인 혜택 제공
 - 힐링을 위한 교내 교사동아리 활성화 및 문화예술 관련 연수비 지원
 - 교원의 자존감 함양을 위한 지원 체제 강화

❖ 「교권보호조례」 제정 재추진

- 관련 교원(관리자, 교사), 법률 전문가 등으로 TF팀 구성 운영
- 기 시행 중인 4개 시도 조례안 분석, 상위법과 상충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
- 수업권 확보, 교권 존중 풍토 조성, 구상권 폐지 등으로 조례안 내용 구성
- 일정 : 2014학년도 하반기 중 제정 재추진

❖ 교권 존중 풍토 조성

- 방송사 등과 연계,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교육청, 감성적 영상 제작 등)
- ‘스승의 날’ 시기 변경에 대한 교육적 검토(예 : 2월 중)
-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교권 존중 풍토 조성
-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연계, 교권 침해 예방 입법 활동 추진

- 목적 :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강제성 확보
- 방침 :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청원 활동

정책과제 2-5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료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

-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규칙 표준안 개발 및 보급
 - 학교 및 가정에서 실천하는 자율실천 매뉴얼 개발 보급 (가정 협약 모델 포함)
 - 학생자치회가 만드는 자율 실천규칙 제정, 운영
- 1주간 ‘스마트폰 이별 주간’ 자율 운영
 - 학교 스포츠클럽과 연계, 신체활동 및 학생 상호간 협력활동 증대
 -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희망학교에 대한 스마트폰 차단 앱 제공
 - 학교별 사업선택제와 연계하여 시범학교 운영으로 단계적 접근

❖ 스마트폰 사용의 순기능 확대

- ‘스마트폰과 교육과정이 만나는 날’ 운영(스마트폰 없는 학생 등에 대한 대비책 강구)
- 스마트폰 관련 동아리 활동 권장(앱개발 동아리, UCC경진대회 등)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선도교사 양성
- 학부모 대상 스마트폰 역기능 방지 및 유해정보 차단 방법 연수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중독 단계별 치유 프로그램 적용
 - 전문상담인력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역량 강화
 - Wee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2차 상담 창구 구축
- 가족 합숙 치유캠프 운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가족 합숙 치유 캠프 운영
 - 치유캠프 수료 학생 대상, 지속적 사후대책 실시





과제 3 :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 계획]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민생분과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혁신학교가 다양한 정책과 실천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교에서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 디자인은 물론 마을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학교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며 설계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활동을 전개한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 마을에서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한다. 학부모들은 학습모임이나 동아리를 꾸려 마을 카페나 학습공간에서 활동을 한다. 지역사회의 마을 전문가들은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를 마련하기도 한다. 학교 매점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구축되기도 한다.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씨앗이 곳곳에 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경기 혁신교육의 미래 방향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폐쇄적이고 관료적 형태를 띤 학교를 학부모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동반 협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과 교육과정은 물론 다양한 마을 교육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마을 중심에 놓고 지역사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한다.

학교와 학교가,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마을학교나 학교협동조합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재정, 인력, 자원을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추진될 것이다.

공교육 안에는 다양한 배움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대안적인 교육의 흐름을 이제는 공교육이 품에 안아야 한다. 현재는 혁신학교 외에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적응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2곳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꿈과 희망을 동시에 꾸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학교나 공교육에서도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대안학

교도 있어야 한다.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는 물론 학교를 떠난 학생을 품을 수 있는 학교가 이젠 등장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그 동안 경기혁신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 활동이 활발했다. 2013년 학부모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설치되었다. 학부모 활동을 돕는 학부모지원전문가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면서 학교 현장의 학부모들을 지원해왔다. 이전과 달리 학부모들은 교육주체로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공약화 되며 전국 의제가 되었던 무상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실시된 무상급식은 2010년 초등학교 농어촌 지역 전 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 유·초·중 전 학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도 어느 정도 덜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식생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부모 부담 부분은 앞으로 공교육의 취지에 맞게 체험학습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산 확보가 급선무이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초·중·고 중심의 혁신에서 지평을 넓혀 유치원 혁신으로 넘어갈 시점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유치원이 2,139개(공립 단설 49개, 공립 병설 1,040개, 사립 1,050개)가 있다. 직속기관도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이 있다. 경기혁신교육과 혁신학교의 흐름에 따라 혁신유치원도 8개 원이 개원했다.

하지만 초·중·고와는 달리 유치원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그 동안 유치원 혁신도 학교혁신과가 아닌 유아특수교육과에 맡겨져 왔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혁신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 2013년 누리과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유치원 혁신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과후과정은 총 1,731학급에 전담교사가 119명이 배치되었지만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문제점

혁신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왔지만 어떤 지점을 향해 가야할지는 정작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의 혁신교육 흐름을 종합해보았을 때, 학생들의 삶과 학교 주변의 마을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가는 흐름이 있다. 더불어 공교육 안에서 새로운 배움에 대한 인정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마을교육공동체’는 경기혁신교육의 미래 방향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수업과 교육과정이 마을교육공동체로 나아가면서 지역사회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이야말로 혁신교육이 추구한 목적에 잘 부합한다.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마을학교도 꿈꿀 수 있다.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을에서 전개되는 공교육 형태의 교육활동에도 이제 교육청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협동조합은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된다. 매점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사업이 교복, 교구재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학교협동조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

‘경기꿈의학교’나 ‘공립형 대안학교(자유학교)’ 또한 공교육의 지평을 넓히면서 동시에 마을교육공동체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학교이다. 현재의 학교 시스템을 넘어 그동안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배움의 형태를 갖춰나갈 수 있다면 미룰 필요가 없다. ‘교육자원봉사센터’ 또한 마을에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을 끌어들이어 학교에 의미 있게 지원하는 모습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혁신교육의 한 주축인 학부모 활동은 이제 학부모 자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존에도 적잖은 학교 참여가 있었지만, 혁신교육의 주체로 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를 위해서 독립성이 보장된 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들어 그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역량 구축은 물론 정보 공유와 자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민관이 함께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학부모 관련 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이 추진되었지만 ‘친환경’으로 가기에는 충분한 시스템과 식생활교육은 미흡했다. 이제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로컬 푸드, 슬로 푸드 중심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식탁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평생 건강권을 위한 실질적인 식생활교육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제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의 무상교육은 더 넓고 깊게 펼쳐져야 한다. 수익자 부담으로 당연히 받아들였던 부분을 공교육 정신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일은 상징적이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더불어 수업준비물과 수업준비실을 갖추는 일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 예산에서 학생들의 수업에 들어가는 교수학습비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유치원은 혁신교육의 사각지대였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행정실, 급식실, 교무행정, 주무관들의 시설 관리 등의 업무에서 서로 협조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원아가 아플 때조차 보건실 지원 등에서도 소외 현상이 발생했다. 초등학교 지원부서가 유치원은 자신들의 지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현재 상태가 빠르게 개선되어야 한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 방과후과정의 질 개선, 공립유치원이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도 극복되어야 한다. 혁신유치원도 초·중·고처럼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공동육아와 같이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대안교육도 유치원교육 속에 들어오면서 협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2 정책과제 추진 계획

정책과제 3-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 경기혁신교육의 미래 방향,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은 학생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터전임. 마을 개념은 학교 주변, 동 단위, 기초 지자체 단위, 지역사회 등 다양하면서도 입체적인 접근 가능
- 정규 수업과 교육과정을 마을교육공동체 방향으로 추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학교는 마을교육과정 중심의 정규 과정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역이 맡는 방식으로 이원화
- 마을 기반 학교협동조합 구축을 포함한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는 ‘마을학교’ 구축
-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재정, 인력, 자원 등)와 긴밀한 연계
- 단계적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단계적·구성적 방식 채택
 - 기존의 참여협육 사업과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활동에 대한 현황과 장점과 한계 등 검토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 2014년 추진하여 사업 추진력 확보
 -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협력 체제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직 구성 및 방법

- 교육감 직속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 실무형 구성(교원, 전문직, 관련 전문가 등 포함)
 - 위원장은 부교육감과 명망가 공동대표로 구성
-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산하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구성
 - 워킹 그룹(working group) 형태의 15명 구성(경기 남부 10명, 경기 북부 5명)하고, 교육감 직접 보고 시스템 구축
 - 자체 행사나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연구, 발굴, 지원, 홍보 중심의 활동
 - 이권 개입 방지, 전반적인 조직 운영 모니터링, 문제 발생 시 위기관리 및 해결 기능 담당
 -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교원, 전문직, 관련 전문가 등 포함
- 관련 연구 실시와 TF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 경기꿈의학교 연구프로젝트(2건) 실시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TF 운영(8월, 민생분과 활동 인사 중심 구성)

학교 정규 과정에서 ‘마을교육과정’ 실시

● 학교 마을교육과정 도입 · 운영

학교 마을교육과정이란 교과와 비교과 등 학교 정규과정에서 학교 주변 학생의 근거지 주변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까지 마을 관련 주제를 교육과정에 결합 · 재구성하여 실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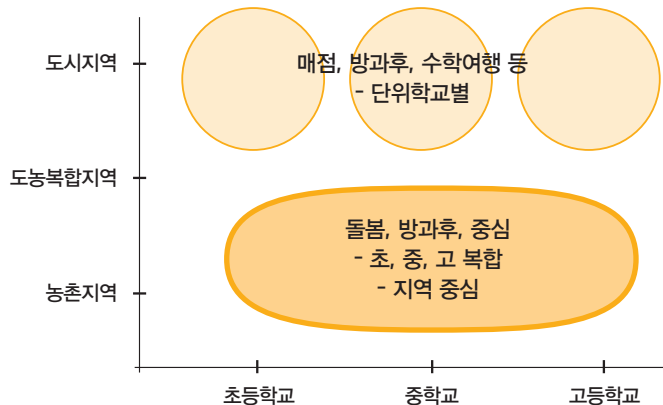
- 마을교육공동체과와 교육과정지원과 협력으로 추진, 경기도교육과정 개편 포함
- 마을을 중심으로 수업 강화와 교육과정 재구성 실시
 -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한 학교 주변 마을의 인적 · 물적 기반 조사
 - 학년과 교과 중심의 마을 관련 수업과 교육과정 재구성 실시
- 마을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와 전문가 육성
 - 마을교육공동체과와 경기도교육연수원 연계, 마을 학교 전문가 과정 운영
- 마을교육과정 중심 수업 활성화
 - 교사는 정규 과정에만 몰입하되, 정규 수업에 마을 주제 관련 수업 강화
 - 마을 중심의 교과협의회와 학년별 협의회 활성화 시 지원 확대
- 마을 프로젝트 수업 사례 발굴과 지원 확대
 - 학교 내 마을 프로젝트 수업 모임 지원(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위킹 그룹) 연계)
 - 다양한 수업 사례 발굴 · 홍보(과정 사례, 실패 · 성공 사례 등)

마을 교육공동체 학교 연계와 ‘학교협동조합’ 구축

- 마을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공동체 발굴과 학교 연계
 - 교육지원청과 추진단 중심의 마을 안 교육공동체 발굴과 홍보
 - 교과와 비교과, 학년별 여부 연계 방식과 내용 설계 · 구축
 - 경기도 협동조합육성 조례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 마을 기반 학교협동조합 구축
 -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학교협동조합 모델 구축
 - 학교급별 · 도농별 다른 모델 구성, 주체 육성과 교육내용 등 소프트웨어 중심 운영



• 마을기반 학교협동조합의 다양한 모델 •



❖ 마을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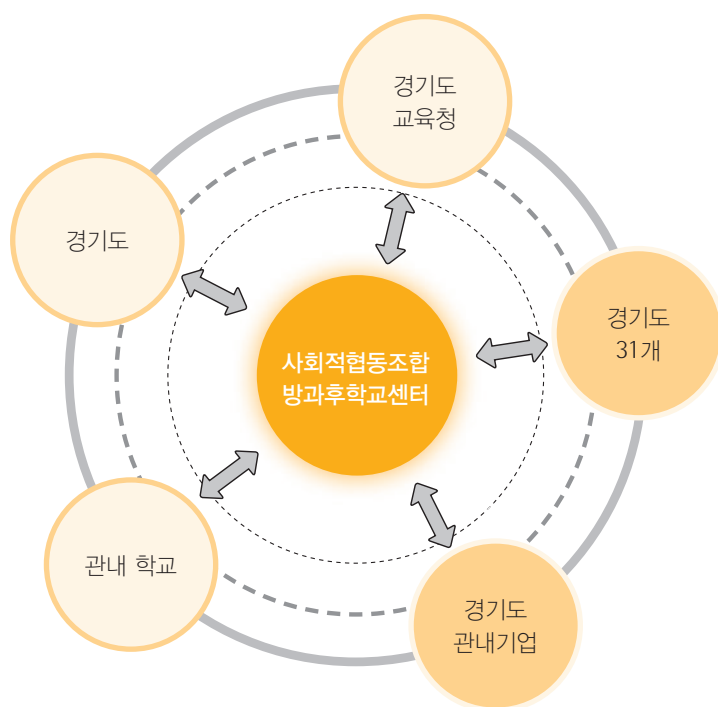
- 마을 안 교육활동 진행되는 학습장 지원
 - 프로그램, 예산, 컨설턴트, 학교 연계 등 맞춤형 지원과 학교 연계
- 마을 안 방과후학교 도입
 - 마을 안 방과후학교 실시 조건과 제 규정 검토, 협동조합 형태 결합 방식 추진

❖ 과정 중심 ‘마을학교축제’ 실시

-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과정 중심의 마을학교축제 실시
 - 학교 중심의 축제를 넘어 마을교육공동체 방식의 다양한 축제 추진
 - 희망학교, 마을,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을 통해 시범 실시(2015년 이후)
 - 마을단위 축제 준비위원회 구성(학교+학부모+지자체/교육지원청+지역인사)
 - 정규 수업이나 교육과정, 학생·학부모자치 연계 강화
- 전시성·행사성·일회성·예산 낭비형 축제 지양

❖ ‘사회적 협동조합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 운영

- 지원센터 설립 배경
 - 교사 부담을 덜고 학교 정규과정에 몰입하는 공교육의 정상화
 - 교육사기업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공공성 강화
 - 방과후학교 업무 지역사회로 전환 후 마을 중심의 방과후학교 체제 구축
- 단계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제1단계(2014년) : 설립 및 기관별 업무 협약, 관련 사업과 인큐베이팅
 - 제2단계(2015년) : 인증 신청, 발굴 · 육성 인큐베이팅, 위탁사업자 전환 지원
 - 제3단계(2016년) : 30개 이상 구축
- 지원센터의 역할
 - 방과후학교 컨설팅 : 강사 연수, 학교 실무자 연수, 단위 방과후학교 컨설팅
 -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자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지원
 - 방과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검증과 정기 점검, 인증이 관행이나 소위 완장이 되지 않도록 부작용 해소
 - 매점, 교복, 급식, 교재 · 교구 등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혁신교육지구 사업, 장기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전환

-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과정 상 나타난 장·단점 검토, 혁신교육지구 발전 방안과 평가 연구 적극 수용
- 지방자치단체 대상 전체 설명회 개최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후 사업 착수

❖ 연대와 봉사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 지역사회 내 퇴임교원, 학부모, 대학생 멘토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지역 내 다양한 연계망 구축
- 재능기부, 방과후학교, 수업보조, 학교행정, 멘토링, 동아리활동, 지역조사 등 다양한 학교 활동 자원봉사 실시

정책과제 3-2 다양한 배움을 인정하는 새로운 학교 추진

❖ 경기꿈의학교의 방향

- 다양한 배움을 인정하는 공교육 내 새로운 학교 추진
- ‘진로탐색형 꿈의학교’와 ‘문화예술 집중형 꿈의학교’ 운영

❖ 경기꿈의학교 추진

- 쉽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덴마크 청소년 시민학교 모델 지향
 - 자신의 진로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 부여
 -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 부여
 - 중 3학년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 전 과정으로 운영
 - 기숙학교를 원칙으로 하되 1년, 6개월, 1개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향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연계



- 운영 방안
 - 학생들이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실현
 -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시
 - 노작을 함께 하며 직업체험 포함한 몸을 사용하는 활동 실시
 - 예체능 교육 중시하면서 예술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실시
- 프로그램 제시
 - 모두가 악기를 다루는 1인 1악기 활동
 - 충분한 시간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유 독서 시간
 -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해가는 자신 알아가기 과정
 - 다른 사람과 갈등 극복하기
 -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보장(짬이 있는 교육)
 -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 인문학적 여행 기획자 되기(로드스콜라), 학생들이 기획하고 출연하는 공연, 사회 주요 쟁점 다루기, 직업세계 탐방 등
 - 청소년 평화 감수성 프로그램
- 추진 일정
 - 2014~2015년 상반기까지 설립 타당성 검토 후 권역별 운영 확대
 -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공모사업을 통한 학교설립 및 확산
 - 사회적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위탁경영 추진 검토

♡ ‘문화예술 집중형’ 꿈의학교 추진

- 문화예술 분야 심화교육과 특기 신장을 위한 공교육 역할을 하는 학교
 - 초·중·고 문화예술 심화체험과 프로젝트형 문화체험 실시
 - 초·중·고등학생의 진로탐색, 특기신장을 위한 위탁 대안교육 중심 운영
 - 음악, 미술은 물론 최신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으로 운영
 - 향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연계
- 추진 방침
 - 폐교 활용이나 대안학교 운영 방식으로 추진
 - 인력은 전·현직 교원, 전문직, 전문강사, 일반직 등으로 구성
 - 초·중학생의 문화예술교육이나 프로젝트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단기, 장기) 운영 : 3~5일, 1주일, 1개월, 6개월, 12개월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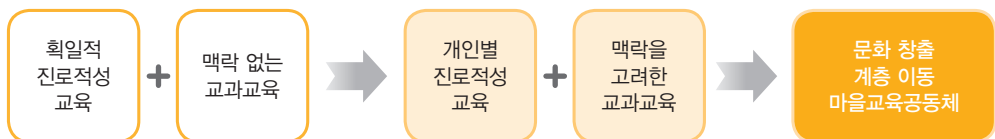
- 추진 일정
 - 2014~2015년 하반기까지 준비 후 2016년부터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에 의한 학교 운영 안 마련 : 공간 설계와 교육과정 구성 등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 학교마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진행과 지원
 - 전문강사, 학부모 재능기부, 지역사회 재능기부, 지방자치단체 연계 인력풀 구성 및 학교별 순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인근 대학의 인력 지원
 - 예산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에서 지원
- 정규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 토요일, 방학 중 교육 지원
 - 상설, 비상설 프로그램 연수
 - 교사 연수, 동아리 및 전문가 활동 지원
 - 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축제 연계 운영

❖ 공립형 대안학교인 '자유학교' 설립 운영

- 생명, 자유, 지성을 갖춘 '공교육 대안 특성화 중·고등학교'
- 공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경기교육의 새로운 모델 학교 구축
-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로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 구현
-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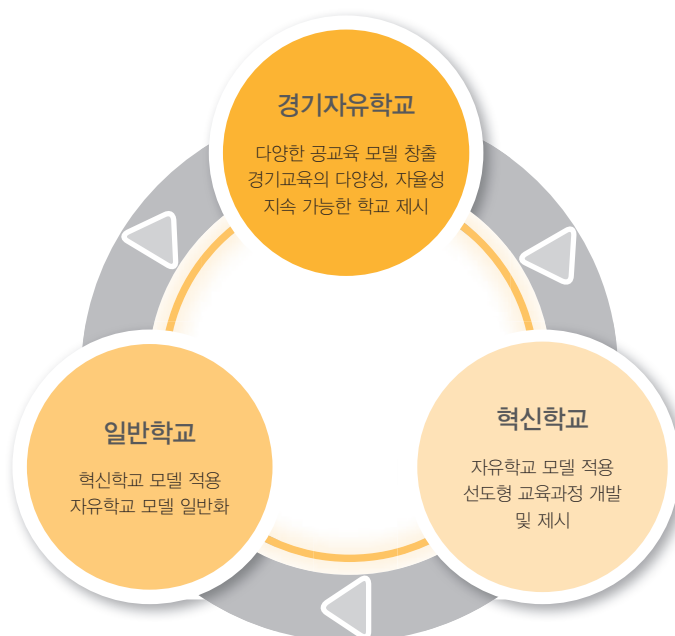
❖ 자유학교 추진 방침

- 경기 북부지역 신설학교로 추진 또는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나 도심 외곽에서 기존 학교를 공립형 대안학교로 지정 운영
- 폐교를 활용한 마을 중심의 작은 학교, 지역사회 참여 중심의 새로운 학교 실현
- 학생 개인의 성장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제와 내용 재구성
- 중·고 연계 통합교육과정 개발·적용 후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적용
- 연구자이자 실천가로서의 새로운 공교육 교사상 구현

❖ 자유학교 설립 일정

- 2014년 하반기 : 설립 TF팀과 추진단 운영
- 2015년 : 시설 공사와 교육과정 개발 등 준비
- 2016년 : 준공 및 개교
- TF팀 구성 : 교원, 전문직, 관련 전문가 등
 - 설립 준비를 위한 연구년 교사 선발
 - 신설학교 설립 후 자율학교 지정

❖ 자유학교 위상과 역할



❖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단계적 지원(민생분과 대안학교 영역으로 흡수)

-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부응
- 2015년부터 교과서 대금 지원시작으로 수요조사 및 공청회 개최.

정책과제 3-3 학부모의 자치 실현과 부담 경감

❖ 학부모 자치의 실현

- 학부모가 학교교육 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 필요
- 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확장하고 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마을 교육 공동체의 기반 구축과 학교-마을 선순환 구조 형성
- 교사와의 신뢰 관계 구축과 교권 확립과의 상생 가능성을 높이면서 혁신교육의 주체로 발전

❖ 학부모지원과와 학부모지원센터의 구축

- 학부모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면서(통합성)도 주체가 되도록 하는(주체성) 학부모 자치 실시
- 학부모자치과 신설
 - 학부모역량팀과 학부모지원팀으로 구성
 - 학부모지원팀 산하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지원팀장이 센터장 겸임
- 학부모지원센터 구축
 - 학부모 자치 확보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센터 설립
 - 행정적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학부모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학교 현장의 참여를 강화하는 독립성 보장 방안 마련
 - 기존의 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개편하여 기획, 조정 등 총괄 역할

❖ 교육지원청 내 학부모지원센터 역할과 일정

- 교육지원청 내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 학부모 자치 활동 현장 지원
- 학부모의 고민 · 고충의 실질적인 해결(옴부즈맨)
 - 담당 옴부즈맨 1인, 학부모지원전문가, 교육상담가, 관련 부서 담당자 팀 구성
- 학부모-학교-지역 네트워크 구축
- 추진 일정
 - 2014년 8월 :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TF팀 구성 운영
 - 2015년 1월 : 학부모지원센터 출범

❖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임원 위주가 아닌 일반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찾아가는 연수 지원
- 제대로 된 학부모 교육 지원
 - 학부모 리더 교육 지원
 -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 동아리 육성
 - 학교급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 지원
 - 소규모 모집형 다회기 학부모교육 운영, 연간, 분기, 월간 등 학부모 교육 사전 예고로 적시 학부모 교육 정보 제공
- 집단상담, 개별상담, 찾아가는 상담 제도, 불만제로 콜센터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관련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적시 피드백 제도 마련
- 마을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각 지역별, 주제별, 학교급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지역 내 존재하는 각 교육단체 및 학부모단체와 연계 협력 네트워크 정례화 및 사업 운영

❖ 학부모 포털 사이트의 운영 및 섹션 구성

- 학부모 자치를 위한 참여와 소통 강화, 정보의 신뢰성 및 접근성 향상
- 형태 : 홈페이지, 모바일 및 앱 기반, 시각 및 청각장애 학부모를 위한 페이지 개설 및 구축
-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기획 총괄(1명), 섹션별 담당자(3~4명)
- 기관 협조 : 교육청 미디어홍보팀 등



❖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및 중·고등학교 단계 확대

- 추진 방향
 - 학교 교육과정 연장선상에서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체험학습·수학여행비 단계적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우선 지원, 각종 현장체험활동비 단계적 확대
 - 초등학교 우선 수학여행·수련활동 전액 지원 후 중·고등학교 확대
- 추진 방안
 - 단계별 추진
 - 1단계 :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 2단계 : 현장 체험학습 활동 내용 검토, 질적으로 우수한 체험학습 발굴 후 예산 추가 확보, 전 반적인 연구 검토 실시
- 추진계획 실천 과제
 - 국고 지원 및 지자체 예산분담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필요

❖ 수업준비물과 수업준비실 확대

- 추진 배경
 - 맞벌이 부부 자녀의 학습준비물 관련 심리적·시간적 부담 해소
 - 저소득층 학습준비물 경비 부담 경감
 -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추진 운영
 - 학습준비물 적기 지원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
 - 학습준비물 활용 효율화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학교교육 질 제고
 - 학생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 방지
 - 교사의 수업 디자인과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교수학습비 확보 병행
- 예산 편성
 - 수업준비물 1인당 지원액 초등학교 40,000원 목적사업비로 단위학교에 배부
 - 중·고등학교 단계별 확대 : 2014년 10,000원, 2015년 20,000원, 2016년 40,000원
 - 관련 조례 제정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연계 사업 추진 검토
- 수업준비실 공간 마련과 상주 인력 확보
 -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정책과제 3-4 새로운 도약, 유치원 혁신

유치원 혁신의 추진 배경

- 경기형 유치원 형태의 다양성 추구
 -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요구 존재
- 맞벌이 자녀를 위한 방과후 과정에 대한 요구 증가
 - 현재 방과후과정은 공간 절대 부족과 교사 운용 체계 상 문제로 맞벌이 자녀를 늦는 시간까지 제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양질의 방과후 과정 운영 어려운 상태
- 유치원 교육 환경 여건 개선
 - 공립 유치원의 수의 부족, 유치원 교사의 일반행정업무 가중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병설의 경우 학교 내 보건실·급식실·행정실·도서실 비협조 상태,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등 과도한 서열형·전시형 평가, 소수로 이루어진 비민주적인 조직 문화 등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 추구

- 생태형 혁신유치원(유아, 교사, 학부모의 생태적 삶 추구)
 - 공립에서 생태유치원과 관련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공동 연구와 발전 가능
- 발도르프, 레지오 에밀리아, 프레네 형 혁신유치원 확대
- 운영 철학에 뜻을 같이하는 교사 초빙 구성, 내부형 원장공모제를 통한 시범 운영

맞벌이 자녀를 위한 방과후과정의 내실화

- 교사 운용 체계 개선
 - 6개월 한시 채용한 유치원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 우선 배치 후 확대
 - 현 보조원 체제 개선, 방과후부조원 명칭 변경, 방과후과정 메뉴얼 제작(근무시간, 여건, 급여, 업무 등)
 - 수익자 부담, 유아학비, 교육청 지원금으로 나눠 충당하는 방식에서 교육청 지원 확대 방식으로 변경
- 방과후 전용교실 확보
 - 취침, 조리가 가능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방과후 전용교실 확보



-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방과후과정 간식 및 식사는 근접 지역의 유치원을 벨트화해 사회적 협동조합과 결합하여 유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

-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 만들기
 - 공립 유치원의 양적 확대를 통해 통학 접근성 확보
 - 신도시 건설시 의무적으로 공립 유치원 일정 수 확보
- 교사와 유아가 가까운 유치원 만들기
 - 학급당 인원수 감축, 사립 유치원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을 두고 있으므로 공립과는 다른 적용 불가피, 교실 크기에 따른 정원도 고려
- 모두가 주인인 민주적 유치원 분위기로 혁신하기
 - 내부형 원장 공모제 실시, 원장 공모제 응모 자격에 교사 자격자 포함
 - 공립학교 회계규칙 중 병설유치원 회계조항 신설
 - 행정실무사 행정 업무 메뉴얼에 병설 유치원 반드시 포함
 - 병설학교는 병설한 학교 내의 교육 제반 인적·물적 시설 공동 사용 조례 제정
- 교사 전문성이 확보되는 교육혁신
 - 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자율성 보장, 학급 교육과정, 일일교육계획안 교사 자율 작성 운영
 - 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 업무 경감으로 교사들의 연구 시간 확보
-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자 혁신
 - 유치원 관리자 업무 지침 배부
 - 관리자와 전문직을 다면평가(온라인)
- 교권 확립을 위한 혁신
 - 교사의 경조사 유형 및 법정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교사 인력풀 운영
 - 관리자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교권 연수 의무 실시(연 16시간, 현장 연수)
 -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홍보 및 접근성 확보



- 실질적인 평가 혁신
 - 평가 간소화를 통한 교사 연구시간 확보 : 각종 평가 서류 장수 5매 제한, 기관 평가 · 교원평가 · 컨설팅평가 · 방과후 점검 등 중복된 내용평가 지양
 - 현장 지향형 유치원 평가 : 중복 평가나 과중한 업무 부과 형태의 평가 지양, 평가 이유를 현장 지향형으로 본래 목적에 맞게 재검토하고 평가 척도와 업무 간 명확화와 일원화
- 교육지원기관 혁신
 -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 혁신 :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팀 운영, 신 · 증설 유치원 컨설팅단 운영, 공공 안전체험시설과 협약하여 유치원 안전체험활동 지원 (소방방재청, 교통안전시설과 산하 안전 체험관등의 기존 지자체 시설 이용)
 - 유치원 실정과 아동복지법에 부합하는 안전교육 매뉴얼 제작 배포
 - 유아체험교육원 기능 조정 검토

유치원 혁신 추진 조직

- 교육감 직속 유치원혁신 TF 설치
 - 혁신적인 인사 중심 TF 위원 구성
 - 2014년 하반기 유치원 문제 제반 검토 및 갈등 조절
 - 새로운 유치원 혁신 모델 제시
 - 교육감 직접 보고 체계 구축
 - 전국 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정책과제 3-5 친환경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과 영양 · 식생활 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 조성

- 학교급식 위생 점검, 운영 점검을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 지역단위 학교급식 전문 컨설팅단 운영
 - 학교나 학생 · 학부모 요청 현장 컨설팅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시 급식연수 포함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영양(교)사 업무표준 매뉴얼 제작
 - 업무의 체계화, 간소화, 표준화 등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 배포
 - 43학급 이상 복수영양(교)사 배치 검토
- 고등학교 2·3식 학교의 급식운영 여건 개선
 - 2·3식 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검토
 - 고등학교 위생·안전점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시설과 관리체제 구축
 - 급식실 부족 학교 현황 조사 후 급식실 확대
 - 노후화된 시설 현장 점검 후 현대화 사업 점진 추진
 - 쾌적한 급식환경을 위한 식당 설치 가능학교에 우선 예산 지원

❖ 식재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사 확대
 -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광역 식재료 공급주체와 연계하여 소비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 학교 채취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강화
 - 방사능 오염, GMO, 유해첨가물로부터 급식 식재료 품질을 보호하는 관리체제 구축
-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및 관리 체계 구축
 - 친환경 농산물, 우수 축산물 등 우수 식재료 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지원 대상과 지원 품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의 체계 마련
 - 합리적인 공급 가격결정 등을 위한 체제의 효율적 운영
 -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센터와 협력 체계 구축
- 학교급식 식재료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학교별, 품목별 식재료 구매 관련 수발주 프로그램 통합, 생산자 및 납품업체 정보 관리 등으로 급식행정업무 간소화

❖ 학생 건강권 확립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 체계적인 영양·식생활교육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만족한 학교 급식
- 친환경무상급식과 내 영양·식생활교육팀 신설과 영양교사 모임 연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영양·식생활교육 포함, 적극적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먹거리 문화 조성 사업

정책과제 3-6 독서교육 활성화와 도서관 특화 및 주민개방

❖ 독서교육 활성화

- 수업 중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실질적인 수업 중 독서교육을 위한 도서 마련
 - 북콘서트, 작가와의 만남, 이동도서관 등 현재 추진 중인 독서교육운동 확산
- 교육청 내 독서교육 및 도서관 정상화 전담팀(교육과정과) 또는 독립과 신설
 - 장학관은 별도의 행사와 사업 절대 금지, 도서관 정책 주도
 - 장학사는 별도 선발 후 4년 근무. 업무는 수업 중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업무, 독서 거버넌스 구축
 - 사서는 도서관 거버넌스 구축, 25개 교육지원청 사서 연계, 140개 도서관 연계, 교육지원청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와 매달 모임(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

- 행사와 사업 위주의 업적주의 금지
- 수업 독서교육 적극 지원
 - 교실수업 내 독서교육 활성화
 - 도서관 내 독서교육 활성화
- 도서관 등 연계 학생 문화운동 바우처 지급(예체능, 문화예술 등)



❖ 경기도 내 도서관(학교 도서관) 포함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학교 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 통합 작업 착수
 - 지역 내 도서 위치 확인 및 상호대출서비스 강화
- 경기도청과 협의 하에 전체 도서관 통합 작업 착수
 - 경기도 내 도서관 연계 및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 특화 도서관 건립 추진

- 교육지원청 2~3개 통폐합 후 특화 도서관 건립
 - 테마형으로 추진하는 좋은 모델의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 향후 학부모 지원 센터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연계 : 노원구 화랑도서관, 대구와 부산 모델 참고
- 특화 도서관 모델 제시
 - 교육(폐다고지) 도서관 : 국내외 교육학과 교육 관련 서적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동화·소설 도서관 : 동화·소설 도서관 건립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과학 도서관 : 과학도서와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인문학 도서관 : 철학, 인문학 중심의 서적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주민 개방 사업 활성화

- 주민 개방은 원칙적으로 주·야간 모두 개방
- 야간 개방은 실질적인 곳을 중심으로 점진 확대
- 일반 주민개방은 해지기 전까지 시행
- 특별 주민개방은 1층 도서관이면서 안전 문제(건축 공간)가 충분히 보장된 곳 중심으로 시행
- 학교 도서관 사서 근무 시간 조정 : 9:30~18:00



과제 4 : 인사제도 및 조직 개편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혁신 정책과제 및 추진 계획]

인수위원회 제도분과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경기교육의 성공은 전문성과 열정, 네트워킹 능력 등을 갖춘 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교육청과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혁신학교 운동의 성과를 통해 학교 혁신의 단초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혁신학교 운동이 성공할수록 교육청의 혁신과 지원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청의 혁신과 지원은 결국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사람은 곧 전문직과 일반직, 교원을 의미한다. 교원 또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전문직과 일반직의 기획과 실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 제도는 상대적으로 혁신 속도가 느리다. 제도의 변화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다고 해도 인사 제도는 현장의 교원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내적 동기가 되기 때문에 보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교육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사 제도를 구현하지 못하면 현장의 많은 실천들이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통제와 지시를 하는 교육청이 아닌 지원과 섬김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청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철학의 가치를 기획과 실행으로 외화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문제점

지필위주의 시험으로는 역량있는 교사와 전문직, 일반직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필 시험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있지만 지필시험을 잘 봤다는 것이 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역량 위주로 각종 선발 방식과 임용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형식적인 면접이 아닌 상호작용에 입각한 역량 면접이 필요하다. 지나친 연공서열 위주의 관리자 선발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



하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전문성을 어떻게 펼쳤고, 어떻게 지원했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물론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다면 평가와 역량 면접 방식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각종 차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인맥과 학연, 관행, 연공서열로는 역동적인 교육청과 학교의 모습을 만들 수 없다. 지필위주의 시험, 정량위주의 스펙 관리, 상급자의 근평 만으로는 역량있는 자원 발굴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

지원자가 살아온 삶을 검증해야 한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속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동시에 지원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교육의 가족들에게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성과를 내야 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입증해주어야 한다.

2 정책과제 추진 계획

정책과제 4-1 다면평가 및 근무평정제도

❖ 학교 관리자 평가 방법 개선(안) 마련

- 현행 근평 비율 조정하는 방안
 - 개선안(법률 개정 요구)

평가대상	현행	개선안
교장	평가하지 않음	교직원, 학부모의 다면평가 도구 개발
교감	학교장(50%)+교육청(50%)	학교장(40%)+교사위원(20%)+교육청(40%)
행정실장	학교장(50%)+교육청(50%)	학교장(20%)+교사위원(30%)+교육청(50%)

- 관련법 :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교육부장관)
- 절차 : 법적타당성 검토→ 시스템 개발 및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시범운영→ 적용

- 성과 검토 후 확대
- 교직원 평가 영역

평가대상	교장	교감	행정실장
평가영역	학교경영능력평가	교무행정능력평가	일반행정 및 지원행정능력평가

- 평가 결과 반영(교직원능력개발평가 방식 채택시)

평가대상	교장	교감	행정실장
결과 반영	중임, 전보, 전직, 성과급, 공모교장 평가	승진(근평), 전보, 전직, 성과급	근평, 전보, 성과급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활용하는 방안
 -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을 확대 보완하여 그 결과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직원능력개발평가로 확대 변경 실시
 - 전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 행정실장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필요
 - 일반직과 비정규직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존 평가지표도 보완 필요

장학관, 장학사, 교육청 일반직 근무평정시 다면평가 도입

- 근무평정시 산하기관의 교원 및 일반직의 평가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 도입(교육청 민주주의와 학교지원 등)
- 근무평정시 동료 직원의 상호평가를 반영하는 방안 도입
- 일반직도 전문직을, 전문직도 일반직을 평가함으로써 칸막이 문화 제거와 상호 협력 문화 형성

교장, 교감의 근무평정시 다면평가 도입

- 교장 근무평정시 교감과 교사들의 평가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 도입
- 교감 근무평정시 교사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 도입
- 교장과 교감 근무평정시 행정실을 포함한 교직원의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방안 도입



❖ 교장, 교감, 교사의 평가권 보장

- 교사의 근무평정시 교장과 교감이 한번에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교장, 교감, 다면평가 내용을 상호 참조할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

❖ 다면평가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다면평가 규정을 개정

- 평가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안
- 다면평가 합산점을 비례배분 방식에 따라 강제 배분하여 교사들의 다면평가 반영 점수 변별력이 30%가 되도록 규정 개정
- 교사 다면평가 요소를 동료성, 민주성 등 동료간 협력과 리더십과 관련한 평가 요소 강화

❖ 다면평가 프로그램 개발

- 평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
- 평가내용 비밀보장 및 규정을 준수하는 프로그램 제작
- 인증서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면평가 평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정책과제 4-2 교원임용제도 개편

❖ 교원임용고사 개편을 위한 기반 마련

- 일반직으로 구성된 현행 임용고사 업무팀을 개편하여 전문직 및 파견교사를 포함 시킴. 인적 구성원의 다변화 추진을 통해 현장의 변화 요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
- 1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되 2차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
- 위촉임용사정관제를 도입하여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정상화 및 역량중심의 임용고사 개편을 추진

❖ 임용사정관제 도입

- 지필위주의 선발 방식을 탈피하고 2차 시험에서 수업과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교사로서 준비과정, 교사의 자질과 인성 검증 등을 심도 깊게 추진함
- 임용사정관은 위촉사정관을 의미함. 위촉임용사정관은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활동가 등 역량이 있는 자를 일정 기간동안 위촉하는 형식으로 운영함. 위촉임용사정관은 교사의 참여 비중을 절반 이상 확대하여 추진함
- 위촉 임용사정관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세미나 추진을 실시함으로써 평가관 및 평가 철학 공유
- 지필시험이 당락을 사실상 결정짓는 현행 임용고사 체계를 전면 재편.
- 수험생들은 자기소개서 및 교사 준비를 위한 자기 성장 보고서를 1차 시험 합격 후 제출함. 임용사정관제들은 관련 내용을 집중 검토하고, 면접 때 인성 및 자질 검증의 자료로 활용함
- 1차 시험 합격자를 초등 1.5배수-2배수, 중등 2-3배수로 늘리고, 2차 시험의 비중 확대
- 2차 시험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시연, 심층 면접(자기소개서 및 성장보고서 검증), 수험생 상호 토론으로 구성함
 - 상호 토론 도입과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 검증 강화
- 수업 실기 시간을 늘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 전환
- 상호 토론 시간을 30분이상 확보함. 3명의 수험생이 한 번에 입실하여서 경기혁신 교육 이나 교육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 토론함. 심사자는 토론자에게 주제를 준 후 토론능력, 중재능력 등을 평가
- 토론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토의 능력도 측정
 - 면접 심사 시 인성 검증 강화. 인성평가를 심사위원 재량으로 P/F로 평가
- 자기소개서 및 성장보고서(포트폴리오)는 2차 시험에 중요한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함

❖ 지역트랙제 도입

- 지역트랙제(농어촌 트랙) 임용제를 도입하여 농어촌 지역에 10년 가량 장기근무하는 문화 형성

❖ 양성평등 할당제 검토

- 양성평등할당제를 도입하여 교원이 한쪽 성별로 편중되는 우려를 해소.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 검토

❖ 지역 가산점 폐지

- 지역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전국의 유능한 인재를 흡수
- 자기소개서와 자기성장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사대 과정의 삶을 검증함으로써 교사대 교육과정 혁신을 추동

❖ 토론 및 면접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심사단별 표준편차제 도입을 통해 심사단에 따른 피해 보완(고사실, 고사장별)
- 심사단 워크숍을 통해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일원화
- 심사위원의 구성에 교사 비중을 대폭 확대함

❖ 기간제 교원을 위한 특별 트랙제 검토 및 인력풀제 운영

-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5년 이상 기간제 교원 경력을 지닌 이들만을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임용 트랙 개설 검토
- 전체 정원의 3-5% 가량을 별도 트랙으로 선발
-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전체 기간제의 30% 우수 기간제 인증제를 통해서 단위학교에서 그 안에서 채용할 수 있게 권고함.

정책과제 4-3 일반직 임용 및 승진 제도 개편

❖ 사무관 시험 폐지 및 역량중심 평가 도입

- 시험 방식으로 사무관을 임용하는 방식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바 경기도교육청도 타시도교육청의 흐름과 발맞추어 5급 사무관 시험을 폐지함.
- 단위학교 근무(행정실) 경력점수를 부여하여서 현장성 있는 인사들이 승진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창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의 성과를 내며, 협력적인 자세로 일한 자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풍토 전환

- 역량평가, 근평, 심층면접과 면접자 상호토론, 현장평가(다면평가) 반영

<서울시교육청 사례>

- 서울교육청은 근평 30%, 재직기간 중의 실적평가 30%, 역량평가 30%, 청렴도 평가(다면평가) 10%로 사무관을 선발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근평은 지방공무원법 76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조의 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하고 있음.
- 2. 실적평가는 공무원이 작성한 재직기간중의 성과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또 올해는 인터뷰까지 추가 되어 외부인과 전문기관 50% 내부 50%로 함.
- 3. 역량평가는 지금은 교육행정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공무원 중 7급 공무원 이상을 신규채용 시에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특히 고위 공무원을 뽑을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임. 서울시는 5급 승진시험시 적용하고 있고 외부용역과 전문가를 통해 하고 있음. 역량평가 방법은 서류합기법, 발표, 역할수행 등임.
- 4. 청렴도 평가는 다면 평가 방법에 해당함. 서울시는 청렴도 평가를 직전근무지 또는 이전 근무지 중 상사, 동료, 직원 등 10여명을 선택하여 승진대상자 평가 시스템(컴퓨터에 접속하여)에 참여 하고 있음.

- 단위학교 근무(행정실) 경력점수를 부여해서 현장성 있는 인사들이 승진할 수 있는 구조 마련함.
- 건설직, 기술직도 행정실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교육청도 사무관 심사 시 역량평가, 근평, 심층면접과 면접자 상호토론, 현장평가(다면평가)를 반영함. 역량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원과 일반직,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별도 협의함. 현장평가는 교원과 행정실무사를 포함한 온라인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성을 높임.
- 역량평가는 업무 추진 실적, 지원 경험, 직무 수행 계획 발표 등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을 검증함.
- 인성검증을 위한 온라인 공개 평가 시스템 도입함으로써 현장 평판이 좋지 않은 인사가 승진할 수 없게 함.

❖ 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신설

- 일반 행정직 인사들이 인사청탁, 금품수수, 회계문란, 비정규직 상납 등 문제가 발생하여서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처벌함
- 중대 비리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해임 이상의 중징계 의결함
- 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5급 이상 고위직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강등 제도의 적극 활용

정책과제 4-4 교육전문직원 임용제도 개편

❖ 교육전문직원 응시 대상 확대

-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규정한 자격기준을 참고로 현 기준보다 완화하여 응시자격 부여함
- 경기도의 내규로 인한 자격기준은 폐지 또는 최소화(예 : 부장경력, 본도재직경력 등)로 응시 인력풀 확대
- 지원 자격에서 근무평정 항목 폐지
- 경력점수, 어학점수, 연구점수, 위촉장, 수상실적 등 각종 가산점은 폐지
- 장학사 시험에 사립 교원도 응시 가능한 것처럼 장학관 공모제에도 공·사립교원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사립 출신 장학관의 경우, 임기를 마친 후 원적 학교 복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교사로 특별채용함

❖ 교육전문직원 인성검증 강화

- 경기도내 전 교원에게 2차 합격자를 공개하고, 인성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함. 소통능력, 업무추진력, 전문성 등에 관한 객관식과 주관식 설문 방식을 도입함
- 설문결과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사 과정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협의 후 1, 2차 점수와 상관없이 탈락시킴

❖ 장학사 선발 과정의 개선

- 중등의 경우 사회계열, 과학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공업(직업)계열 등으로 구분하여서 과목별이 아닌 영역별 선발
- 1차는 기획력·논술평가, 2차 전형은 심층 면접 및 상호토론, 3차 전형은 현장 실사로 구성함. 중등도 전공과정은 폐지. 지필시험은 현행 수기방식에서 탈피하여 컴퓨터로 실시
- 장학사 선발 시 특별전형을 확대함. 특별전형의 형태는 학교혁신, 정책개발, 인사혁신, 공보, 연수 혁신, 수업 코칭 및 수업컨설팅, 학교 컨설팅, 마을교육공동체, 평화교육, 진로진학, 미디어 중독 예방 등과 같이 구체화시켜 추진함. 특별전형에 관한 형태와 응시자격은 교육감 정책 추진의 필요 또는 직무 수요 예측에 의해 영역을 결정함

- 특별전형(전문전형)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중시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병행함. 정량중심의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의 비중을 강화함
- 기획과 논술시험은 기존의 암기식에서 탈피하며, 형식 요소 보다는 내용의 질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설정함
- 그동안 전문직 위주로 출제 및 검토, 면접 위원을 구성한 관행에서 탈피하여 교사 비중을 대폭 확대함

❖ 교육전문직원 토론 및 면접심사 강화

- 2차는 학교컨설팅, 심층 면접, 구성원 상호 토론으로 구성함. 심층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심사위원들이 질문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함. 전문직 지원 동기, 현장 실천 경험, 교육관 및 교육철학, 독서 수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함
- 토론 방식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응시자 간 상호토론, 면접위원과 응시자간 토론으로 구성함. 상호 대립 방식의 토론과 별개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토의 방식 등도 병행함. 이 과정을 통해 협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검증함
- 면접, 토론 및 토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락이 가능하도록 함
-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물어봐서 근본적으로 암기식 방식이 통하지 않도록 평가 문제 출제

❖ 1, 2차 심사위원 구성

- 외부 심사위원과 현장 심사위원을 포함한 인적 구성원의 다변화 추진
- 출제위원, 검토위원, 면접위원에 교사 반드시 포함

❖ 보직형 전문직 도입

- 승진을 보장하지 않거나 승진과 연계하지 않는 보직형 전문직 제도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장기 출장 및 파견 교원 활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고, 전문직을 승진의 통로로 활용하는 기존의 인식을 탈피시킴. 동시에 전문직 시스템의 다변화를 추진함

❖ 교육전문직원 자체 연수 실시

-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발한 교육전문직원은 교육부에서 위탁하여서 1달간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수를 실시함. 타시도교육청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상당 수 있음

❖ 장학관 공모 확대

- 교육공무원법에서 7년 이상 교육경력자로 장학관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응모 제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지원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함
 - 공모제 확대를 통한 인재 등용
- 장학관으로 임용되면 장학관을 대상으로 순위명부를 작성, 상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계층의 추천을 통한 숨어있는 인재 발굴
 - 사업계획서와 비전계획서 직무 발표 및 심층 면접 병행
- 공모제 장학관 및 교육장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 시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장 임용

정책과제 4-5 교장공모제 및 중임제도 개선

❖ 실질적인 교장공모제를 통해 유능한 교장 임용

- 교장 자격증자 인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에 의한 공모 임용 실현
- 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의 지속적 확대
- 교장공모제의 학부모 검증을 위한 자료 집적 및 공개시스템 구축

❖ 실질적으로 교장 중임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체제 마련

- 교장중임평가에는 중대비리를 범하지 않는한 대부분 중임되고 있음. 청렴도, 역량 평가, 민주적 리더십 등을 포함하여 중임평가를 강화

- 교장중임평가, 공모교장평가, 학교평가지표, 혁신학교 평가 등 교장관련 평가지표가 제각각 다른 것을 혁신관련지표로 일원화
- 다면평가가 우수한 교장에 대해서는 장학관 또는 교육장 지원시 우대

정책과제 4-6 성과급 제도 개선

❖ 교원평가(성과급) 제도 개선

- 지나친 개별연수 실적의 반영을 지양
- 학교단위 학습공동체와 학교의 제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

❖ 학교평가(성과급) 제도 개선

- 정량화 실적주의, 과도한 연수 실적 요구 및 컨설팅 시간 반영은 지양
- 학교혁신의 노력과 혁신정책의 이행 여부를 반영한 평가기준 마련 및 시행

정책과제 4-7 수석교사 운영 개선

❖ 수석교사제도 개선

- 현재 414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2012년부터 선발하여 2015년에 1차 중임여부 심사에 들어감. 중임여부 심사기준에 학교혁신 기여도와 학교 내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교육과정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지표를 반영하고 중임심사 때 수석교사역량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
- 수석교사를 지원하는 본청의 부서를 교원역량개발과의 교원평가담당에서 교육과정지원과로 이관하여 수석교사가 혁신교육관련 교육과정의 이해를 토대로 수업컨설팅 지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현재 수석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90시간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으나, 자율연수로 되어 있어 원격연수 등 혁신교육과 무관한 연수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음. 혁신교육정책의 이해, 혁신관련 교육과정과 수업의 이해 등 혁신교육 커리큘럼에 의한 수석교사 혁신연수를 개설하여 운영
- 수석교사를 선발 후 교육지원청에서 임의로 학교로 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석교사초빙제를 실시하여 학교에서 수석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정책과제 4-8 교원, 일반직 전보제도**❖ 교원 전보제도의 개선**

- 현재 특, 갑, 을, 병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구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단순화와 현실화, 합리화의 관점에서 재설정 추진
- 지역트랙제가 도입시 중등 10년 만기제에 대한 폐기 및 수정이 필요함.
- 지역 특성에 따른 광역인사권제에 대한 검토 필요(2-3개의 인근 교육지원청을 통합하여 인사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
- 특정 학교에 특정 연령대의 교사들이 몰려있는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담임교사 순환제

- 초등학교의 경우 고정력 교사가 저학년에, 저경력 교사가 고학년에 몰려있는 상황 극복
- 가능한 교사 연령대를 정상 분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권고

❖ 일반직 전보제도의 개선

- 현재 일반직 전보제도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각종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6급-9급 이하의 주무관급으로 구성된 전보제도 개선 TF를 조직하여서 각종 비리를 없애고, 합리적인 전보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의 업무분석을 통해 적정한 인원 배치

- 교육청과 학교간 순환근무를 통해 현장과 교육청간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현
- 초등학교에는 5급 행정실장을 배정하지 않는 관행을 타파하여 학급수 기준으로 직위에 따른 행정실장 발령
- 2015년 상반기 내 단위학교 행정실장, 6급 이하 주무관, 일반직 노조관계자,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2015년 하반기 내로 전보제도 혁신안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정책과제 4-9 교원 승진가산점 개선

❖ 교원 승진가산점 개선

- 청소년 단체, 영재학급 지도 점수, 특성화 학급, 농어촌 점수 등 교육감이 지정하여 줄 수 있는 선택가산점에 각종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 점수의 경우에는 과거 농어촌이었지만 현재는 교통 상황이 좋아서 농어촌이라고 불리기 힘든 지역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다수 있음. 전면적인 실태조사 필요
-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각종 선택가산점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조율하여서 폐기할 부분과 새로 만들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개정하도록 함
- 2015년 상반기에 승진가산점 개선 TF를 구성해서 현실성에 맞는 승진가산점을 도입함.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여 TF를 조직

정책과제 4-10 교육경력 산출 방법과 적용 일원화

- ❖ 교육경력을 산정 할 때에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교육실경력이라는 법적인 근거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제도마다 다른 기준을 포함시켰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1정 연수	교육전문직 시험	NTPP 교과연수년	NTPP 연구년	도내 교원 전출입
육아휴직	×	○	○	×	×
병역휴직	×	○	○	×	×
고용휴직	×	×	○	×	×

- ❖ 위 제도를 포함 경기도교육청에서 산출하는 모든 교육경력에서 기준은 동일하게 육아휴직과 병역휴직, 고용휴직을 포함하여 산출함. 특히 각종 제도에서 육아휴직과 병역휴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함. 근거 기준은 교육공무원법 제 29조 3 제 2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12조 6 제 1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11조,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 1항 2호, 6호, 7호, 11호 등임
- ❖ 도내 전출입 시 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청회, 교원대상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거쳐서 2015년 상반기 내 최종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 함. ‘교육실경력’이라는 용어는 폐지하고 교육경력이라는 용어로 일원화 함
- ❖ 육아 휴직 시 한 아이 당 3년간 휴직임에도 1년 간 만 호봉에 넣고 있는 부분도 교육부, 행안부 등과 협의하여서 3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2015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함. 이미 교육공무원법(44조)이 개정되어서 3년 기간 동안 교육경력인정(호봉인정)으로 되어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1년만 인정받고 있음. 이 부분은 17개 시도교육청 협의 안건으로 올려서 교육부에 정식 요구 함. 아울러 대법원 판례대로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복직과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함.(2014년 6월 15일 대법원 판례, 주심 김소영 대법관)

정책과제 4-11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발전 방안

❖ 연구원 현황

- 직속기관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의 필요에 부합된 연구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기존의 국책연구기관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있음
- 채용직(연구직과 사무직)과 파견직(교사, 연구사,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상호 갈등이 촉발할 수도 있음

❖ 연구원의 방향

-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가 필요함
- 정책과 제도와 같은 거시적 연구도 필요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발행하는 교육 현장을 포착하는 미시적 연구도 필요함
- 도교육청의 정책 기획 이전에 연구가 선행해야 하고, 정책의 실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함
-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교원의 파견 비율을 확대하고, 동시에 연구년 교원 네트워크를 강화함

❖ 연구원의 구성 체계

- 현행 학교교육지원부, 혁신교육연구부, 기획조정부 3부 체계를 혁신교육지원센터와 혁신교육연구센터로 이원화함. 기획조정팀은 두 센터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교육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함
-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연구원 원장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학교혁신과의 협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 이 방식은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교혁신과의 활동 반경을 넓혀나가는 승승(win-win)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혁신교육지원센터는 혁신학교 지원,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연수, 컨설팅, 현장연구, 연구년 교원 지원 사업을 추진함. 혁신교육연구센터는 영역과 주제별로 팀을 구성할 수 있음. 통계지원팀, 자료개발팀, 제도분석팀, 교육과정팀, 정책개발팀(비서실과 연계하여 교원-학부모 불만제로팀운영),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혁신교육지원지원센터 연구 지원, 통계지원, 도교육청 지정 과제 및 타기관 수탁 과제, 팀별 정책 과제를 수행함
- 인력 배치는 교원, 전문직, 일반직 모두 새로 충원하는 공모 형태로 진행하며, 이는 연구원장과 학교혁신과장의 협의 하에 진행하되 관리 감독을 맡은 연구원장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함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교원 파견 형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7조 3항 1호(1.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 · 연구 · 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함. 2년 파견 후 1년 연장 가능한 형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함

❖ 혁신교육 연구 벨트 형성

-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의 자원과 연계하여 혁신교육 성과와 과제 분석
-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 동향과 성과, 실천과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추진
- 우수 연구자원 네트워크 및 DB 관리를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 및 타기관 수탁연구 병행

❖ 연구년 교사 네트워크 강화

- 연구년 교사를 연수원이 아닌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 파견 추진
- 연구년 교사에 대한 연구방법론 워크숍, 컨설팅 지원
- 연구년 교사와 공동으로 연구 또는 자료 개발
- 연구년 교사의 보고서 중간 및 최종 평가를 연구원이 맡아서 추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추진
- 연구년 교사의 연구 보고서 DB를 공개하고, 연구원에서 관리함

❖ 다면평가 도입을 통한 연구위원(원)의 검증

- 2년 주기로 다면평가제 도입함(협동능력, 의사소통능력, 연구 전문성 등)
- 연구성과물 검증 과정을 엄격하게 추진함.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에 연구물을 의뢰하여 연구물의 수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임용 및 재파견 여부 결정

❖ 현장성 강화 방안

-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파견 교사의 비중을 확대함. 연구트랙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지원트랙은 특정 분야의 실천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선발함
- 교육전문직원 채용시 별도의 연구사 트랙을 도입하고, 연구물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선발하고, 이들을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

- 일반행정직 트랙의 연구위원은 연구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며, 교원과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함. 박사학위 소지자 중심으로 선발

학교교육지원부의 기존 업무 재배치

- 위탁업무 개요

업무명	업무 소개	위탁기관
사이버학습	• 초1~고1 학생대상 전국 공동 추진사업 • 학습, 평가 콘텐츠 무료제공 사이트 • 학습이력관리서비스 제공 사이트 • 중학교 미이수학생 학습지원 사이트	과학직업교육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서버)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수학습지원 전국 공동 추진사업 • 유, 초, 중, 고대상 교수용 자료 제공 사이트	과학직업교육과
교육자료전	• 교총주관의 연구대회로 시도대회 운영	교원인사과

- 위탁 업무별 운영의 문제점

※ **공통사항** : 교육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Think Tank를 지향하는(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음

※ 사이버학습

- 연구사, 전산, 파견교사,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던 사이버학습을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위탁 운영하면서 연구사1명만 배정함에 따라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 초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이므로 원격지원 및 전화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것을 정보화 전문인력이 없어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른 홈페이지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현재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임(서울사이버학습 개인정보 유출 해킹사고 발생했음)

※ 교수학습지원센터

- 우수 교수학습자료들이 분산되어 있어 활용이 불편하므로 홈페이지 메뉴 재배치가 필요함
- 정보기록원에서 추진중인 교수학습지원센터 통합 홈페이지와의 차별이 필요함



※ 교육자료전

- 다른 연구대회에 비해 전시회를 겸해야 하는 운영대회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대회로 재단법인에서 운영할 성격의 연구대회가 아님
- 업무 특성상 전산 전담 인력이 주를 이루는 정보기록원에 정보화관련 사업(사이버 학습, 교수학습지원센터등 정보화관련업무)을 재배치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임
- 정보연구원의 역할을 병행하던 기존 연구원이 재단법인이 됨에 따라 전국에 모두 있는 정보연구원이 경기도에만 없는 상황이므로 정보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를 해결할 수 있음
- 사이버가정학습의 서버 이전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10억 이상)이 예상되므로 서버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두거나 서버만 연구원에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함

❖ 통계지원센터 활성화

- 중단연구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필요
- 1안은 중단연구 지속 2안은 경기교육실태조사로 전환하는 방안 논의 필요
- 온라인 설문 조사 시스템 구축 및 DB 관리, 자료 분석을 통한 발표
- 교육청 주관 각종 설문 조사 컨설팅 및 지원, DB 분석

정책과제 4-12 조기 발령을 통한 신학기 준비 체제 구축

❖ 교사 인사 발령을 조기 추진

- 현행처럼 2월 중순에 이루어지는 교사 발령을 앞당김
- 교감·장 발령과 별도로 교사 발령을 추진함
-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2월 수업 일정을 최소화 함

❖ 1-2월을 교육과정 준비 기간으로 추진

- 새로운 학교로 발령을 받은 교사들은 발령받은 학교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업무분장, 교과 및 학년 배정, 교육과정 개발 등을 1-2월초에 시작함
- 봄방학 체제를 없애고, 교육과정 준비의 달로 설정함
-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교육, 총회 등을 2월 추진

정책과제 4-13 전교사 담임제 확대

❖ 전교사 담임제 확대

- 전교사 담임제는 학급당 인원수 감소 효과에 따른 교육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 유효 교실이 있는 많은 교실이라든지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함
- 학교 내부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전교사 담임제를 학교별로 자율 추진
- 전교사 담임제를 실시하려는 학교에 대한 담임 수당 지급 등 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과제 4-14 본청 및 직속기관 조직개편 T/F팀 운영

❖ I. 추진 배경

- 본청 ·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과의 역할 조정과 연계 관계 재구성
- 직속기관의 각 기관별 교육지원 기능 · 역할 재정립 필요
- 주민직선 3기 교육감 교육정책 추진 기반 구축

❖ II. 기본 방향

- 가. 현행 1실 4국 28과 체제를 유지한다.
- 나. 안전지원국을 신설한다.
- 다. 본청의 기능을 정책기능으로 개편한다.
- 라.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한다.
- 마. 지역 교육지원청을 지원행정체제로 개편한다.
- 바. 차별해소, 주민참여, 문화예술 등 공약실현을 관련 업무의 기능을 강화한다.



Ⅲ. 주요 과제

●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기능 개편

- 도교육청의 조직과 기능
 - 정책, 평가, 대외적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
-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기능
 -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편
- 직무분석을 통해 본청과 북부청사간 중복 기능 통합
 - 중복 행정기능은 본청으로 흡수
 - 북부청 독자적 행정기능은 학교안전 지원기능 중심으로 재편
-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기능 강화
 - 학교공동체(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자치협의회, 학부모 참여)지원
 - 학생인권과 학생자치(학교밖청소년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 교육지원센터 설치(혁신학교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등)
 -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등

● 직속기관 업무 재구조화와 기능 개편

- 기관 정체성 정립을 위한 구조조정
 -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능 분석
 - 연수 기능 종합조정기구 설립
 - 평화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복지종합센터 등 목적과 기능에 맞게 명칭 및 기능 개편

● 인수위원회 분과별 조직 개편 요구

분과	사업명칭	해당부서	의견
	특수교육과	도교육청	독립 과로 설치
단원고 특위	안산교육 회복지원단		치유와 회복을 통한 안산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해 안산 교육회복지원단 조직 및 운영
차별 해소 특위	노동인권팀 신설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소속에 '노동인권팀'신설
	차별해소위원회 설치		교육감직속으로 '차별해소위원회' 설치, 관련 차별해소 위원회 조례 제정



분과	사업명칭	해당부서	의견
차별 해소 특위	학교 행정업무 정상화팀 신설		장학관1명, 장학사3~4명으로 구성, 단위학교 행정업무 정상화 및 효율화 담당, 교육국 사업 총량제 담당,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실무사 역 량 강화 및 교직원 연수 담당
	감사관 재조직	감사관	정책감사팀, 직무감찰팀, 시민감사관 지원팀 으로 재편
민생	평생교육과 변경		‘평생교육과’를 ‘마을교육공동체과’로 변경 교육지원청 내 ‘마을교육공동체팀’ 구축
	‘사회적 협동조합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평생교육과	제1단계(2014년) : 설립 및 기관별 업무 협약 제2단계(2015년) : 인증 신청, 발굴 육성 인큐베이팅, 위탁사업자 전환 지원 제3단계(2016년) : 30개 이상 구축
	‘학부모지원과’와 ‘학부모지원센터’ 구축		학부모지원과 신설 : ‘학부모역량팀’과 ‘학부모지원팀’ 으로 구성 학부모지원센터 구축 : 기존의 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개편하여 기획, 조직 등 총괄 역할
	도서관교육 관련	교수학습 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교육 팀’ 구성 또는 ‘도서관교육과’신설
교권	인권보호센터	학교인권 지원과	‘인권보호센터’를 구축하고 ‘교권보호지원팀’과 ‘학생인 권지원팀’을 설치
	교원힐링센터		‘평화교육연수원’을 ‘교원힐링센터’로 명칭과 조직을 변경 운영 교원종합복지센터에 ‘교원힐링 제2센터(상담센터)’를 설치, 평화교육연수원과 프로그램 연계 운영
혁신	혁신교육 지원센터	학교혁신과	행정은 본청에서 하되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설치
	교육지원청 혁신센터 설치		모든 교육청에 ‘교육지원청혁신센터’ 설치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혁신센터로서 기능을 강화
	학교혁신과 업무 조정	학교혁신과	학교정책, 혁신학교, 교육협력, 혁신교육지원센터
	진로진학센터의 확대 개편	교육과정 지원과	교육지원청혁신센터 내 진로진학지원팀을 조직 도교육청 소속 진로진학지원센터 업무 재구조화
제도	각종 평가	기획예산/ 행정관리 담당/학교 혁신	각종 평가 업무를 정책기획으로 일원화

Ⅳ. T/F팀 구성(안)

- 「본청 및 직속기관 조직개편 T/F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 방안 마련
- 운영기간 : 2014.7.21. ~ 2014.11.31
- 구성 : 조직개편 추진단과 실무T/F팀으로 나누어 운영
 - 조직개편 추진단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큰 원칙과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실무 T/F팀에서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한다.



과제 5 : 사람을 사람답게 섬기는 경기교육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 계획]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차별해소특위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모든 인간은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똑같고 평등한 존재이다.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되며,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배려하는 시설이나 정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내 학교 수는 유치원 포함 약 4,359개교이며, 학생 수는 1,847,939명에 이른다. 경기도 교육청 내 교직원수는 169,000여명으로, 이들의 구성을 보면 교사 111,400명, 공무원 12,500명이고 비정규직은 교육실무직원 35,484명, 기간제교사 14,809명 등 5만 293명에 이른다.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누구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고유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사들이 가입하는 교직원 단체보험인 ‘맞춤형복지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매우 중대한 차별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교에는 행정실무사, 급식조리원, 특수교육보조원, 상담사, 사서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들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 다양한 행사와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비인격적 대우로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5년에 1.3배였던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2000년에는 16.8배로 급증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생 만 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도 서울시 전체는 약 15명, 서울 강남지역은 25명으로



나타나, 채 10명이 안 되는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 걸쳐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고,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도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경근 외, 2008)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의 학교당 학생수, 기초학력미달비율, 학업중단율, 도서구입비율, 사교육비 등을 비교하면 지역간, 학교간, 지역내 학교간의 교육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문제점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은 불평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학생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과 건강한 직업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 현장에는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부족과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부재,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순지원인력으로 인식하는 문제, 인건비 및 고용문제를 예산절감차원으로 접근하는 태도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비해 노동인권 관련 교육기획 및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교원단체는 교육국에서, 공무원단체는 총무과에서, 비정규직단체는 기획조정실 외 몇 개 부서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각 직렬 및 직종 간의 갈등 조정의 한계와 정책의제 협의의 단절로 효율적인 노사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격차는 주로 가정적, 사회구조적 원인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계층별로 상이하게 표출되는 교육문화와 전략을 통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육격차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²⁾ 교육격차로 인한 폐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부서가 없다. 총괄 부서의 부재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적시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한시적, 지엽적인 문제 해결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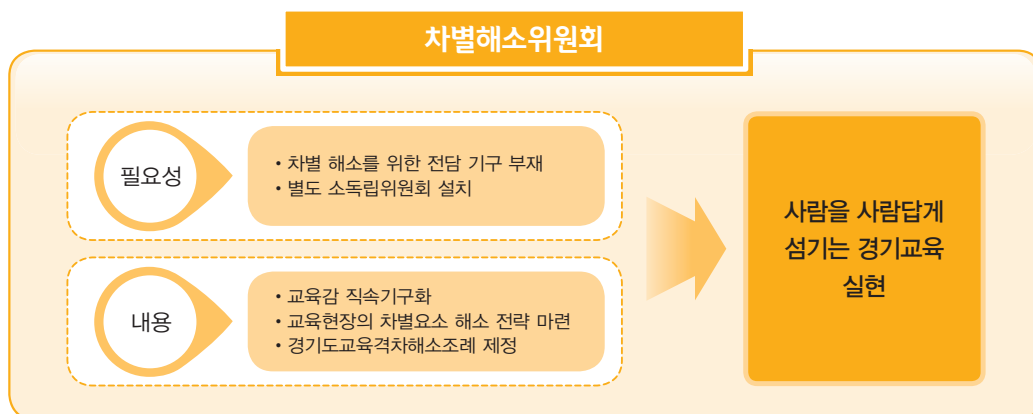
2) 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유발요인, 실태, 그리고 해소방안에 대한 통합적 고찰(김경근 외, 2008)

2 정책 방향

- 사람을 사람답게 섬기는 경기교육 토대 마련
- 잘못된 제도, 인식,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공동체의 교육차별 해소에 기여
- 교육주체간의 차별과 격차의 해소,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조직개편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로 비정규직 최소화
- 다문화, 장애,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의 평등한 교육문화 정착
- 학교구성원간의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3 정책과제 추진 계획

정책과제 5-1 차별해소위원회 설치와 운영



차별해소위원회 설치, 운영

- 위상 : 교육감 직속기구
- 구성
 - 위원장, 간사 외 노동전문가, 학업성취 격차 전문가, 다문화 전문가, 시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노동소위원회, 교육격차 소위원회, 다문화 소위원회, 시설 격차 소위원회 운영

● 역할

-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별 해소 방안 마련
- 교육주체간의 차별,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노력
- 차별관련 체계적인 실태 파악 및 진단 등을 통해 단·중기 대책 수립
- 교육격차해소관련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협의회 실시
- 인권친화적인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지원

정책과제 5-2 지역별, 학교별 교육(환경)격차 해소 추진

❖ 지역별, 학교별 교육(환경)격차 해소 추진

-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격차 해소
 - 노후도 등급에서 ‘가’ 등급이 많은 지역·학교에 예산 투입(농촌 지역 우선)
 - 22개 단위 사업 중 화장실 개선 및 쾌적한 수업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에 우선
-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간 격차 완화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마련
 - 대상 : 비평준화 지역에 선호도가 낮은 학교
 - 선정 기준 : 고입 선발 결과,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등 객관적 기준 검토
 - 방법 : 학급당 25명으로 조정, 정원미달·자퇴학생 발생 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교육격차 실태 조사 연구용역 발주 및 중장기 대책 마련

- 교육격차 해소 기준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1년 단위 정기 조사 실시하여 대책 마련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 경기도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경기교육격차 해소 업무 총괄 담당부서 지정
-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차별을 포함하는 각종 법령의 정비
- 다양한 형태의 무상교육의 접근기회를 동등하게 이용할 최소한의 기준 마련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와 협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노력 추진

- 시 · 군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 사용 내용을 파악하여 예산지원이 부족한 시 · 군에 경기도교육청 예산 차등 배정
- 각 시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와 공정한 집행을 위해 경기도청 · 경기도의 회와 협의 추진

❖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유관기관과의 통합지원 체제 구축

- 지역유관기관(경기도청, 지자체, 경찰서, 하나원, 지역아동센터 등)과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
- 각 기관의 교육복지 관련 예산,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

❖ 학교 내 사회복지사 단계적 확대 배치

- 교육복지관련 담당부서의 사회복지사 활용도 실태 분석 및 효과성 검토
- 사회복지사 배치가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배치 방안 마련
- 사회복지사 역할 : 소외계층 상담,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구축, 청소년 자원복지 학교 운영 등

정책과제 5-3 특수교육종합지원방안 마련

❖ 특수교육 정책협의회 구성

-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전문가(15인 내외)로 구성된 상설 정책 협의기구 마련
- 정책 제안, 모니터링, 현장 반응 피드백 등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 특수학교 단계적 신설 검토

- 목적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특수학급에 편중된 배치율 해소
- 특수학교 시설개선 및 학급 증설 추진
-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감 및 수요예측을 고려하여 단계적 신설 검토

❖ 중도 정서·행동 문제 조기 개입 및 지속적 중재

- 의사, 심리전문가, 교수, 교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학부모 등 특수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
- 과잉행동 중재지원팀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검토
- 과잉행동장애 가족지원 회복프로그램 운영
- 중도 정서·행동장애 지도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 학부모·학생 상담 비용의 일부 지원

❖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의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추가 배치 검토
 - 관할 지역 장애학생 직업준비 프로그램 연중 운영 및 추수지도 관리
- 직무위탁교육 시범운영 및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위탁교육 후 취업 연계방안 마련
 - 지역사회 연계 중증장애인 학교 내 일자리사업 대상 확대 방안 마련
 - 바리스타 카페 컨설팅 지원 강화 및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정책과제 5-4 다문화 및 탈북학생 지원 방안 마련

❖ 다문화 학생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 체제 구축

- 다문화 학생의 가정 여건에 맞는 지원
 - 경기도내 정확한 수요조사 및 현황 파악
 - 중도입국자녀,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부진아, 방과후 교육 등 보육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
 - 교육기부자, 예비교대·사대생,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1:1 맞춤형 멘토 제공
- 다문화 가정 학생의 소득수준과 적응 정도에 따라 지원하고 획일적 지원 차단
- 교과학습 위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개인별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예체능교육, 심리정서프로그램,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체계화
 - 일반학교에 편입하는 중도입국자녀 학교 조기 적응 지원
 - 다문화가정자녀의 열등감 해소 및 한국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
- 다문화언어교육 확대와 강사 관리 방안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언어강사 단계적으로 확대
 - 지역 거점학교 혹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치하여 여러 학교 순회 지원
 - 다문화언어강사 양성 확대 및 질 관리를 위해 재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강사요원 지원
- 일반학생,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강화
 - 일반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 연수 추진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 교육청과 학교, 다문화 학부모(학생)간 상호 지원 및 협조 체제 구축
 - 일반학생과 학부모 대상 체계적인 수요자 중심의 연수 실시
- 다문화가정 학생 직업교육 내실화
 - 다문화 학생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
 - 다문화 고등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 위탁교육(바리스타, 요리, 미용,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등)
 -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인프라 구축

❖ 교육청 내 탈북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다문화와 분리하여서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담당창구 신설 검토
- 탈북학생의 진로·직업, 정서 안정을 위한 인력지원 등 공교육 적응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도청과 하나원, 경찰서, 지역 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서 공교육 이탈을 막기 위한 대응책 강구



정책과제 5-5 차별해소 노동인권 보호

❖ 기간제 교사 차별해소를 위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교육수요에 맞는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관련 연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 기간제 교사에게 불리한 업무분장과 불공평한 수업시수 배정 사례 금지
- 경험과 책무성, 업무능력, 학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담임 배정
-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 지급

• 기간제 교사들이 느끼는 차별이나 박탈감 해소와 후생복지 차원에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배정

(적용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적용기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중 지급 기준일 현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자 (동일 전임경력 합산)

[국가인권위원회]

- 맞춤형복지 교과를 전담하거나 담임 업무를 맡은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2012년)
-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매우 중대한 차별이라고 판단(2014년)

❖ 교육실무직원 급여현실화, 호봉제 단계적 추진

- 장기근속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지급기준 현실화

개선 전(2014.07.)	개선 후
- 기본 급여 : 근무일수별 연봉제 - 처우개선수당 : 6개 항목으로 별도 지급	- 연봉제 임금체계 폐지 - 근로체계를 단순화한 월급제로 전환



- 교육실무직원의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마련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폐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호봉제 도입 이전 중간 단계로 월급제 도입 시 방학 중 생계대책 방안 마련 검토
- 노동인권의 최소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제 실시(경기도·도의회와 협의) 및 학교실무직원 각종 수당 수준의 적정 개선

- 직무 및 급여에 관한 합리적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해 임금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용역 실시

※ 「20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발표」(교육부, 2014.01.)

- '14년부터 근무 연수 3년 이상 교육실무직원에게 1년마다 월 2만원씩 인상
- '14년부터 상한액 19만원에서 '18년에는 39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 타 시·도 교육청 현황

- 교육부 장기근무가산금 인상(안)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교육부(안)을 기준으로 월급제를 시행하고 방학 중 비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
미지급

❖ 혁신학교 · 혁신교육지구외 기타 정책사업 전담인력 고용안정 추진

- 전담인력의 고용안정, 학교실무직원 간의 불평등 해소
 - 단시간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 강사직군의 개별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수당현실화 등 처우개선 방안 마련 추진
 - 구육성회 직원의 호봉제 상한제 폐지 및 공무원 9급 임금체계 적용 추진
 - 지방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대체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수준의 수당 지급
및 처우개선추진
- 교육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소외 받지 않는 정책 추진
 - 교육실무직원 적정 인원 확보 추진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 위탁 외주화 제한 및 직고용 추진
 -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및 처우개선 동일 적용 안 마련

❖ '교육실무직원' 명칭 변경 추진

- '교육공무직'으로 변경
- 교육실무직원의 소속감 및 안정감 도모를 위해 조례 정비를 통한 명칭 변경
- 시·도 교육청의 명칭 통일을 통한 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



❖ 교육실무직원 교육공무직 조례 추진

-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 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2.09)
 - 교육실무직원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교육감임을 명시
 - 인력관리와 고용안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채용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 제정(2013.05)
 - 교육장 채용 직종의 전보 및 교류 실시
 -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구분		해당 시도교육청	비고
조례 제정	교육공무직	강원, 울산, 광주, 제주	
	기타명칭	서울, 충북, 충남, 경남, 대구, 전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제 직원, 비정규직 근로자
조례 미제정		부산, 인천, 대전, 전남, 경북, 세종	

❖ 노동관련 정책의제를 종합적 조정할 담당 부서 운영

- 필요성
 - 노동관련 단체의 정책 의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 교육실무직원 담당이 별도로 존재하나 실질적 비정규직 관련 업무는 해당사업 부서에서 처리함으로 인해 노동인권 사각지대 발생
- ‘노동인권팀’ 신설로 역할과 책임성 강화
 - 교사·공무원·비정규직 등 노동관련 단체의 정책 의제 조정
 - 일관성있는 비정규직 관련 정책 계획 수립, 추진
 - 학교현장의 차별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교육정책에 반영
 - 교육현장 구성원 대상 노동인권 교육 실시

정책과제 5-6 차별과 소외 없는 학교문화 실현

❖ 차별과 소외 없는 학교공동체 구현

- 학교 내 교직원 및 업무관련 종사자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일 권장
- 교육실무직원 등이 학교운영에 소외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교직원 회의 운영
- 적정 근무 및 휴게 공간 확보, 의사소통 방식 개선, 졸업앨범 등재 등 노동인권 문화 조성
- 교육실무직원 대상 자기계발 기회보장, 직무교육 연수 실시
- 교육실무직원에게 적정 사무기기 제공
- 산업안전을 위한 매뉴얼 도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추진
- 각급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적정 휴게시간 보장 등)
-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적정 배치기준 마련 추진

❖ 불필요한 관행과 의전문화 근절

- 외부 손님 및 교육청 직원, 교육감 방문 시 구태의연한 의전문화 근절
- 플랭카드(상급학교 진학, 교육감 방문 등에 대한) 금지
- 불필요한 전시성, 일회성 손님접대 방식 개선
- 인사전보 시 축하화분 근절
- 학부모의 교직원 대상 식사 제공 금지

❖ 민주적 공동체 의식 강화 방안 마련

-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및 파트너십 교육 실시
- 교장, 교감,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교육 시 노동인권 및 교육현장 차별시정 모범사례 교육 정례화)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기관장 다면평가 실시, 청렴평가 참여 보장
- 학교 단위에서 학교 민주주의에 관련된 연수를 관리자 의무 참석
- 비정규직, 교사, 지방공무원이 함께 하는 연수 실시



❖ 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 간 상호 민주적 관계와 소통 강화

- 과도한 수행문화 근절
- 교육청 행사, 학교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의전 기준 마련
- 일방적 전달 연수를 지양하고 상호 토론 및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시 25개 교육청 담당자 의견 수렴, 학교현장 모니터링 강화

정책과제 5-7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포함
- 부패와 비리 외의 규정 위반 사항 제보 시에도 공익 제보자 보호 및 구제 포함
-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제보내용 누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부패·비리와 동일 적용
-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누설 시 관련자 엄중 징계 처리하며, 징계처분을 추진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에 대한 사항도 반드시 징계하는 내용 포함

❖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구제 및 지원책 구체화

- 공익제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립학교로의 특별채용 등 구체적인 교원보호 조치
- 공익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승진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시민단체 추천 변호사 지원을 통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지원

정책과제 5-8 사립학교 평가 시스템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 사립학교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확대

- 사립학교 평가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 검토
-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
 - 사학업무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50%이상 참여
 - 사학기관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 검토

❖ 사립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 마련

- 민원 및 감사 등에 의해 비위사실이 적발된 사학기관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위탁을 위한 사립학교법 근거 마련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사학업무 및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을 사학지원과에 배치 검토
- 사학기관 평가 결과와 연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인센티브 부여)
-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과 사학 기관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학기관 ‘의무공개 사항’의 실질적 홈페이지 공개 적극 권장
- 각종 사업 집행 전 ‘사업집행계획서’와 ‘경쟁입찰 근거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수의 계약으로 인한 비리 예방
- 법인재산 정기점검 시스템을 통해 비위발생 사전 예방 및 지도·감독 강화
- 회계부정 등 감사지적 사항의 내부구성원(학교운영위원회, 이사회) 통보, 이사회 소집 사실 홈페이지에 공개
- 사립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일반채용) 규모의 단계적 축소 검토

❖ 사립학교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 교원인사위원회 관련 T/F 구성 운영
 -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전수 조사 및 분석 검토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준칙 마련
- 교원 신규 채용의 체계적 관리 방안
 - 공개전형 절차 준수
 - 불법적인 신규채용(기간제교원 포함)시 단계별 조치 방안 마련
- 부당 징계 근절 방안 마련
- 교장 직무대리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여 처리토록 정관 개정하도록 지침 마련
-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교권보호조례에 포함
-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에 대한 근거를 교권보호조례에 포함하며, 적극 추진



정책과제 5-9 조사 및 감사 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제고

❖ 시민감사관 운영 제도 개선

-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감사관 활동 권한의 명문화
 - 현행 청렴옴브즈퍼슨을 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 검토
 - 가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 인원 확대 및 상임 시민감사관 도입 등 구성 방법의 개선
 - 상임 시민감사관과 비상임 시민감사관으로 구성
 - 분야별(변호사, 인권, 시설 설비 및 건축, 교육, 회계, 민주적 학교 운영 등)로 공개모집 또는 추천에 의해 교육감 위촉
- 시민감사관의 권한 강화
 - 보수 및 수당 지급의 현실화하여 책임감 고취
 - 감사관실의 조사·감사·징계 현황을 상시적으로 시민감사관과 공유
 - 조사·감사에 대한 독립적 지위 보장, 교육감 직속 보고 및 해결 시스템 구축

❖ 감사시스템 개선

- 교차 감사제도 도입
 -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 간 교차 감사
 -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간 교차 감사(서울, 경기, 인천 간)
 - 시민(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포함), 교사, 교육청 직원 등으로 구성
- 운동부, 현장체험학습, 기간제교사 관련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 위원회 설치
 -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한 지속적인 활동
 - 지자체와 연계한 스포츠클럽 형태로 엘리트 중심의 학교 체육 탈피
 - 상급학교 진학 및 선발, 대입 제도와 연결되는 문제점 해결
 - 운동 관련 단체들의 이권 개입 문제 해결 등
- 공직비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감사관 조직 재편성 검토

정책과제 5-10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

- 일상생활 속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요소 개선
- 행사와 체험학습 중심교육에서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대규모 일회성 행사 위주에서 교사학습공동체, 학교단위, 교육지원청 단위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으로 전환
-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 마련
- 반편견, 상호이해 중심의 다문화교육 강조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통일보다는 ‘안보와 반복한 반공 의식’만이 강조된 기존 통일교육 내용 검토
- 학교에 파견한 통일교육 강사와 교육 내용의 수준 검토
- 민관 거버넌스(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등)를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현장교사의 집담회 추진
- ‘적극적 평화교육’ 내용 일반화 방안 수립
-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교과서에 평화통일교육 요소 보완
- 경기도와 평양에 있는 학교 간 자매결연으로 학생 상호 방문 기회 마련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적극적 협조와 연계하여 노동인권 교육 강화
 -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의 관련 기관과 학교와의 협력프로그램 마련 추진
- 노동인권교육 교재 재구조화(13년 도교육청 개발 자료 보완)
- 노동인권교육 직무 연수 개설
- 학생 노동인권 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적용 방안 마련
-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해 기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에 삽입하여 일반화 정도 제고



학교민주주의 지표 및 지수 개발

- 민주주의 관련 지수 선행연구 분석
- 각 급별 학교에서 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행동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여 학교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학교민주주의 지표’ 제시
- 학교민주주의의 수준을 수시로 점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별 학교의 민주주의 컨설팅을 통한 민주주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 학교 민주주의 지수 2014년 하반기 개발 추진



과제 6 : 단원고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 계획]

인수위원회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세월호 참사로 인한 임시 휴교 후 3학년은 4월 24일, 1학년은 4월 28일에 등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학년 생존학생들은 학부모 동행으로 4월 30일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회복 및 가정·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6월 25일 학교로 복귀하여 교과와 치유프로그램을 병행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결원 교직원은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하였고, 2학년의 경우 10학급 기준으로 교사 수를 확보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생존학생들의 심리치유와 안정을 위하여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재배치하였고, 심리치유를 위한 일대일 지원으로 학생들의 정서 및 심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교사의 피로감 감소 및 업무경감을 위하여 교사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인력도 추가 배치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1, 3학년은 진로진학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2학년은 돌봄까지 포함된 개인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생존학생과 재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하계방학 중에도 학년별 프로그램은 지속되며, 치유와 상담, 단원고 교육발전, 교육복지지원, 추모사업, 교육공동체 구축 등을 위한 세부계획도 추진 중이며, 국가차원에서도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논의되는 등, 안산교육 회복 및 안정화를 위하여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기관 등을 통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문제점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학교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생존학생 및 재학생이 표면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보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스 장애'로 인한 잠재된 심리적 불안감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둘째,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들의 단원고 진학 비희망, 교사들의 단원고 근무 비선호,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우려깊은 시각 등으로 단원고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유가족, 생존학생 및 재학생,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

넷째, 단원고 회복에 대한 학교 안팎의 관심은 높으나 학교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각 주체와 소통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단원고 회복지원 방향

●● 안산교육 회복의 중심은 단원고입니다.

단원고 교육공동체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듯이, 좋은 지원안도 구성원과 조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성원 중심의 자생적 회복 방안들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낮은 자세로 교육공동체와 소통하여 장밋빛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장중심의 실천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생각을 키우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정답을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해답을 스스로 만드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월호’하면 떠오르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명령과 복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우리 사회와 교육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실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학생’ 이미지와 세월호 속에서 ‘가만히 있는 학생’ 이미지는 너무 닮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가 해답을 찾아가는 교육

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관례라는 미명으로 간과되는 수많은 작은 징후를 포착하는 감수성 높은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중심으로, 행정 이 아닌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성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하나의 사건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로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은 세월호 참사가 점차 잊혀지는 것을 매우 불안해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잊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하나의 사건이 아닌 희생과 피해를 입은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재난의 희생자, 사회시스템의 피해자라고 포괄적으로만 말하기엔 너무도 다양한 삶의 모습과 숨결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건 속 한사람, 한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을 향한 애도의 마음으로 추모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회복지원 방향 6-1 치유와 상담

❖ 추진방향

-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의 심리안정과 회복을 위한 치유와 상담 지원
- 위기극복 과정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삶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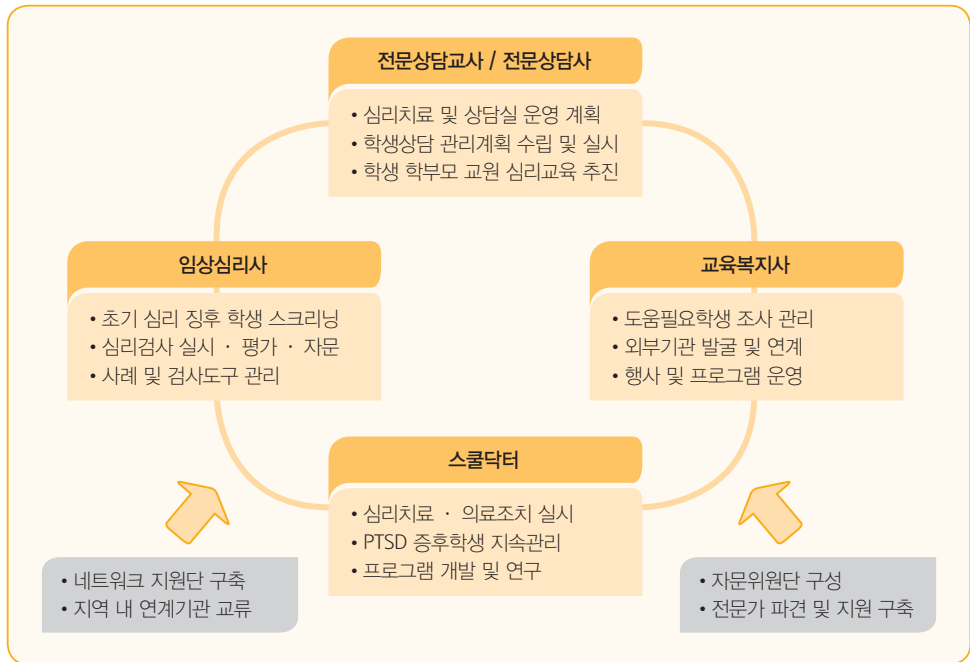
❖ 세부사업

- 상담 및 치유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칠곡경북대병원과 MOU체결을 통한 스쿨닥터와 임상심리사 채용(국내최초)
 - 각 학년별 전문상담 교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배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경기도교육청 Wee클래스로 지정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전용 상담실 운영
- 일원화된 전문가 팀 구성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치유와 상담활동

- 2학년 및 희생학생 형제 · 자매 일대일 상담 관리
 - 생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 2학년 학생 전체를 전문상담교사와 일대일 연결하여 상담 관리
 - 타 학교에 재학 중인 희생학생 형제 · 자매를 위한 연계 지도
- 1학년, 3학년 대상 심리교육
 - 학년별 전담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사 배정하여 학급별 심리 교육 실시
 - 전문의 검사 결과 관심군 및 담임교사 의뢰 학생 상담 실시
- 교직원 심리치유 및 정기 건강검진 지원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학부모 심리치유 지원
- 졸업 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수지도

회복지원 방향 6-2 단원고 교육비전과 발전

추진방향

- 단원고 구성원 중심의 자생적 회복방안들이 마련되도록 지원
- 생각을 키우게 하여 학생이 해답을 스스로 만들도록 교육

세부사업

- **미래지향적인 혁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 지원**
 - 혁신학교 지정 운영
 - 위기 극복과정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위기 극복 연구학교 지정
 - 스마트교육 기반 시설 확충 및 STEAM 교육 지원
 - 재학생 멘토링, 진로코칭 등을 통한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과정 운영
 - 우수 교사 유치 및 교사 연구 활동 지원
 - 희생학생 형제·자매 진로진학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치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
 - 학교인근의 야산 일부를 건물 신축부지로 매입하여 활용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
 - 환경개선 : 학교건물 내·외벽 도색, 교실, 학생 휴게실, 화장실, 보건실, 교사 휴게공간, 방송실, 급식실, 특별교실, 학생매점
 - 교사(校舍)증축 : 특수학급교실,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Wee-Class, 운동장 잔디구장 및 탄성트랙 구축
 - 교사(校舍)신축 : 도서관, 체육관, 학생동아리실, 교사연구실
 - 기자재 현대화 : 급식기자재 교체, 교과관련 기자재 확충
 - 친환경 산책로 및 체력 공간 조성으로 학교-지역사회 힐링 공간 구축
 - 학교 내·외곽 안전 시스템 구축
- **회복과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 교육경비(수업료, 교과서, 방과후학교비, 교복 및 체육복비, 급식비 등) 지원
 - 단원고 재학생 해외체험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족 돌봄(가사 도움), 보호(위험군)필요 학생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지원



회복지원 방향 6-3 기억과 추모

❖ 추진방향

- 사건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로 장기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보존
- 추모사업이 우리의 현재 삶의 공간 속에 구체화되도록 전개

❖ 세부사업

-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 수학여행관련 진상을 규명한 종합보고서 작성
 - 투명한 학교 경영 및 학교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장학재단 운영**
 - 희생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는 취지를 살려 장학재단 운영
 - 희생 학생 및 교원 개개인의 꿈과 이상을 계승할 수 있도록 꿈나무 선발
- **개개인의 약전(略傳) 만들기**
 - 개인별 자서전 편찬 및 보관
 - 가족, 친지, 선생님, 지인들이 소장하고 편지나 애도의 글, 증언, 사진 등 자료
- **기록물 보관 및 추모공간 구축**
 - 추모공간을 구축하여 세월호 관련 각종 자료수집 및 기록물 보관
 - 희생자 한 명 한 명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
 - 희생자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의 자료 수집, 영상, 문자 등 탑재
- **추모공원(단원 숲) 조성**
 -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붙인 나무를 가꾸어 단원 숲 조성
 - 나무의 성장과 함께 희생의 가치가 승화되도록 자연 숲 가꾸기 사업 전개
- **추모사업 전개**
 - 정기적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업 전개
 - (가칭) ‘Remember 4·16’ 추도식
 - 매년 4월 16일 지역사회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추모 프로그램
 - 추모시 낭송, 추모 그림 그리기, 추모공연 등

- 희생자 꿈 찾아 실현하기
 - 희생된 학생들의 꿈을 찾아 대신 실현하는 작업
 - 예) ○○○화백의 아이들 초상화 그리기, ○○○전시회
- (가칭)세월호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세계청소년 비엔날레 개최 예정

회복지원 방향 6-4 안산교육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축

❖ 추진방향

- 마을과 학교가 교육적으로 어우러지는 마을교육공동체 학교 만들기 구현
-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공동체 속에서 실현

❖ 세부사업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가칭)안산교육포럼과의 연계 협력
 - 주요 의제를 ‘단원고 치유와 안산교육 회복’으로 설정(안)
 - 지역 자원의 자발적 참여 확대
 -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구축
 -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및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힐링센터 운영 등
-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프로그램
 - 안산의 특수성을 넘어 다른 지역과 다른 학교에도 적용 가능한 일반화 모델 구안
 - 징검다리 공간 역할
 -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회적 공간으로 존재
 - 이웃이며 확장된 배움터의 의미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
 - 회복력 강화 역할
 - 이웃과 함께 치유하고 마을에서 회복
 - ‘가족’의 확장으로 공동의 목적을 지니고 지속적인 유대 관계 유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구상(안)
 - 생존 학생 예체능 활동 지원 : 지식재능 기부자와 연결
 -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운영
 - 단원고 중심 마을축제 개최
 - 휴먼라이브러리(사람책) - 이웃 주민들의 삶 및 경험 나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조직 운영**
 - 치유와 회복을 통한 안산교육 정상화 지원
 - 치유와 회복지원팀, 교육가족 지원팀, 소통협력 지원팀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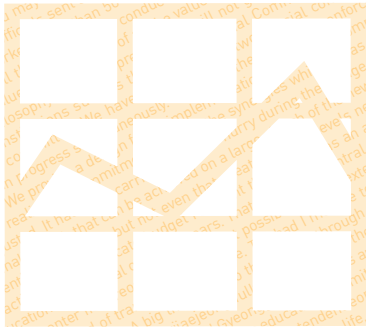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예비비 집행내역

교육감이 먼저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대화를 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손을 내밀겠습니다. 교육감이 아니라 그저 다른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취임을 맞아 경기도민께 드리는 글> 중에서



08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예비비 집행내역

08



관련 ●●●

- 2014. 5. 30.(금) 제1차 예비비(15,000천원) 사용결정 승인
 - 인수위원회 사무실 설치비
-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2(2014.6.16.)호
 - 「인수위원회 예비비 사용결정 승인 신청」
-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8670(2014.6.23.)호
 - 제2차 예비비(135,430천원) 사용결정 승인
 - 1, 2차 예비비 총합계 150,430천원

II 예비비 편성 내역

• 총괄

(단위 : 천원)

지원항목	제1차 승인액[A]	제2차 승인액		합계 [A+B]	비고
		내용	소요액[B]		
1. 인수위원회 사무실 설치	15,000	• 시설 설비 지원	3,000	18,000	
2. 인수위원회 위원		• 참석수당, 여비, 급량비 등 지원	76,000	76,000	
3.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 여비, 급량비 등 지원	14,430	14,430	
4. 인수위원회 사무직원		• 참석수당(외부직원), 여비, 급량비 등 지원	40,000	40,000	
5. 인수위원회 차량		• 유류비 지원(도교육청 차량 2대 지원)	2,000	2,000	
합계	15,000		135,430	150,430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지원항목	세부지원항목	제1차 승인액[A]	제2차 승인액		합계 [A+B]	비고
			산출기초	소요액[B]		
인수위원회 사무실 설치비	가구임차	4,506				
	사무기기	3,894				
	전화설치	1,000				
	시설설비	0	3,000,000원×1식=	3,000	3,000	전기시설 등 설비
	기타경비	5,600				사무용품 등 포함
	소계	15,000		3,000	18,000	
인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00,000원×12명×50일=	60,000	60,000	1일 2시간 이상
	여비(외부 출장)		27,000원×12명×20일=	6,480	6,480	현장방문 등
	급량비		6,000원×12명×50일=	3,600	3,600	전체 및 분과 협의회
	간식비		4,000원×12명×20일=	960	960	„
	특근매식비		6,000원×12명×50일=	3,600	3,600	
	기타 경비		1,360,000원×1식=	1,360	1,360	기타일반 수용비
	소계			76,000	76,000	

지원항목	세부지원항목	제1차 승인액[A]	제2차 승인액		합계 [A+B]	비고
			산출기초	소요액[B]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여비		27,000원×39명×10일=	10,530	10,530	위원회 참석여비
	급량비		6,000원×39명×10일=	2,340	2,340	분과 협의회
	간식비		4,000원×39명×10일=	1,560	1,560	〃
	소계			14,430	14,430	
인수위원회 사무직원	참석수당 (외부 사무직원)		100,000원×6명×50일=	30,000	30,000	1일 2시간 이상
	여비 (외부 출장)		27,000원×20명×5일=	2,700	2,700	현장 방문 등
	급량비		6,000원×20명×15일=	1,800	1,800	전체 및 분과 협의회 지원
	간식비		4,000원×20명×15일=	1,200	1,200	〃
	특근매식비		6,000원×20명×15일=	1,800	1,800	
	협의회운영 기타경비		2,500,000원×1식=	2,500	2,500	인쇄비, 프랭카드 등
	소계			40,000	40,000	
인수위원회 차량 지원	유류비		500,000원×2대(업무용)×2개월=	2,000	2,000	도교육청 차량 2대 지원
합계		15,000		135,430	150,430	

III 예비비 사용 계획 ●●●

● 참석수당

- 근거 :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지급 기준 : 2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 한해 아래대상자에 대해 지급

지급대상	인원	지급기준	비고
인수위원	12명	1일 2시간 이상시 100,000원 지급	학교 소속 교직원 지급
사무직원	6명	1일 2시간 이상시 100,000원 지급	외부사무직원 대상

• 여비

- 근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급 기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준하여 지급

지급대상	지급기관	비고
인수위원, 사무직원(파견자포함)	인수위원회에서 지급	
그 외 출장자(비공무원)	인수위원회에서 지급	
그 외 출장자(공무원)	소속기관에서 지급	

• 급량비 등

- 지급 기준 : 계획에 의거한 회의, 워크숍 개최시 집행 가능(단, 상시회의 제외)
- 지급 방법 : 회의 등 계획에 대해 운영지원담당 사무관 협조 후 인수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 결재시 집행

• 초과근무 관리

- 관리 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무직원(파견자) 및 출장자(운영지원)
- 관리 방법 :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은 운영지원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
- 처리 방법 : 소속부서로 초과근무 결과 통보



Ⅳ 예비비 비목별 집행내역 ●●●

[단위 : 원]

목[비목]	배부액	세부항목	집행액	잔액
210[운영비]	130,720,000	운영수당	58,460,000	23,480,960
		급량비	9,481,190	
		특근매식비	2,912,220	
		일반수용비	35,811,710	
		유류비	573,920	
		소계[운영비]	107,239,040	
220[여비]	19,710,000	여비	10,992,400	8,717,600
		소계[여비]	10,992,400	
합계		150,430,000	118,231,440	32,198,560

● 인수위원회 참여 게시판 운영 현황

- 운영 기간 : 6.19(목) ~ 7월 10일(목)
- 게시물 건수 : 1,537건 (2014.7.10. 24:00기준)

분과	건수	비고
단원고대책 특별위원회	22	별도 게시판 운영
소개	22	
차별해소 특별위원회	578	• 병설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94건 (수익자부담금 등 행정처리의 어려움, 방과후 교사 배치요청, 유치원 평가 방법 개선 요청) • 보건교사 처우 개선 59건 (과대학급 보건교사 증원, 성과급 차별 해소, 업무과중) • 행정실무사 처우개선 55건 (교원업무경감 등으로 업무과중, 호봉제가 아니며 20년이 되어도 동일 급여로 사기저해) • 전문상담교사 처우개선 52건 (처우의 불평등 해소, 전문상담교사 인사제도 개선 요청) • 시설관리직렬 처우개선 47건 (교육행정직과 평등한 직급비율 조정, 전직의 기회 제공) • 교육행정직 처우개선 45건 (교원업무경감, 행정실무사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 역차별) • 병설유치원 방과후보조원 처우개선 40건 (급여 및 수당, 계약기간 등) • 구육성회 직원 처우개선 17건 외 (호봉제한 폐지, 본봉 상향 조정, 학교별 정원 조정 요청)
민생분과	137	• 모가중 야구부 민원 52건 (학부모와 협의 없이 학교장 독단으로 야구부 해체 추진) • 광교마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추가 건립 요청 31건 • 특수교육 민원 7건 (특수교육 지원방향을 기존 재정지원 중심에서 생태적 관점으로 업그레이드, 발달 장애아 위한 지원 센터건립, 혁신학교에 발달 장애아 정원을 5~10% 할당) • 학교 안전관리 7건 외 (학교 시설 안전 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분과	건수	비고
교권분과	26	• 성교육 관련 제안 11건 외 (‘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생명과 책임의 성교육’학교 성교육에 도입)
혁신분과	216	• 청심국제중학교 선발 규정(추첨제) 변경 반대 170건 • 혁신학교 관련 6건 (혁신학교 확대, 효과적 운영 요청 등) • 고교평준화 관련 민원 3건 외 (용인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교 부족 및 배정문제, 통학문제 등 대책 마련)
제도분과	558	• 특수교사 증원 요청 154건 • 교원 인사 관련 38건 (초등 교원 승진 규정 관련, 성과급 제도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타시도 교류 요청, 교원 인사제도 개선) • 전문상담사 증원 요청 54건 • 보건교사 인사 관련 28건 (적정 학급수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교육지원청 보건장학사 배치, 성과급 공정히 평정) • 지방공무원 인사 28건 (7.1일자 정기인사 지연 반대) • 사서교사 증원 요청 12건 교원업무경감 관련 12건 외
소계	1,515	
합계	1,537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우리는 지금 새 역사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 빛나는 무지개의 꿈을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펼쳐 일어섭시다.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께 영광의 내일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힘차게 문을 열고 출발합시다.

<취임을 맞아 경기도민께 드리는 글> 중에서



09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인수위원회 참여게시판에 올라온 글 모음>

09

 01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이고 노력하는 교사가 아름답습니다.

조○○ • 2014-07-10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배움중심수업 우수 교사 인증제를 중심으로 초등 교사 승진 제도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 내용이 인수위원님들과 교육감님께서 행복경기교육을 디자인하시는데 꼭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1 배움중심수업 우수 교사 인증제란 무엇인가?

배움중심수업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수업방식입니다. 배움중심수업은 교사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갖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높은 학생대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낮은 학생대로 친구들과의 협동과 토의를 통해 자신만의 배움이 일어나



게 하는 수업방식으로 모든 학생의 행복과 배움을 지향하는 수업방식입니다. 학생간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간 따뜻한 협력을 통해 과제를 완수하게 하는 학생중심 교육방법으로 교사를 통한 학생들의 배움만을 의미하지 않고, 학생 자신 스스로의 배움, 학생과 학생 사이의 배움, 학생과 교사 사이의 배움 등 배움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가치있게 여깁니다.

배움중심수업 우수 교사 인증제는 배움중심수업을 지향하며 대회 참가를 희망한 교사들의 보고서 평가 + 수업 평가 + 학교 현장에서 실사(현장실사는 2010년 이후 없어지고 보고서 평가와 수업실연만으로 우수 교사를 선정함)라는 치밀한 과정을 통해 배움중심수업 우수 교사를 선정하고 입상 교사들에게 경기도교육감 선택가산점을 부여했던 대회를 의미합니다.

2 노력하는 교사가 아름답습니다

배움중심수업 우수 교사 인증제 경기도교육감 선택가산점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쉽게 떨어진 가산점이 아닙니다. 이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갖고, 친구들과의 협동과 토의를 통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배움중심수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업과 관련된 전문서적 탐독 + 학급 및 학생 실태 분석 + 연간 지도 방안 수립 + 학교 내에서 3회 이상의 수업 공개 + 현장 방문 평가(현장방문평가는 2010년 이후 없어지고 보고서 평가와 수업실연만으로 우수 교사를 선정함) + 배움중심수업보고서 제출 + 평가 위원님들 앞에서 수업 실연까지 한 후 엄청난 경쟁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값진 땀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3 교사의 생명은 수업이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갖고, 친구들과의 협동과 토의를 통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배움중심수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 교사가 승진 규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교사가 승진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정 받아야 할까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에 배움중심수업을 추진한 교사를 인정하는 것이 문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배움중심수업 우수 교사가 관리자가 되면 배움중심수업을 통한 수업혁신을 이루고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입니다.

가. 이미 경기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발송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배움중심수업우수교사인증제 점수는 '13.12.31.부터 '15.12.31.까지는 상한점이 1.60이고, '19.12.31.부터 상한점이 1.00으로 0.6점이 내려가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기에 지금 다시 이 점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내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발송된 공문 내용이 인수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몇 분 선생님의 의견 때문에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 배움중심수업 우수교사 인증제 가산점은 대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경기도교육감 선택가산점으로 규정되었고, 선택가산점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배움중심수업 우수교사 인증제 점수를 공통가산점 영역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점수와 합치기를 희망하는 교사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며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배움중심수업 우수교사 인증제 경기도교육감 선택 가산점'은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시책이었던 배움중심수업 우수교사 인증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교사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인센티브였고, 이 인센티브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교사들이 배움중심수업 우수교사 인증제가 생기고 대회를 할 때 입상 교사에게는 경기도교육감 선택 가산점을 부여하며 이 점수가 승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라. 현재의 초등승진규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규정으로 장기간의 법령 점검, 여러 차례의 설문 조사 및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으며 상당한 유예기간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수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몇 분 선생님의 의견만으로 초등승진규정이 개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교육현장에 대 혼란 및 엄청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승진 규정이 유지되어야만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이 믿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시책을 신뢰하고 적극 동참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수위원님들과 교육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2 초등 승진 규정! 확실성과 미래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

김○○ • 2014-07-10

답답한 마음에 한 자 적어 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승진 규정을 2008년도에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및 지침연구, 타시도 사례연구, 설문조사, 현장실사, 공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 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하여 이를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해 왔습니다.> 앞의 글 민원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답변에서 발췌

- 1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설문조사, 현장실사였는지 궁금합니다.
- 2 설문조사, 현장실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20여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 3 전국에서 승진규정을 이렇게 제멋대로 바꾸고 없애고 심지어 없어진 대회의 점수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지역이 있습니까?
승진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심지어 현장에서는 운칠 기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교직에 임하면 언젠가는 승진하겠지라는 희망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 4 제발! 교육감님 바뀔 때마다 바뀌는 승진규정은 이제 사양합니다.

5 전문직이라는 교직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며, 타당하며,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감님과 인수위원회 위원님!

현장에서 수궁할 수 있는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학교도서관, 사서의 제 역할 찾기

김○○ • 2014-07-10

먼저 교육감이 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관리자들이 바뀔 때마다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학교장 재량이라는 벽에 갇혀 하염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불합리함을 버리고 학교도서관과 사서가 제 역할을 다하는 그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학교도서관과 신설

공문을 참고용이라고 말하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이 비전문가인 관리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게 아니라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관리 감독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학기중 벽 해체 공사, 책서틀, 자료구입비로 개인 독서대 구입, 사서의 전문성 불인정, 불필요한 복 본 강제 구입,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말하는 사서에게 입다물라거나 주제넘다 말하며, 도서관 운영에 있어 사서와 협의없이 진행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사서의 처우 개선

- 호봉제 도입 : 1년차나 10년차나 급여가 같다는 건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 급식 수당 신설 : 밥 먹는것까지 차별당하는 현실이 슬픔니다.

- 강사로 지급 : 방과후, 방학중 독서교실, 계발활동, 도서관 이용교육 등의 수업을 하면서도 근무시간 내라는 이유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신설

3 교직원으로 인정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제대로 된 직급으로 불리며 당당히 교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 시정해 주십시오. 교사가 아니라고 좋은 것은 제외되고 부릴때는 가족이라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논리를 별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인간적인 대우 받으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4 학부모들이 이런 점은 불편해 합니다.

문○○ • 2014-07-10

중고생을 둔 학부모들이 거주지 이전으로 학생을 전학할 때 불편해 하는 점이 있습니다.

평준화지역의 예로

- 중학교 전학 : 지역청 ...> 배정중학교
- 고등학교 전학 : 추첨관리교 ...> 배정고등학교

관할 문제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학군내 추첨관리교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원화 된 구조입니다.

 05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똑같은 혜택을 받는 급식이 되게 해주세요**

조○○ • 2014-07-10

똑같은 혜택을 받고 만족스러운 급식을 위해 제안합니다.

- 1 급식비에서 식품비는 도시, 농촌등 학교실정에 따라 같은 급식비를 받더라도 식품비 비율이 달라져서 똑같은 혜택을 아동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따로 분리하여 같은 혜택을 아동들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 2 현장 중심의 급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학생 인원에 따른 구분 및 2, 3식교의 급식 여건에 맞게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06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제안입니다.**

강○○ • 2014-07-10

안녕하세요~

뜨거운 기온과 높은 습도 때문에 식중독의 우려와 조리원의 안전사고 및 건강이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영양사의 업무가 광범위해져 감에 따라 신경써야 할 곳과 해야할 일이 너무 많아 '혹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매일 매일 걱정하며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건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각 학교에 공급하도록 계약 및 선정 부분까지 총괄하도록 하게 하고, 교육지원 및 홍보와 안전부분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07 보다 나은 경기 학교 급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 2014-07-10

안녕하십니까? 보다 나은 경기 학교 급식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부터 생각하였던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학교 급식 현장 중심의 급식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2, 3식 급식학교 학생들의 만족도 높고 건강한 급식을 실현해야 하는 현재 1인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급식사고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3식 급식학교의 영양교사 정원이 재조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학교 규모, 학생 수에 상관없이 학교에 1인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생당 인원으로 영양교사 정원이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조리학교도 영양교사 1명으로 관리가 힘들어 비조리교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배식하는 종사원들의 개인 위생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평생건강권 확립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을 위한 영양교육이 법적인 의무조항으로 교육과정안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도교육청 내 영양 장학사 배치 및 친환경급식과 내 식생활교육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자료 및 교구가 많이 개발되어 보다 흥미있고 유익한 수업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과중한 행정업무가 경감되었으면 합니다. 급식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혼자 처리하고 있고, 때로는 협조로 해야하는 행정업무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더 학교 급식에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일때 안타까움이 커져갑니다. 급식, 교육에 집중해서 일할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08 학교급식에 대하여 건의 합니다.

박○○ • 2014-07-10

건강한 학교급식, 성장기 아이들, 발전하는 국가를 향한 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선진 경기 학교급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안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1 학교현장 중심의 급식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2, 3식 급식학교 현재 1인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급식사고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담교사 정원도 학급당 몇명, 학급수에 따라서 학교 행정을 하는 교감선생님 숫자도 2인배치가 되고, 행정실의 인원도 학급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왜 영양교사는 학급수에 관계없이 한 학교에 1인 배치가 될까요? 학교현장 중심의 급식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2 평생건강권 확립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을 위한 영양교육이 법적인 의무조항으로 교육과정안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3 안전한 식재료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4 행복한 학교급식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영양교사 배치교가 영양사 배치교보다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2012, 학교급식만족도조사, 연세대-경기도교육청), 영양교사 전면배치 확대의 제도 개선으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더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급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급식비에서 식품비비율을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는 따로 분리하여 배부되고 운영하는 예산관리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거리의 제공은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영양선생님들이 수요자 중심의 급식과 영양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중한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고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4가지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급식과 장기출장교사와 함께 안전, 건강, 교육, 행복이 보장되는 체계적인 학교급식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09 윤리부장(생활인권부장) 업무 경감 아이디어

김○○ • 2014-07-10

- 1 **문제점** : 윤리부장(생활주임, 생활인권부장)이 인권, 인성, 안전 업무 전체를 총괄
→ 일년 내내 업무 과다에 시달림, 윤리부장이 대표적인 기피 보직이 되어감
- 2 **대안** : 윤리부장 업무 중 인성(인권) 업무와 안전 업무 분리 → 윤리부장과 안전부장을 따로 둬
- 3 **기대 효과**
 - (1) 윤리부장의 합리적 업무경감 (보직 이기주의로 제언하는 말이 아님)
 - (2) 윤리부장은 인성(인권)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기대
 - (3) 학교를 아우르는 안전 문제가 너무나 많고 관련 공문, 연수, 책임 부분이 폭넓기 때문에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따로 두는 것이 학교 안전에도 더욱 효과적

10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보건, 환경을 위하여

김○○ • 2014-07-10

안녕하세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지역교육지원청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지금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일해왔다고는 하지만 아이들과 교직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일해오기는 참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업무과다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진화된 경기교육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 1~2명이 담당하다보니 사회의 발빠른 변화를 급급하게 쫓아가기 바쁘고 다양한 사회 환경에 따라 급변하고 발생하는 여러가지 업무에 대해서 습득하고 행정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 학생 건강검사, 학교 내 공기질 측정, 학교 먹는 물, 학교 석면, 황사, 매점 관리, 학교 물탱크 관리, 정비구역 내 일조권 검토, 각종 행정심판, 소송 한눈에 보셔도 위의 업무를 1~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수박겉핥기 식의 행정이 되기 쉽상이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정에 잘 적용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선진화된 경기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는 충원, 행정직 추가 배치 등 지금보다 조직력있는 조직입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은 경기교육에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발 맞추기 위해서, 아니 앞서 나가며 지휘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이 상황을 고심하고 고려하셔서 행정에 꼭 적용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의견까지 가슴깊이 들어주시리라 믿고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1 이재정 교육감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 2014-07-10

학교'급식'은 '영양(교)사'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영양(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학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처음 '학교급식'의 문을 열었던 10여 년 전보다 훨씬 전 문화되었고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급식이 단지 먹거리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상담, 알레르기 관리 등 개별 복지사업으로 까지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이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실무사 배치로 교무실이나 행정실 업무는 많이 경감되었지만 급식 업무는 다각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업무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학교영양(교)사가 해야할 일은, 1차적으로 급식은 식중독 사고없이 위생적으로 공급해야하므로 오전시간과 급식이 완료될 때까지 검수에서부터 조리, 배식까지 위생적으로 작업되고 있는지 감독해야합니다. 2차로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교육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더불어 편식교정지도, 잔반남기지 않기, 영양상담, 알레르기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요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가 과중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 사람이 속해있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급식'부서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영양(교)사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급관리자(교장·교감·행정실장)는 영양(교)사에게 업무가 얼마나 과중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여 '급식'관련 공문을 모두 영양(교)사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관련 심의사항만 해도 크게 9가지나 됩니다. 또한 급식 행정업무 보조로 배치되었던 주무관 T/O가 행정실로 넘어가면서, 행정실에서는 급식을 제외한 행정 업무만을 서로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급식관련 행정업무는 영양(교)사에게 물리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조리업무 감독 부진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요소 발생, 식생활교육 효과 저하, 급식메뉴개발 시간 부족으로 인한 급식만족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관리실무'



책자에는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잘 되어 있으나, 업무의 주체는 명시되어있지 않아 계약과 지출을 제외한 '급식'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영양(교)사에게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급식담당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적극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해결방안

1. 한 학교에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 또는 보조(행정처리가능 인력) 배치
2. 학교 재량이 아닌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영양(교)사 고유의 업무 효율 증대

● 문제점현황

- 1) '급식' 또는 '식품'관련 공문 무조건 영양(교)사에게 배분

급식실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공문이 있지만, 방학기간, 학생수 관련조사는 교무실에서, 건물 설치년도, 인력계약근거자료 등 행정실에서 처리해야하는 공문도 있음. 이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연수 실시 요망.

- 2) 우유급식운영

‘우유’자체를 급식실에서 조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양(교)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희망자조사, 업체선정, 배분을 할 수 있음.

- 3) (우유)급식비 지출·환불

급식운영을 위하여 식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품의]이며, 이후 [지출]과 [환불]은 경리관의 몫임.

행정실에서 정확한 급식식수를 모른다는 명목으로 영양(교)사에게 급식비 환불을 지시하는 학교가 있음. ‘급식미실시신청서’도 영양(교)사가 받고 전입·전출을 영양(교)사가 모두 파악하여 급식비 환불기안까지 하면, 행정실에서는 지출만 하겠다 함. 이는 영양(교)사를 행정직 주무관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급식실 식품·위생·안전관리와 급식제공’이라는 주요업무가 있음에도 ‘급식’이라고 해서 영양(교)사에게 너무 많은 업무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 품의 범위 지정

급식비 중 식품비(쌀, 공산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김치)와 운영비(위생용품 외 소모품) 품의만 영양사가 관리하도록 했으면 함. 인건비는 행정실에 인건비담당자가 따로 있으며, 급식시설비는 학교회계에서 지출되고, 물품대장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품의 요망.

5) 급식시설 지원금 정산보고

‘급식시설’예산 신청시 기기 사전조사, 신청공문발송, 물품선정위원회회의 개최, 회의록작성을 하여 영양(교)사가 물품결정 기안을 올리면 품의 · 계약 · 지출 · 정산보고를 행정실에서 처리 요망.

6) 급식시설 수리

급식시설 전반적인 사용은 영양(교)사가 알고 있으나, 기기 구조나 부품까지 다 알지는 못하므로 전적으로 영양(교)사에게 맡기지 말아야 함. 소규모 수리(학교급식법에서 정하는 무상급식비 예산안에 편성된 운영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영양(교)사가 품의, 그 외에 급식시설 · 설비 수리(학교급식법에서 정하는 학교자체예산에서 지출해야하는 건)에 대해서는 고장발생시 행정실로 보고하고 행정실과 시설관리실에서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견적 · 품의 처리 요망.

7) 급식기기 처분

물품대장에 등록된 급식기기의 ‘불용(더이상 사용하지않음)결정’기안만 영양(교)사가 하고 수리 · 매각 견적 권한은 경리관에게 있으므로 물품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시키지 말것.

8) 무상급식비 신청 · 정산보고

학적상 학생수는 고정되어있고 주어진 예산안에서 식품비와 운영비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신청과 정산을 영양(교)사가 할 필요없음. 급식일수 산정은 영양(교)사 협조로 하여 행정실에서 처리 요망.

9) 알레르기 연계관리

‘식품’관련이라는 이유로 업무 협조가 어려움. ‘건강질환자’조사시 ‘약물’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식품’알레르기도 함께 조사하고 그 명단을 받아 영양(교)사가 담임교

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원 인물질만 다른 것이지 증상발현 예방을 위한 관리는 보건교사들이 하고있는 업무 범위에 들어감. 영양(교)사는 메뉴에 함유된 식재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보를 게시·제공 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과중되어있음.

10) 정보공시(급식비 세입 지출)

에듀파인에 사용한 내역이 전부 표시되므로 굳이 영양(교)사가 할 필요가 없음. 학교예산을 관리하는 행정실에서 맡아 처리 요망.

11) 조리(실무)사 인건비 지급

영양(교)사는 급식운영을 위한 식품비, 운영비 산정을 위하여 년초에 세부지침이 아닌 시행전 교육청임의지침대로 인건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세부지침에 의한 정확한 급여계산은 행정실 인건비지급담당자가 해야 함. 또한 효율적인 급식비예산 소모를 위하여 월별로 영양(교)사에게 통보해주어야 함.

12) 조리(실무)사 급여명세서

예전에는 행정실에서 인건비지급 담당자가 조리실무사 전체의 급여명세서를 한꺼번에 출력하여 제공해주었으나, 업무가 전산화되어 개인이 나이스에 접속하여 명세서를 조회하도록 변경. 조리실무사 출장, 연가 등의 기안도 영양사가 대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실에서는 이를 영양(교)사가 조리실무사 수만큼 로그인하여 개별 출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휴게실에 PC설치 또는 인건비지급담당자가 출력하여 줄 수 있도록 명시.

13) 급식실 안전관리

급식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상, 낙상, 절상, 협착, 요통, 충돌, 골절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위험표지부착, 안전장비소모품 구매 등은 영양(교)사가 할 수 있으나 구조설비(석면조사, 근로환경의 건강장해 유발가능성 분석)와 재해발생원인 등 기록보존, 재발방지계획 등의 관리까지 영양사가 할 수 없음.

14) 조리(실무)사 근로관련 책임

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조리인력 감원결정을 영양(교)사에게 일임하지 않을 것. 중간관리자이므로 (안)제시는 가능하지만 조리(실무)사들의 의견

수렴 후 학교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또한 감원결정 후 영양(교)사가 직접 사직서작성 안내시 권고사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계약담당자가 안내할 것.

15) 가정통신문(식단표 외) 배부

교무실에 배치된 행정실무사의 도움 필요.

16) 학부모검수일정 SMS발송

영양(교)사가 명단과 연락처를 주면 교무실에 배치된 행정실무사가 처리 요망.

17) 설문조사지, 정보제공동의서 등 취합 · 통계

학급별 통계 · 취합은 담임교사가 하고, 전체취합 · 통계시 행정실무사의 보조 필요. 학급별 설문조사지 제출시 영양사가 취합받을 경우 영양관리실이 급식실 내부에 위치해 있어 급식실 오염이 될 우려가 있으며, 편의를 위하여 교무실에 제출하는 것이 나음.

18) 교사 임장지도

교실배식의 경우, 영양(교)사가 모든 학급 배식을 한꺼번에 지도하기 어려우므로 담임교사가 질서 및 배식지도를 맡아주어야 함. 식당배식의 경우 학생들 질서 지도와 잔반남기지 않기 지도가 필요함.

19) 고등 보조영양사 의무배치

하루에 급식이 2회 제공되는 학교는 하루에 2끼이므로 식단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급식서류도 중식 · 석식 각각 따로 관리 · 작성해야함. 무상급식이 적용되지 않아 급식비 지출 · 환불 등 영양사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가 과중되므로 특히 2인 근무가 요구됨. 1인 근무시 법정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없음.



 12 위기학생들 구해주세요

이○○ • 2014-07-10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입니다.

적절한 위기개입이 순회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로 인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관계 형성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구요

그러나 순회로 인해 3학교 2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과연 위기개입의 적절한 순간에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비전문가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사람으로 세 학교를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다 만나라고 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정신적인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애써주시고 자살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모든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선생님들의 순회비가 고작 교통비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게 말도 안되는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수를 들으러 갈 때 받는 출장비나 순회가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상담을 할 때 받는 순회업무수당이나 둘 다 출장비로 준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처우 같네요.

전문상담사선생님들은 교사로 기간제로 다 채용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업무에 시달리고 담당자들은 실적을 올리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순회수당은 커녕 아무런 수당조차도 받지를 못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개입하여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성과금 상여금조차 받을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비상식적인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에 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시고 아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가지고 계신 상담사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떠나서 저를 포함한 지금 있는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선생님들에게 올바른 처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지역 공동조리 공동관리교의 업무부담 해소 필요합니다.

윤○○ • 2014-07-09

농어촌 지역 공동조리교(비조리교) 3개포함 4개교의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만 이례적으로 공동조리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어느 학교는 공동조리교(비조리1교), 공동관리교 1교, 유초중 통합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신규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식예산(신청 및 정산) 등의 관리로 행정실이나 관련 선생님과 업무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공동조리교 관리에 대한 업무부담이 매우 큼니다.

비조리교의 학사일정, 현장학습 등으로 잦은 급식인원 변동사항 파악, 비조리교 급식 위생관리, 업무협의 및 협조, 본교 개교기념일에 근무(다른선생님들은 연수가 가능함) 등 영양교사 혼자 감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조리교 위생관리 점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영양교사들은 이런 학교에 배치되면 너무 힘들어 다른 곳으로 인사 이동하기만 바라게 되구요.

둘째 공동조리교의 경우 식단구성이 단독보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교급식 확대시기에는 급식이 따뜻한 한 끼 식사해결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지만, 외식의 발달로 기대만큼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이 쉽니다. 학교급식은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발전(외식과는 비교도 안되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음)이 되었지만, 식단구성 및 식사환경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겠지만, 수요자의 급식만족과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공동조리를 2개 학교 정도로 묶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4 사교육(학원, 과외)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제안

소○○ • 2014-07-09

● 평가방법이 바뀌면 교육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기존의 지식의 양에 초점을 맞춘 공부법으로 공부한 우리는 정량적 사고를 갖게 되었고, 이런 정량적 사고는 수치화, 계량화, 통계화에 익숙해져 획일적 평가를 하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장점을 존중하면서 재능을 발견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평가방법이 바뀌어 정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지식의 양에 초점을 맞춘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일부 사교육(학원, 과외)은 시험성적에 맞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식의 양에 초점을 맞춘 공부법에서 탈피 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을 정량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과, 적절한 곳에 잘 적용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활용 할 줄 아는 능력 즉, 창의력을 갖도록 하는 정성적 사고의 교육이 필요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 지식의 양에 초점을 맞춘 공부법이 아니라 자기성찰에 초점을 맞춘 공부법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외쳐도 실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교육 대체 활동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기주도학습 전형 등 교육정책들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변화하는 정책에 비례하여 사교육비의 부담은 더욱 가중 되고 있어 이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교육비 억제 정책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사교육비 억제 정책은 공교육에서 “學”과 “習”을 감당 해야 합니다. 즉, 가르쳤으면, 익히도록 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방과 후에 아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복습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복습은 자기주도 학습의 영역이지만 자기주도력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성찰 학습”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은 효율적인 예·복습만 체계적으로 철저히 하여도 기본적인 학습량으로 사교육(학원, 과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조차 부족하게 되고, 학생들은 학원 주입식 공부에서 해방되어, 즐겁고, 행복한 공부를 하면서 학습능력도 향상되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학원, 과외)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시범운영 할 것을 제안 하면서 구체적 프로세스를 첨부파일에 붙입니다.

15 교원 인사 정책(타시도 교류)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최○○ • 2014-07-09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동일한 내용을 작성해 주셨기에 각설하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담당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것이라는 말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선택을 잘했어야지 시험은 쉬운 지역으로 응시한 후, 지역 이동을 하려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인 사회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일부 그런 교사들도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일, 특히 남녀가 사랑하고 한 가정을 꾸리는 일이 수 년 또는 수십 년을 내다보며 결

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일이냐고 말입니다. 서로 지역이 다른 교사가 연이 닿아 가정을 꾸리게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런 가정은 해마다 반복되는 주말 부부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게 당연합니다.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결코 적지 않은데, 정권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었다해서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초, 중등을 막론하고 예전처럼 소폭으로라도 정기적인 인원이 경기도 내로 일방전 입 될 수 있도록 타시도 교류와 관련된 교원 인사 정책의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결국 임용고시 재응시라는 결단을 내리시는 선생님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아이들, 교사, 예비 교사 그 누구에게도 어느 하나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한 표현일 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작정 벼랑으로 내몰기보다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작은 길을 열어주신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작은 희망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과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테지만 조속히 관련 정책이 개선되어 늘 웃는 얼굴,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16 공허한 외침 에너지 절약.

한○○ • 2014-07-09

에너지 절약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을 수십장 뿌려댄들 정작 학생과 교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게 에너지 절약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천은 고사하고 통제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통제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강조할 교사가 먼저 에어컨을 찾고 교실보다 교장실, 교무실이 더 시원한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관리실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곳들도 있습니다. 이러니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죠.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설적인 면에서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 다 소프트웨어적인 면입니다. 아무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건을 갖춘다고 해도 그 규정을 지키고 실천에 옮기는건 사람입니다. 학교시설이 좋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듯이 말입니다. 더우면 덥다고 틀고 추우면 춥다고 트는건 집에서나 할 짓이지 나라 월급받는 공무원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곳은 학생을 볼모로 은행보다 시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것이 아닙니다. 교실에 많은 학생이 있다보면, 활동하다 보면 더워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상황에서는 더 그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서 학교 현장을 괴롭히시면 학교 안에는 분란만 일어납니다. 행정실에 에너지 절약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위를 참으라는 말부터 먼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공문을 보내지 마시고 행정실에 이런 저런 보고를 하도록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아무 의미없는 종이쪼가리로 에너지를 아낄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절약 교육은 행정실 담당자가 아니라 학교장과 교감, 교사가 교육감님께 직접 받아야 합니다.

17 정기인사발령 사전예고일 안내와 승진명부자 사전공개제도 실시바랍니다

김○○ • 2014-07-09

무더위에 고생많으십니다

2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 1 정기인사를 앞두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언제 발표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학교현장에서 추측 만하고 무한정 기다림에 지치고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공고하는 등 작은 배려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승진후보자 순위를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행정처리 및 자신의 순위를 예측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11월정도에 승진후보자 분포도 정도만 발표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좋은 판단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 학교의 민주화 평등화

우○○ • 2014-07-09

지금 국공립학교에는 교사와 지방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기관시설을 운영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영역이 서로 다른 두 집단입니다.

물론 두 조직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이고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업무에서 오는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차별이라고 느껴진다면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조직된 집단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목표의 달성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큰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는 한 달에 한 번 ‘교사(특기적성)동아리의 날’을 지정하여 교사들만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도 같은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소속된 조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아리에서 배제된 체 소속감 이탈현상을 느끼며 또한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특기적성)동아리의 날’로 할 것이 아니라 ‘교직원(특기적성)동아리의 날’로 개선하여 모든 직원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든 "존댓말 실험"

박○○ • 2014-07-09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따돌림(왕따, 다툼, 싸움등)신문을 보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따돌림 없는 학교라 합니다.(말 한 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네요..^^) 퍼온 글입니다.

[서울 초등학교 10여곳 '존댓말 실험'... 확 달라진 아이들]

처음엔 어색해하던 학생들 "1년 지나니 입에 착 달라붙어 학교 밖에서도 존댓말 술술"

재동초 '싸움 없는 날' 집계... 작년엔 연속 293일 기록 세워

폭력 경험 1년새 26명 → 4명

"손지민씨, 서 있지 말고 옆으로 퍼지세요." "성민겸씨, 공 던져요. 여기가 비었어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용산초등학교 4학년 5반의 체육수업. 피구게임을 하던 29명의 남녀 학생은 서로의 이름 뒤에 꼬박꼬박 '씨'자를 붙였다. 점수 차가 좁혀져 승부가 아슬아슬한 상황. 공격하던 한 학생이 금을 밟은 채 공을 던졌다. 흥분한 남학생들이 소리쳤다. "민우씨! 지금 선 넘지 않았어요?"

친구들끼리도 서로 높임말을 쓰는 풍경은 이 학교에선 일상이다. 앓된 얼굴의 초등학교생들이 서로 "○○○씨"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 폭력이 없는 날을 기록해 나가는 게시판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들끼리도 존댓말을 쓰면서부터 이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거의 사라졌다. /성형주 기자

존댓말 쓰기는 실은 지난해 윤현아(39) 선생님 반에서 '별주기'의 하나였다. "서로 욕하며 싸운 4학년 남학생 2명에게 별로 존댓말을 쓰게 했지요." 어색해하는 두 친구를 위해 반 전체가 서로를 높여 부르자고 했다. 처음에는 한 달만 해보자고 약속했다. 존댓말을 쓰면서 교실에서 욕설이 줄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부딪힌 학생들은 먼저 사과했다. '씨'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도, '~해요'라며 상대방을 높이는 것에도 차츰 익숙해졌다. 한 달이 한 학기, 한 학기가 1년이 됐다.

올해 윤 선생님이 4학년 교사를 대표하는 부장이 되면서 학년 전체로 확대됐고, 아예 5·6학년들도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들은 결국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높임말을 쓰면 목소리가 커지긴 해도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윤현아 선생님의 말이다.

친구들끼리 높임말을 쓰게 하는 초등학교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학교 폭력을 줄이자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에서 높임말 쓰기를 하는 곳이 서울에만 10여개 학교가 된다.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는 2009년부터 모든 학년에서 서로를 '님'으로 부르고, 말끝에 '요'자를 붙이고 있다. 2일 있었던 6학년 1반 학급회의의 안건은 '안전한 학교생활'이었다. 이성현(12)군이 "의자를 뒤로 빼놓으면 안 돼요"라고 하자 김아름(11)양이 맞장구를 쳤다. "성현님 말이 맞아요. 가방이 발에 걸리기도 해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똑같이 높여 부른다. 재동초는 높임말 실험을 하면서 '싸움 없는 날'을 집계하고 있다. 2012년엔 최장 141일, 2013학년에 최장 293일간 학교에서 싸움이 없었다.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력뿐 아니라 욕설이나 집단 따돌림, 말다툼이라도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0'일에서 다시 시작한다. 올해는 최근 한 학생이 반 친구를 괴롭힌 이후 현재까지 34일째 전 학년이 싸움 없는 날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2012년 26명(전교생의 14.1%)에서 지난해 4명(2.5%)으로 줄었다. 매주 수요일은 '가정 높임말 쓰는 날'로 정해 학교 담장 밖으로도 높임말 하기를 넓혀가고 있다.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임윤경(43)씨는 "아이가 집에서도 높임말로 얘기하니깐 우리도 아이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친구 사이에 친근감이 덜 느껴진다"는 반론도 물론 있다. 전교생이 경어 쓰기를 하는



서울 관악구 난곡초등학교 박인규(51) 선생님은 "'저는 그거(높임말) 쓰기 싫어요'라면서 처음 한 달간 친구들과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했다. 박 선생님은 "선생님들이 먼저 높임말을 쓰면서 술선수범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난곡초 5학년 이모(11)군은 일기장에 "동갑에게도 (높임말을) 써야 해서 짜증이 났는데 1년이 지나니까 입에 착 달라붙어서 학교 밖에서도 존댓말이 나온다"고 썼다.

선생님들은 높임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존중'이라는 낱말을 자주 입에 올리게 됐다고 했다. 학교마다 "학교 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도 한결같은 반응이다. 노장옥 난곡초 교장은 "싸움이 나도 한쪽에서 '~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해버리면 화낼 타이밍이 한 박자 죽는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님 경기도내 초·중·고에도 이와 같은 실험정책을 확대 실행 부탁드립니다♡♡♡

20 공립유치원 파행적인 방과후과정 운영 정상화해주세요

이○○ • 2014-06-23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의 파행으로 교사는 물론 유아들과 학부모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방과후과정이 확대 실시되고 있는 요즘 방과후과정 전담인력을 보조원이라 규정해서 정규교육과정 이후 유아들을 돌보고 수업해야 하는 분들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교육실무직원의 분류에 포함,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인력임에도 인건비 지원이 없어 농촌의 3, 4, 5세 유아 11명이 다니는 저희 유치원은 보조원 인건비를 충당하느라 유치원 운영비 중 공과금과, 시설유지비 정도를 제하면 대부분이 보조원 인건비 지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놀이터 모래소독, 교재교구 및 학습준비물 구입등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3년 말 보조원 정원관리로 퇴직이나 신증설로 인해 발행한 방과후과정 보조원 결원을 6개월 한시직으로 충당해 운영하고 있는 300여 학급의 경우 여름방학을 앞

두고 2학기 방과후과정 보조원을 어찌해야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경감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처리해오던 유아학비지원, 급식비지원 등의 일반행정업무에 교원능력개발평가, 3주기유치원평가 등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교육외 업무가 많은 정규과정 교사들에게 방과후과정 수업, 방과후과정 관련 제반업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 상황 개선해주세요

- 1 방과후과정 전담인력(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급
- 2 2014학년도 2학기 방과후과정에 대한 신속한 정책지원

21 공교육의 대안 '귀인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십시오

남○○ • 2014-07-09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의 취임사 잘 보고, 또 읽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교육감으로서의 굳은 결심과 변화의 의지가 느껴지는 취임사였습니다. 저는 교육의 변화는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단원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리고 어른이라면 더더욱 이번 단원고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우리 학부모들 역시 교육계의 변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등교시간부터 9시로 조정해 보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고(쉽지만 그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인수위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들을 모두 읽어보고 실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안양 귀인초에 관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안양 귀인초 학부모입니다.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안양 귀인초는 공교육의 대안으로 언론에 보도된 유명한 학교입니다. 특히나 2013년에는 교육과정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어 큰 상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공립학교 같지 않은 다양한 교육활동과 방과후 수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학교입니다.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올 3월부터 학교가 뒤숭숭하더니 급기야 6월에는 교장선생님께서 잠시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야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교장선생님의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직격탄으로 날아왔습니다. 3월 신학기 입학식 이후부터 단오제를 비롯하여, 과학의 날 행사 그리고 다양하고 즐거워했던 아이들을 위한 활동들이 축소·운영되거나 줄줄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열망만으로 우리의 교육이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열망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전문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안양 귀인초는 이런 교육전문가들이 모인 학교입니다. 교육적 소신과 열정을 가진 교장선생님과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귀인초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년 동안 그 교육적 혜택을 누리면서 공교육을 받아온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공교육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안양 귀인초에 관심을 가져주시십시오!!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님이 공약한 교육혁신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안양 귀인초의 교육성과를 확인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귀인초의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공교육의 대안으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7월부터 교장선생님은 학교로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도 점차 생기를 되찾고 있는 듯싶습니다. 2014년 1학기는 작년과 비교할 때, 귀인초에게는 없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후회하고만 싶지는 않습니다. 귀인초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잠시 동안의 쉼표라 여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교육감님의 행보에 무한 지지를 보냅니다.

의정부여자중학교 건의사항

1 의정부여자중학교 · 3학년 3반 장○○, 이○○, 신○○, 배○○

안녕하세요 저희 의정부여자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입니다.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이재정교육감님에게 저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사항-

- ① 9시 등교시간 도입(현재 7 : 50분까지인 등교시간을 회사원처럼 9시로 늦춰주세요!)
이유-청소년, 안그래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시기인데 직장인보다 등교시간이 빠릅니다. 등교시간을 늦춰서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다면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 학업실력도 향상될것입니다.
- ② 배움터 지킴이를 늘려주세요(학생의 안전을 좀더 지켜주세요!)
이유-학교에는 한두명씩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수가 적어 학교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만든 배움터 지킴이가 정작 도움도 안된다니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를 늘려주세요!
어른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저희들의 안전도 지킬수 있을겁니다.
- ③ CCTV설치(학생들의 안전과 도난방지를 위해서!)

이유-학교에서는 1년에 적게는 한두번씩 많게는 여러번 도난사고가 일어납니다.

도난사고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휩니다.

만약 CCTV설치가 사생활침해로 문제가 된다면 각 교실은 아니더라도 복도나 교문 쪽에 CCTV를 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아이들이 도난사고에 대해 불안하지않을것이고 학생들의 안전도 보장될꺼라고 생각합니다.

④ 마을학교 확산(아이들의 창의력과 재능을 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이유-아이들의 창의력과 재능을 많이 발견할수없는 틀의 박힌 수업방식보다는 여러 가지를 배울수 있어 아이들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마을학교를 확산시켜주세요

저희들의 요구가 빠른시일내에는 실현되지 못하겠지만 저희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의정부여자중학교 • 3학년 1반 강○○, 오○○, 이○○, 이○○ • 2014-06-18

① 9시 등교시간 도입. 학생들의 잠과 아침밥을 뺏는 무리한 등교시간을 규제해주세요.

학생들이 학원이 늦게 끝나고 학교 숙제, 수행평가 때문에 늦게 자게 되는데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해서 아침잠이 부족합니다.

수업 시간에 졸게 되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했을 시에 학생들의 공부 집중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60시간 정도 되는 봉사시간을 줄여주세요.

내신 반영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줄고 학업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③ 학생 휴가제도를 도입해주세요.

계속 공부만 하다 보면 공부를 멀리 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도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학생 휴가제도를 도입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④ 시험 기간의 휴일을 보장해주세요.

간혹 시험 기간이 주말까지 겹쳐 휴일조차 공부를 해야 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중,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주말이 겹치면 더욱 힘들고 맥이 끊기게 됩니다. 평일날 즐기며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주말 전후로 진행하지 않는 시험기간이 된다면 학생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 입니다.

⑤ 1교시 전 체육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보통의 학생들은 아침 시간에 정신이 몽롱하기 때문에 1교시 수업시간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공부하기 전 시간에 운동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성적이 향상 될 것 입니다.

⑥ 일주일에 한 교시만 자율학습시간을 마련해주세요.

과목으로만 수업하다 보니 자신이 더 하고 싶은 과목이나 활동을 못함으로써 불만이 증가하게 되고 자유로운 자율학습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므로 자율학습시간이 생기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많아져 스트레스도 풀리고 불만도 감소 할 것 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정책이 최소한이라도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 의정부 여자 중학교 • 3학년 1반 4모둠 김○○, 김○○, 이○○, 김○○ • 2014-06-18

① 9시 등교 시간 도입

학생들의 잠과 아침밥을 빼앗는 무리한 등교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 등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 등교 시간을 넉넉하게 아홉 시로 잡는다면 적어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잠도 별로 자지 못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것이다.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시험 축소

중간고사, 모의고사, 기말고사 등 학생들은 영영 시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시험을 꼭 필요한 것들만 치루는 것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점수'에만 치중하게 되는 삶이 조금 더 변화되고, 학생들의 각박한 생활 역시도 나아질 것이다.

③ 학생 자율 교과목 선택권

학교에서 배우라는 것만 배우는 것은 학생들의 진로에 그닥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 것 같다. 기본 과목인 국수사과영은 배우지만 나머지는 자율로 선택하게 해서 나중에 진로 고민 때 적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상벌점제 폐지

학생들을 점수로 길들이고 통제하는 방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학생들과의 소통이 시급할 때에 잘못된 일을 점수를 통해 이렇게 규제한다면, 소통은 바라지도 못 하고 그저 찬바람만 부는 학교가 될 것이다. 소통이 먼저 중시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⑤ 책걸상 확대

교과서가 많은 것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학생들이 하루의 절반 정도를 머물러 있는 학교,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몇 시간 동안 사용하는 의자와 책상 편리를 위해 책상은 넓어지고 딱딱한 의자는 학생들의 올바른 자세를 위해 폭신해야 한다.

⑥ 간편한 옷걸이장 설치

학생들의 교복이나 체육복, 생활복 등이 떨어져 있으면 옷이 더러워지는 문제점과 동시에 값비싼 교복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 옷걸이장을 설치해 정리정돈과 분실의 위험까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⑦ 고등학교 의무 교육

고등학교를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야 사회에서 졸업장으로 인한 무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사비로 교과서를 사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교과서를 중학교 때와 같이 무상으로 지급해 줘야 한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우리의 의견이 꼭 전달되어서 우리가 좀 더 편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의정부여자중학교 • 3학년 3반 1조 박○○, 송○○, 이○○, 이○○

① 조식 제공

시간 관계상, 집안 사정상 아침을 챙겨먹고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아침부터 배고픔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여 먹는 것이라도 제공을 해줘야 한다.

② 9시 등교, 2시 하교

수업시간을 줄이면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이 보장된다.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의 보장이 공부에도 얼마나 큰 효율성을 주는지는 이미 여러나라에서도 검증 되었다는 글이 많다. 실제로도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다.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긴시간동안 아이들을 잡아놓지말고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시간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

③ 급식 메뉴 선택

알레르기과 개인 사정으로 먹지 못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 먹을 수 있는 반찬 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채식을 하는 경우의 학생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더 적어진다. 학생들도 선호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주고 급식 메뉴를 좀 더 넓혀 학생들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학생 휴가 제도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하루정도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휴식을 위해 휴가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미 좋은 교육정책이 실현되는 곳들도 있고 그로인해 학생들의 행복도가 높아진 곳도 많은 것을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바라는 것을 실현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일들을 우리 나라에서도 하나씩 실천해갔으면 좋겠습니다.

5 의정부여자중학교 • 3학년 3반 5조 강○○, 박○○, 이○○, 홍○○

① 혁신교육 확산

요즘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자사고와 같은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있다.
하지만 모든학생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혁신학교를 대폭 확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수있도록 해야하며, 최고의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② 지필평가 20%, 수행평가 80%

요즘은 사교육이 너무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필평가보다는 수행평가의 비중을 대폭확대시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이 줄어들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주 5일제 폐지

최근에 주 5일제가 되면서 방학이 너무 짧아져 학생들의 불만이 늘고있다.
주 5일제를 폐지하고 토요일에도 등교를 해서 방학일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모든학생들이 참여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 등을 실시하기를 바란다.

④ 체육시간 확대

요즘 학생들은 체력과 건강이 너무좋지않고, 비만인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다.
체육시간을 대폭 확대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해주어야 한다.
실제로 운동시간을 늘렸더니 학업성취도와 집중력이 상승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⑤ 9시 등교시간 도입

청소년기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잠이 많아진다.
하지만 요즘 등교시간은 이런 청소년들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고있다.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집중력이 높아질수 있도록 9시로 등교시간이 변경되어야 한다.

무리한요구인것 같기도 하지만, 꼭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번)

이재정 교육감님, 저희 글 꼭 읽어주세요!!



우리가 만든 교육정책

① 9시 등교시간 도입

학생은 적어도 8시간이상 잠을 자야 학교공부에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잠이 부족하다면 집중력은 물론 성장과 스트레스에 영향도 끼치고 아침에 시간도 촉박해 아침밥을 못먹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 정책이 도입된다면 학생의 스트레스도 줄고 건강해질것이다.

② 학생 휴가제도 도입

중학생은 대부분 8시 30분부터 4시30분까지 학교에 있고 학교가 끝나고 10시까지 사교육을 받고 집에가서 공부를 또하다보면 지치고 힘든것이 당연하므로 주기적으로 쉬는날을 정해 준다면 학생들의 컨디션은 물론 성적은 당연히 높아질것이다.

학교에서 뻑뻑히 수업을정하고 수업을 한다고해도 컨디션이 안좋거나 힘들어서 집중을 안하면 성적은 더 떨어진다.

③ 학급 인원수 줄이기

우리학교는 혁신학교라 한반에 24명에서 25명인데 일반 학교는 한반에 대략 40명이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수업에 집중하지않아도 눈에 띄지 않을거라고 생각해 판짓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집중하지않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수를 줄인다면 책임감도 높아져 더열심히 공부할수있고 통제도 쉬워져 학구열도 높아질것이다.

④ 상벌점제폐지

우리학교는 상벌점제가 없는학교이다.

상벌점제가 없다고해서 통제가 안되는것도아니고 자유를 보장해주기때문에 더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는것같다. 상벌점제는 이유없이 벌점을 받거나 선생님과 개인적인 일때문에 벌점을 받으면 억울하고 학교를 다니길 싫어하는 학생도 많아질것이다.

벌점제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둔다면 스스로 잘할수있을것이다.

7 의정부여자중학교 • 3학년 8반 1조 최○○, 김○○, 이○○, 김○○

① 예체능 점수 폐지

음악, 체육, 미술 등 소질이나 재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체능은 타고 나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연성, 폐활량, 지구력, 노래실력 등 선천적인 것들을 점수로 매기는 것은 학생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예체능 관련 과목은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만 평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② 9시 등교제 도입

청소년기에는 멜라토닌이 1시간 늦게 분비되어 아침잠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 학생들에게 8시 등교를 요하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다.

등교시간이 9시로 바뀌면 학생들도 맑은 정신으로 수업에 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혁신학교 확대화

진로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직업의 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혁신학교에서는 틀에 박힌 교육방침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④ 별점제 폐지

학생을 애매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 꼭 별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상담과 대화, 교육만으로도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수행평가, 성적 등을 통해 부담 받는 학생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모의고사 폐지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필요 이상의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등급이라는 틀에 박혀 스트레스를 받느니 진로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 시간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⑥ 학생 휴가제 도입

빠듯한 일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학생들에게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다.

휴가제가 생긴다면 분명 현재보다는 학생들이 더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활기를 찾아 하루하루를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⑦ 주 1회 자기계발시간 도입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방법들이다.

심지어 주말조차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공부에 바치고 있다.

그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기계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학생의 숨겨져있던 재능을 찾거나 이미 꿈을 가진 학생들은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⑧ 과정 중시 시험

답만 강요하는 시험은 자신이 알고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암기력 테스트에 불과하다.

문제를 해결할 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물론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는 과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 교육 방침에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⑨ 상대평가제 폐지

이 사회는 암묵적으로 남보다 더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행복이라는것이 언제부터 남과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되었을까?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남들과 비교해놓은 등수, 등급을 학생에게 알리지 않는다.

지난 시험보다 더 잘나온 성적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격려한다.

학생들이 숫자에 억압 받는것은 절대평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상대평가제가 폐지된다면 학생들은 남보다 우위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위 정책들이 빠른 시일내에 순수하게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부디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B 의정부여자중학교 • 3학년 8반 1조 최○○, 김○○, 이○○, 김○○

① 예체능 점수 폐지

음악, 체육, 미술 등 소질이나 재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체능은 타고 나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연성, 폐활량, 지구력, 노래실력 등 선천적인 것들을 점수로 매기는 것은 학생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예체능 관련 과목은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만 평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② 9시 등교제 도입

청소년기에는 멜라토닌이 1시간 늦게 분비되어 아침잠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 학생들에게 8시 등교를 요하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다.

등교시간이 9시로 바뀌면 학생들도 맑은 정신으로 수업에 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혁신학교 확대화

진로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직업의 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혁신학교에서는 틀에 박힌 교육방침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④ 벌점제 폐지

학생을 애매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 꼭 벌점이여야 할 필요는 없다.

상담과 대화, 교육만으로도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수행평가, 성적 등을 통해 부담 받는 학생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모의고사 폐지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필요 이상의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등급이라는 틀에 박혀 스트레스를 받느니 진로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 시간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⑥ 학생 휴가제 도입

빠듯한 일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학생들에게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다.
휴가제가 생긴다면 분명 현재보다는 학생들이 더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활기를 찾아 하루하루를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⑦ 주 1회 자기계발시간 도입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방법들이다.
심지어 주말조차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공부에
바치고 있다.
그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기계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학생의 숨겨져있던 재능을
찾거나 이미 꿈을 가진 학생들은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⑧ 과정 중시 시험

답만 강요하는 시험은 자신이 알고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암기력 테스트에
불과하다.
문제를 해결할 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물론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
르겠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는 과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것
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 교육 방침에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⑨ 상대평가제 폐지

이 사회는 암묵적으로 남보다 더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행복이라는것이 언제부터 남과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되었을까?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남들과 비교해놓은 등수, 등급을 학생에게 알리지 않는다.
지난 시험보다 더 잘나온 성적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격려한다.
학생들이 숫자에 억압 받는것은 절대평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상대평가제가 폐지된다면 학생들은 남보다 우위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위 정책들이 빠른 시일내에 순수하게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부디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23 기나 긴 터널 속 교육행정직

김○○ • 2014-07-08

12년 전 저는 노동부 직업상담원으로 일을 하다 공무원이 되어야 겠다 결심을 하고 독한 마음으로 1여년 공부하여 자랑스러운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직이 되었습니다. 처음 연고도 없는 포천으로 발령을 받아 남편과 주말부부를 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직의 보건교사화는 이미 되어있었고, 높은신 분들의 공약에 따라 영양사의 영양교사화, 기능직의 일반직화, 교육실무사들의 처우는 나날이 좋아지고 이제 곧 이분들도 공무원화를 꿈을 꾸고 교육감님의 마인드라면...곧 실행이 되겠죠.

그럼 12년동안 저희 교육행정직의 처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저희는 공무원이니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잘 되면 좋은거지...하며 아무말없이 지내왔습니다. 그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귀머거리 몇년, 병어리 몇년으로 소리없이 지내다 보니 제가 내린 결론은 소리를 내야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육행정직은 기본 업무외에 소방관리자, 석면안전관리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 새로운 업무들이 쏟아질때마다 새로 생기는 책임들을 떠 맡으며 아무런 처우 개선도 없습니다.

교사들과 교장선생님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 높은평가를 받기위해 여러개의 새로운 사업과 예산을 따 올때 마다 저희의 일은 그만큼 폭주합니다. 또한 아무런 처우 개선도 없습니다. 공립 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근무하여 유치원 업무까지 합니다.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관리수당을 받지만 관련 업무는 하는 저희는 아무런 처우 개선 없습니다. 그냥 일을 하라합니다.

과연 저희는 아무소리 안내고 일만 해야 합니까?

교육감님,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만 있는게 아닙니다. 학교에는 주요업무를 하는 교육행정직이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책임만 막중하게 떠 앓고 있는, 한푼의 수당없이 일하는 저희 교육행정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판을 보십시오. 수많은 교육행정직인



피를 토하며 처우를 개선요구하고있는데.... 연가보상비 삭감과 인건비 삭감의 위험을 느끼며 여기서 소리를 높여 우는 데.... 교사연구실 환경 개선사업관련한 공문 보고할때 느낀 그 자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보다 낮겠지... 이또한 지나가리라.... 더 좋아지겠지...

허나 저희 교육행정직은 긴 터널속에 갇혀 있는거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서무실 발언과 연가보상비 삭감 계획, 6급 행정직의 연수 취소 소식을 들으며 몇날 며칠 잠도 못잡니다. 더이상 나아질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저희 교육행정직의 미래를 위해서 손을 잡아 주श्य요. 저희는 터널속에서 빠져 나오고 싶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교육행정직으로 아이들에게 떳떳한 공무원이 되고싶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저희도 희망이라는 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1 행정실 법제화

2 관리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

소리 높여 봅니다.

24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 • 2014-06-23

교육감 당선자님께.

올해 7년차 미인가 대안학교 교사입니다.

어찌보면 막연한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만나는 즐거움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대안교육을 선호해서 입학한 아이들이 저마다의 장점을 발휘하여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보람이요 지금까지 다른길을 찾지 않고 한길만을 걸어오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의 현장에서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아쉬움과 때로는 좌절을 격게 하는 일들입니다.

한 예로 한동안 교과부에서 매년 진행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금 사업'으로 적지 않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검정고시 수업을 해주는 기관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재정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에게서 받는 수업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공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며 미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당선되신 교육감님!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대안교육으로 들어온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 민주 · 개혁적 교육감을 기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경기도민은 또다시 민주 · 개혁적 교육감을 선택하였다.

이는 지난 6년간 진보교육감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대한 또 다른 평가일 것이다.

지난 6년간 진보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평준화 등 교육현장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냈다.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를 쇄신하기 위하여 조직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와 더불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또 다시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의 성공 이면에는 일선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희생이 전제되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교사 행정업무 경감정책은 조직의 재설계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진행되어 종국에는 풍선효과로 인하여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희생을 강요당하였으며, 교원업무경감을 위하여 새로이 채용된 행정실무사는 저가(低價)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난 6년간 소기의 성과는 있었으나 분배와 평등, 차별철폐라는 진보적 가치는 경기교육현장에서 미흡하게 작동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든 소수인 상대방의 희생을 전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교육의 주체는 오직 교사뿐이라는 전근대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 이제 학교의 구성 비율중 비교원의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일선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역시 정책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경기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라는 인식을 새로운 교육감도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변화한 대한민국의 상이며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틀에서 함께 하는 혁신이야말로 완성도가 높아 질 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도 더욱 빛날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진보교육감의 노력과 가치를 신뢰한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신뢰의 가치가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26 발안도서관을 칭찬하고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주세요!!!

성○○ • 2014-06-19

내용 저는 세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두아이는 중학생, 막내는 초딩..

셋을 키우며 틈틈히 학교서 주최하는 부모교육을 많이 받았지요.

솔직히 저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교육을 여러가지 받았지만 이론상의 아이키우기밖에 되지않는 교육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작년 봄!!! 사서도우미를 시작하며 또 교육이 있다고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흠... 역시 회의적이었지만 전업주부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획기적이고 충격적이고 뿌듯한 교육이었어여..

동화구연...

좀더 일찍 이런 교육을 접했다면 세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있었을것을...

발안도서관서 동화구연을 무료로 시켜주고 동화샘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배운것을 활용하며 한번도 생각지못했던 봉사를 했습니다. 별천지였어요...

새로운 경험들~ 봉사를 통해 느껴지는 보람과 행복감... 특별한 자존감이 생기더라구요.

올해는 막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서 책임어주는 엄마들의모임을 통해 동화구연에서 배운것을 100%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 동화구연을 배운 엄마들이 모두들 적극적으로 학교서 활동한답니다.

아이를 키우며 사회에 소극적이고 용기가 사라지던 저에게 자신감과 남에게 도움이될수있다는 뿌듯한 감동을 주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하고 발안도서관에게 교육청의 적극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발안도서관... 감사합니다.

저희 담당이신 과장님과 간사님 고마워요~

두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동화샘이라는 동아리를 멋지게 키워주시는것 같아요!



안산시 단원구에 혁신학교를 늘려주시요.

이○○ • 2014-06-17

안녕하세요.

저는 네살된 딸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안산에 이사온지는 5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고 망연자실 하였지만 그래도 지인이 겪은 일은 아니기에 차마 그 아픔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 하루 지날 수록 몇해 지나 우리 아이가 들어갈 공교육의 실상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학생들의 잘못도 교사들의 잘못도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잘못이긴 할겁니다. 안산시민 모두가 아픔을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단원구의 사고자 가족들과 지인들 일겁니다.

혁신학교가 어떤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학교교육을 바꿔나가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단원구 만큼은 교육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새끼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또 아이를 보냅니까?

교육을 바꿔 주십시오.



단원고 참사 후 여러가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수습에 힘쓰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바뀌어야 할 것들이 바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교실에 우리 아이를 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8 열악한 농촌 지역의 돌봄 교실을 우선 지원해 주십시오

남○○ • 2014-07-08

열악한 농촌 지역의 돌봄 교실을 우선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근무하는 곳처럼 낙후된 지역에서의 돌봄 교실은 보육과 교육의 의미가 너무나 크다고 보여 집니다. 몇 개 되지 않는 저녁 돌봄의 현장 근무자로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저의교실 아이들은 더러는 학원을 다니기도 하지만, 사교육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요.

특히 저학년은 가정 학습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므로 저의 경우 많은 시간을 받아 쓰기며, 수확 등으로 꾸려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이 아닐까 싶어 노력을 합니다만 역부족입니다.

대통령 공약 실현이라는 이유로 돌봄 확대를 하면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탁상행정을 시정해 주시길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수적으로 늘어난 만큼 보육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저의 입장입니다.

예산삭감에 따라 특기적성 교육을 한 가지도 하지 못한 채 한 학기가 지나가는 것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1, 2학년만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학년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라지

요.

저희 교실은 형제자매의 경우가 많습니다. 1인당 4만원의 저녁식사 비용을 받고 있구요. 둘이 다닌다면 8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학기 초 비용을 정할 때 담당 선생님과 고민을 많이 했지요.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저로서는 4만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주로 작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면소재지인 농촌이지만 농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보다 대기업도 아닌, 골골이 들어앉은 작은 공장에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맞벌이를 한다지만 어머니들이 받는 보수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작은 수입에서 8만원은 큰 비중입니다. “8만원?” “그만할래요...” 실제로 그만둔 형제자매들이 있지요. 저녁까지 챙겨 먹이고 보살펴 준다고 엄마들은 무척이나 고마워 하면서도 말입니다.

저학년 위주로 신청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또한 탁상행정입니다. 도시처럼 주거지가 밀집된 곳에 있지 않고 띄엄띄엄 떨어진 외판집의 경우가 많은 것이 이곳의 현실입니다. 딸을 둔 엄마가 고학년이라는 이유로 집에 있으라하고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겠지요. 아이 혼자 있을 수 있다 해도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요. 미디어의 발달은 철없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적잖은 문제들에 오류이 노출 되는 것은 불 보듯 뻔 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우선 열악한 농촌 지역만이라도 예산 좀 증액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같이 땀 흘리며 품다 보니 좀 더 좋은 것 먹이고 싶어지고, 아름다운 것 보여주고 싶어지고, 해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엄마의 맘이 됩니다. 교육감님의 지지자로서 부탁드립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해안으로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돌봄 교실의 의미를 살피 주십시오.

29 인수위에 바라는 점 세가지가 있습니다.

한○○ • 2014-06-23

저는 현재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말들은 다 틀리며 무의미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로 무상교육의 확대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의무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걸 배우도록 방임하는것이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걸 배우도록 강요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원해서 하는것이며 여기에 국민과 학생의 자율적인 의지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교육의 의무라 부르며 국민의 4대 의무에 편입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막대한 교육비를 쓰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교육비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교육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공교육비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할때 그들에게 급식비를 받나요? 아니면 총값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강요한 일인데 그들에게 그 비용을 받는다는건 으무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상급식은 환영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며 교육의 의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고등학교에도 확대해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자체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둘째, 교직원 복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나 교원들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어있기에 교사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도민들이 뽑은 이유는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라고, 그들을 편하게 해주라고, 승진 많이 시켜달라고 등등... 그런데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위해 국가에 투입된 교육예산을 잘 활용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객체들. 교직원, 시설, 물품, 재산 등을 잘 활용하라고 교육감님을 뽑은것입니다. 대체 왜 교사에게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돈을 낭비하여야 하나요? 왜 비효율적인 인력구조를 자청하시나요? 사람은 적을수록 좋으며 돈은 적게 들수록 좋습니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것입니다. 똑같은 성과를 내면서 그 비용을 줄이라고 비싼 돈 들여서 공무원을 뽑고 교사를 뽑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쓸 돈도 모



자라서 무상급식도 경기도에 손을 벌리는 현실에서 맞춤형복지비 35만원 인상도 모자라 교사의 복지를 위해 돈을 더 쓴다면 경기도에 교육재정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세금을 갉아먹는 행위일것입니다. 맞춤형 복지비 5만원 상승만해도 이로 인해 수십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을것으로 추측됩니다. 교육청이라면, 교육자라면 이런데 돈이 낭비되는것에 분노하고 지역도서관 건립을 위해 이 돈을 쓸수 있도록 도와 협조해야 했을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셋째, 인력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청, 학교에서 낭비되는 인력이 많습니다. 전체 숫자면에서는 많다고 볼수 없지만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들이 본인의 업무능력과 소양이 부족한 것을 일반직을 밑에 둬으로써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장학업무를 할수도 없습니다. 결국 학교에 교사 밑에 행정실무사 두는데 더 높은 장학사인 우리는 왜 없느냐는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탄생한 비정상적인 인력구조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도 시설과에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일이 힘들어 떠나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사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결코 복잡한 구조를 가질 이유가 없는 조직입니다. 특히 학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무쪽으로만봐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행정실무사로 무려 5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교직원을 모두 합쳐봐야 50명 정도밖에 안되는 곳에서 말입니다. 교무실로 국한하면 고작 30명정도인데 5단계의 구조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며 낭비입니다. 학교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교감을 없애고 부장들을 교장이 직접관리하며 행정실장을 부장들과 같은 위치에 두고 행정실무사를 교사들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면 5단계에서 3단계로 구조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그게 최일선행정기관인 학교에 어울리는 행정조직 구조입니다.

교육감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입니다. 교육감님을 위해 뽑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사, 교육실무직원,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이 국민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이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권위를 원한다면 국민에게 희생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학교 조직에서 가

장 힘이 센 교사를 억누른다면 다른 조직은 당연히 끌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과거의 권위를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권위를 주장하는 조직이 실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현재 희생이 필요한 조직이며 이를 통해 최소의 조직, 최소의 비용으로 학교 조직을 운영하시고 모든 이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30 잡무를 해결해 주세요.

김○○ • 2014-07-08

보건교사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1인이 근무하고 있고, 학부모의 학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더 증가하는 현실에서,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다보니 보건교사의 업무만족도나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터구나 석면,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비롯한 학교 환경 위생관리는 시설 관리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교직원 중 1인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내 업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 내 역학구도 상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법적 직무인 보건교사에게 이 업무를 분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각 학교에 보건교사가 1인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법적 직무 수행조차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법적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상하수도, 소방 시설 등은 이미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있는 바, 환경위생 또한 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지자체 내 관련부와 학교의 시설 전문 인력이 함께 전문성을 발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가 행복한 학교가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31 전문상담교사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김○○ • 2014-07-08

전문상담교사 현안의 해결방안

1 1교 1명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책임 있는 자리에서 관리자를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상담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해나갈 수 있으려면 전문상담교사를 정식으로 임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안이 있을 때만 임시방편으로 전문상담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인 증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는 세월호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사전예고제를 통해 경기도에는 5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부에 증원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담장학사 선발을 통한 상담관련 업무 연계

학교상담의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는 상담장학사를 배출하여 업무의 연계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자격규정 마련

전문상담은 상담 사례에 대한 이해와 임상경험이 중요한 분야로 단순히 학력이나 인접 학문을 전공하였다고 하여 대치될 수 없는 실습 학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 사례 실습과 수퍼비전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아래 제시한 상담관련 자격은 상담실습과 수퍼비전을 자격취득 단계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전환 시 자격기준으로 정하여 전문상담사의 역량과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3.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4.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5. 임상심리전문가 이상(한국임상심리학회)

영어교사 26년, 전직 전문상담교사 2년

전○○ • 2014-07-08

먼저 이런 열린 광장을 통해 우리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해주시는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50이 넘도록 이런 공공기관에 공식적인 글을 써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직 전문상담교사들의 이야기들이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집단이기주의로 보인 않을까, 자기들의 밥그릇만을 챙기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정적 평가가 있을지 몰라 망설이고 망설이다 글을 씁니다.

사실 제가 아직도 교과교사로 남아 있었다면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수업을 어떻게 해야 더 재미있게 할까, 우리 반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할까 등 다른 일반교사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전직전문상담교사 공고가 난 후 자격요건에 맞추어 시험을 보고 주변의 축하 속에 현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로 부임하였을 때는, 물론 승진포기가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그래도 그 길로 계속 가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후회도 났었지만, 보다 힘든 아이들 옆에 있을 수 있고 보다 진솔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임을 가지고 부임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제 경력이 교장교감선생님을 빼고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늘 B 였고, 학부모님 앞에서 교사소개를 할 때도 모든 담임선생님을 다 소개한 후 나머지 선생



님 나오세요 ~ . 하며 소개해 주시고, 행정실무사들도 3, 40대 젊은 부장들한테는 찢찢 매면서 내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위클래스에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자기가 학교에 대해 좀 아는데 상담교사가 뭐를 안다고 그러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친하게 지내는 다른 선생님들도 그래도 상담교사는 담임도 없고, 수업도 안하고 천국 이 아니냐며 그런 것들을 다 눈감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교과교사와 상담교사 중 저에게 있어 더 힘든 쪽은 솔직히 말해 상담교사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 아이들, 부모님의 이혼, 싸움, 알콜중독 등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한 시간 상담하고 나면 수업을 몇 시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지치고 힘듭니다.

그 아이들이 왜 아프고 힘든지는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막막함과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까 하는 생각에 늘 가슴이 먹먹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늘 그 아이의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즐거운 기분이 들지 않아 온 몸의 세포가 지치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뇌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라는 생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가며 열심히 노력하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교사로 전직한 것이 제에게 자존감 하락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었고, 나름대로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된 길이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영어교사로 재직한 26년 동안 누렸던 혜택들, 이를테면 국내, 국외연수라든가 학교에서는 주요교과 교사라든가 일을 많이 하는 교사라든가 등의 수식어는 다 사라져 버리고, 현재의 저는 수업이 없는 교사, 학교에 손목을 굶는 학생이 생기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교사,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교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은 저희가 하기 나름 아니겠냐고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 학교 내에서의 자리 찾기 등 모든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혼자 할 수 없는 일, 1) 상담교사 수당 문제, 2) 성과급 문제, 3) 정규전문 상담교사의 1학교 1교사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위클래스가 있는 학교의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에 비해 훨씬 덜하다는 통계는 상담선생님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얼마나 노력하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 올릴 수 있는 장을 만들에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16대 (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白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2014년 8월 인쇄

2014년 8월 발행

발행인 /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장 김상근

발행처 /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